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

연구책임 | 박 가 열
공동연구 | 윤 미 희
이 영 민

KEIS

발간사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사람 간의 접촉을 제한하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더디게만 보이던 직업 세계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법률직과 같은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 역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법률 정보 검색이나 판례 분석 업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며, 법률직 전문가는 소송 의뢰인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변론전략 수립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구조 및 사회적 가치의 다변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 제조와 서비스 산업의 융합,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보존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인재 양성 확대는 기존의 자격 면허 제도를 통해 보호받던 법률 전문직에게 위협과 기회의 동전의 양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증가와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증가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것입니다. 디지털 가상(증강)현실의 확대 및 제조와 서비스 산업의 융합은 법률시장의 영역을 확장하고 고도화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규제 정책과 포용적 사회정책 역시 법률 전문직의 한층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미래 법률직 업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는가를 탐색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법률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미래지향적인 직업·진로

준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려는 현직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정부의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법률직 전문가들과 제한된 연구 기간과 재원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 영 돈

【 차 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제3절 연구의 방법	3
제4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4
제2장 선행 문헌 고찰	5
제1절 전문직의 의미	5
제2절 변호사 제도의 도입	6
제3절 국내 변호사 시장의 현황	8
제4절 변호사 업무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10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4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17
제1절 해외 주요국의 법률시장 동향	18
제2절 해외 주요국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3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45
제4장 법률직의 미래 전망	48
제1절 미래 워크숍 설계	48
제2절 미래 워크숍 결과	56
제3절 법률시장의 미래	7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1

제5장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인식	85
제1절 조사 개요	85
제2절 조사 결과	87
제3절 소결	104
제6장 결론 및 제언	107
제1절 요약	107
제2절 결론 및 제언	118
참고문헌	122
부록. 법률직 미래 설문조사 주요 결과	125

[표 차례]

<표 2-1> 변호사의 연도별 증감	8
<표 2-2> 우리나라 법률시장 매출 규모	9
<표 3-1> 변호사의 역량(워크넷 직업사전)	36
<표 4-1> 미래 워크숍 개요	49
<표 4-2> 미래 워크숍 단계 및 과정	49
<표 4-3> 브레인스토밍 진행 방법	52
<표 4-4> 브레인라이팅 활용 질문	53
<표 4-5> 워크숍 활용 미래 이슈 10개	55
<표 4-6> 10년 후 법률직 관련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	57
<표 4-7> 10년 후 법률직 관련 사라질 것	58
<표 4-8> 10년 후 법률직 관련 새로 생길 것	60
<표 4-9> 변호사가 전망한 10년 후 법률직 변화	62
<표 4-10> 변호사가 전망한 직무 변화	62
<표 4-11> 로스쿨 학생이 전망한 10년 후 법률직 변화	63
<표 4-12> 로스쿨 학생이 전망한 직무 변화	63
<표 4-13> 법률 사무원이 전망한 10년 후 법률직 변화	64
<표 4-14> 법률 사무원이 전망한 직무 변화	64
<표 4-15> 변호사가 전망한 미래 뉴스 헤드라인	66
<표 4-16> 법률직 사무원이 전망한 미래 뉴스 헤드라인	67
<표 4-17> 로스쿨 학생이 전망한 미래 뉴스 헤드라인	67
<표 4-18> 법률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AI 대체 가능성	80
<표 5-1> 설문조사 개요	86
<표 5-2> 조사 주요 항목	86
<표 5-3> 응답자 인구통계 특성	87

<표 5-4>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예상	88
<표 5-5> 미래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	89
<표 5-6>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90
<표 5-7>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91
<표 5-8>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	92
<표 5-9>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필요 정도	93
<표 5-10>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준비 정도	94
<표 5-11>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가능성	95
<표 5-12>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	96
<표 5-13>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97
<표 5-14>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	98
<표 5-15> 변호사 미래 역량 요구도 분석	100

[그림 차례]

[그림 3-1] 해외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규모	19
[그림 3-2] 해외 로펌의 매출액 순위	21
[그림 3-3] 해외 로펌의 지분 파트너 매출액 순위	22
[그림 3-4] 2019년 기준, 한국 6대 로펌의 전문 인력 보유현황	23
[그림 3-5] 2019년 기준, 한국 6대 로펌 인력의 1인당 생산성	23
[그림 3-6] 영국 로펌의 매출액별 순위	26
[그림 3-7] 일본 로펌 순위와 변호사 수	30
[그림 3-8] 변호사의 전문 역량	32
[그림 3-9] lawyer360 역량 모델	33
[그림 3-10] 변호사의 미래 역량(ie law school)	34
[그림 3-11] 미국 변호사의 역량 모델 3.0(Legal Executive Institute)	38
[그림 4-1] 미래 워크숍 프로세스	50
[그림 4-2] 미래 워크숍 진행 과정	50
[그림 4-3] 브레인스토밍 결과	52
[그림 4-4] 브레인라이팅 과정	53
[그림 4-5] 브레인라이팅 과정	54
[그림 4-6] 미래 이슈 토론 과정	55
[그림 4-7] Donotpay.com 첫 화면	77
[그림 4-8] 온라인 분쟁 해결 웹사이트 Modria.com	78
[그림 4-9] 법률직의 네 가지 미래상	84
[그림 5-1] The Locus for Focus Model	101
[그림 5-2] The Locus for Focus 결과_ 미래 요구 역량	102
[그림 5-3] 법률직 미래 요구 역량 종합	103

요약

1. 선행문헌 고찰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의미하고,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관련이 깊은 제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체계적 지식을 응용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profession)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구식의 근대적 변호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05년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근대적 법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피고인 스스로 죄 없음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임무를 맡은 변호사는 자연히 대중들의 선망과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전문직을 대표하는 ‘사’자 직업을 이끌던 변호사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이 깊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로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가 매년 1,500여 명씩 급증하면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조만간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청에 따르면, 2019년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가 6조 3,437억 원으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꾸준히 연간 4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87.2%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014년 67.6%,

ii 요약

2016년 55.2%로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 최근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로부터 합격률은 53.3%로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법률 서비스는 전문성, 복잡성, 대면성 등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변호사들 역시 신기술의 등장과 해당 기술의 사용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가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유인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생긴다. 인공지능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찾아줌으로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변호사의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법제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법률 및 판례의 변화와 동향 등을 반영하며, 쉬지 않고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최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직접적인 활용 주체인 변호사의 경우 자신들의 직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위기감과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변호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견해, 나아가 인공지능과 변호사의 협업 모델이 줄 수 있는 혁신의 수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 긍정적인 입장 역시 적지 않다.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며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그 자체로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쟁 해결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법률 전문가들 역시 결국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배워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해외 사례 분석

변호사의 해외 사례 분석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법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송, 변론, 공증, 자문 등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이고, 경제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법률 규제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해외 글로벌 경제체제의 확대에 따른 국가 간 법률 차이에 따른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법률시장은 인간 중심의 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가,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리걸테크(LegalTech)라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서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된 기술 서비스로 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기술 변화를 법률 서비스에 접목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의 확장과 변호사의 역량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앞으로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정보 검색이나 판례 분석 등은 인공지능화된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소송 의뢰인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률시장은 여전히 국내 시장의 법률 수요에만 초점을 맞춰 성장하고 있다. 일부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 개설을 통한 해외 진출, 국제분쟁을 염두에 둔 소송 서비스 기능 강화,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등에 관심을 두고 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은 소형 법률사무소 위주의 법률 서비스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로펌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시장 확대와 진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법

를 서비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기존 서비스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각국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제도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변호사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만을 습득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다.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에 법률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시험의 경우에도 단순한 암기 위주의 양성방법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전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이러한 과정을 적절하게 이수하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변호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을 중심으로 현장성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와 자격체제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법률시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공이 상이하거나 해외에서 일정한 법학지식을 쌓았을 때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확대하여 법률시장의 인력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모델의 역량 요인들이 현장에서 통용 가능하고 실제적인 수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모델을 수정하고, 로스쿨의 교육모형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변호사도 다양한 경제, 산업,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한 역량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체제인 로스쿨의 선발, 양성, 활용단계 등이 체계적이고 현실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선발의 경우에도 현재의 역량보다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로스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나 시험 성적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인성과 품성을 갖추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성체제의 경우에도 실무현장에 바로 진출해서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과 인턴십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의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건, 소송, 의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분야에

서 전문성을 보이는 역량을 갖춘 제너럴리스트보다는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변호사가 일하게 될 환경은, 기존에 로스쿨의 양성단계에서 학습한 경험이 없는 사건이나 소송 등이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직으로서 미래 역량을 갖춘 변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로스쿨에서 학습한 내용은 불과 5~10년 이내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더욱이 기술 발전으로 리걸테크 기업들에 의한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수록 변호사의 직무와 경쟁력이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 분야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모습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습 역량과 경력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재교육 외에도, 변화하는 사회상과 기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구축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임용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는 주목하지 않는 특정한 내용이나 분야일지라도,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호사 개인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 체제나 자격연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해외 사례 분석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의 법률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법률시장 분석은 로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 외에도 법조인력 혹은 변호사가 로펌 이외의 분야에서 가치를 높인 모든 비용들을 반영하여 법률시장 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통계정보가 구축될 수 있다면, 법률시장 확장의 가능성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로펌 외에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규모나 서비스 현황들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법률직의 미래 전망

미래 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을 확정했다.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정하는 방향과 여전히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변수로 법률 시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는 방향과 전통과 안정을 고수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축으로 교차시켜 네 가지의 미래적 상황을 도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미래: 융합/도전, 인간(중심) 결정

A미래는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결정을 중심에 두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일부에서 발견된다. 이 미래사회는 기술의 의존을 경계하면서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무환경은 사회적 평판이 높은 스타 변호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로스쿨의 문턱은 낮아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률시장에 진입해 활동한다. 이 중분야의 연결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된다. 예를 들면 의료전문 변호사, 가상세계의 아바타 케어 전문 변호사 등이다. 이 사회에서 변호사는 융합력, 마케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무실 중심 변호사 시장이 사라지면서 변호사 개개인의 홍보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해진다.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변호사가 스타 변호사로 떠오른다.
-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반영한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이 증가한다. 기업의 약관이 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커진다.
-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4시간 상담 서비스나 고객 맞춤형 플랫폼 등 더욱 간편하고 접근이 쉬운 법률 서비스가 등장한다.

나. B미래: 융합/도전, 기술(중심) 결정

B미래는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면서 기술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사회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력이 높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인공지능으로 대부분의 법률사무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기술 수준이 높다. 미래도 예측한다.

이 미래에서 변호사들은 전통적 변호 업무보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일이 중심이다. 법률 분야의 이머징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예상한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탐색하고 갈등 조정 업무가 중시된다. 변호사들은 기술 활용력이나 조정과 대안 제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터넷 기사, 댓글, SNS 등 국민의 여론을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는 법률 AI가 등장한다.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미래 예측도 시도하며, 변호사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중요한 자료로 취급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 사람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AI 법조인 간의 재판이 열린다.
- 의뢰인들은 편견이 없는 AI와의 법률 상담을 사람 변호사와의 상담보다 선호한다.

다. C미래: 전통/안정, 인간(중심) 결정

C미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고, 인간의 최종 결정을 믿는다.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이 장려된다.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선에서 그친다. 인공지능은 판례를 수집하거나 요약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는 판례 해석력, 고객과 공감 중심의 소통력을 향상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전히 대면 업무가 중요하며 의뢰인의 성향에 맞는 소통 능력이 중시된다. 법률 상담과 함께 공감 능력도 변호사의 주요 역량이다. 변호사의 업무에서 심리 상담도 주요 업무다.
- 법률 AI가 등장하지만 판단과 결정 영역은 여전히 사람이 담당한다. AI

는 판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 입법 관련 로비스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로비를 뇌물로 인식하는 정서 대신 자연스러운 경쟁이라고 보고 로비 활동 합법화가 추진된다.

라. D미래: 전통/안정, 기술(중심) 결정

D미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들의 기술 수용력도 높다. 사회는 다소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해 변호사 외에 법률 사무직은 거의 사라진다. 인공지능은 다수의 의견과 기존의 판례를 중시한 결론을 내린다.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로펌들이 시장을 장악한다.

변호사들은 인공지능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활동한다. 이들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 활용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무조건 승소가 목적이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거대 AI가 등장해 전 세계 법률시장을 독점한다. 국가 간 법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 법률, 규제 방향이 비슷해진다.
- 법률 AI의 능력에 따른 격차가 생긴다. 기존에 부를 쌓은 법률사무소가 시스템이 뛰어난 법률 AI를 도입하면서 승소율이 높아진다. 변호사 간에 양극화가 심화된다.
-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는 법률 AI 활용이 보편화된다. 기존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흡수하여 AI의 판결에서도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이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4. 법률직의 미래 인식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변호사(141명), 법학전문대학원생(71명)을 대상으로 법률시장의 변화, 미래 직무 변화 및 새롭게 수행할 신 직무, 미래 직무 변화에 관한 요구 역량을 파악하여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

세계 변화상의 타당성 검증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으로 2020년 9월 24일부터 동년 10월 31일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했다.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를 예측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는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50.5%)이었고, 미래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8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74.2점),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72.8점),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7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3순위를 합산한 결과, ‘변호사 수 증가’가 8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 (40.6%),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35.4%),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소·심판 등의 제기 및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이 5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55.8점),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5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48.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해 ‘부동산’이라는 응답이 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부동산 열풍과 우리나라의 협소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인공지능’과 ‘일반 법률 자문’ (각각 7건), ‘계약서 자문’과 ‘기업체 자문’ (각각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8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84.2점), ‘언어력(한국어)’ (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8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능력’ (62.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x 요약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어력(한국어)’(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 ‘다양성 포용력’(6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타 변호사 등장’(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AI 법조인간 재판’(37.7점), ‘AI와의 상담 선호’(43.6점),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47.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이 7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법 관련 로비 활발’(70.3점), ‘변호사 역할 증대’(70.0점),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6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AI와의 상담 선호’(59.7점),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61.1점), ‘AI 법조인간 재판’(63.0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63.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년 뒤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에 대해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에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변호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증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미래 직업수행을 위해 각각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요도에 비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요구 분석을 하였다.

먼저 보리치 요구도 분석 결과,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5.68), 기술 활용 능력(5.04), 차별화 전략 능력(4.29),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4.26),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3.79)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1사분면에 해당하는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법률 지식,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석을 종합할 때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법률 지식이 공통적으로 미래에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을 말하는데, 변호와 같은 법률 전문직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래에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직이 미래 직업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법률 서비스는 인간사의 복잡 미묘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복잡성, 대면성과 더불어 사회적 통용성이 중요하므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시장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자체로 분쟁의 대상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변호사의 해외 사례 분석으로부터 새로운 법률 규제나 글로벌 경제 체제의 확대에 따른 국가 간 법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변호사 공급의 과잉만을 우려하는 소극적 시장에서 탈

피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가 도입되면서 소송 의뢰인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 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결정하는 방향, 여전히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향, 법률시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는 방향, 전통과 안정을 고수하는 방향을 축으로 융합/도전, 인간(중심) 결정, 융합/도전, 기술(중심) 결정, 전통/안정, 인간(중심) 결정, 및 전통/안정, 기술(중심) 결정의 네 가지의 미래적 상황을 도출했다. 이러한 다양한 미래 ‘들’이 펼쳐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넷째, 향후 미래의 법률시장은 수요 측면에서 신규 법률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고 스타 변호사가 등장하며, 이에 비해 공급 측면에서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심층적 법리 해석 및 전략 수립 판단과 의사결정 및 이에 따른 책임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래 수행 요구 역량과 현재의 준비 역량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법률 지식’이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전문직의 양성 및 활용 과정에서 경제 사회 및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유연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업역의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을 필두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과 제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 능력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문제 상황의 인식 및 파악 능력,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윤리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방식 역시 최근의 다양한 산업 현장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논박하는 실습 중심의 체험형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산업이 융·복합화되고 업무 영역이 중첩되면서 법률 전문직과 다른 직역과의 갈등도 예견된다. 앞서 새로운 법률 서비스 영역으로 꼽혔던 부동산이나 기존의 세무 영역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문화 예술이나 지적재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예견되는 업역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선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향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전문직 내의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미래 지향적인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양방향 개방형 법률 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전문직은 자신의 업무 전문성과 사회적 공익 추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말한다. 중세시대 상공인의 조합인 길드에 모태를 둔 전문직은 자격 제도에 기초한 배타적 지식 독점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사회적 계약 관계를 맺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질 정도로 디지털에 기초한 기술 혁신이 빠른 속도로 다양한 산업 및 직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융합되고 있다.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 역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피해갈 수 없으며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기술적 보완의 혜택을 입거나 혹은 기술적 대체가 가능하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 혁신은 기존의 면허 제도를 통해 업무 영역이 보호받던 전문직에 대한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산업혁명 당시 기술 혁신은 직능 수준이 낮은 단순직 종사자들이 기계를 조작하면서 숙련 수준이

높은 장인의 일감을 빼앗는 형태로 이뤄졌다. 반면에 최근 디지털 기술 혁신은 전문직과 같이 직능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인공지능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중간직 종사자로부터 보조받던 일들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저숙련자들과 질 낮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질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되게 지적되고 있다.

법률직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물론이고 의사, 회계사, 투자분석가, 교수 등 전문직에 대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의 직무 대체 가능성에 관해서도 비판적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이 산업적으로 적용되면서 전문직의 일부 직무 영역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박가열 외, 2016), 감성, 지식 노동이 주를 이루는 전문직, 연구직, 관리직 등에도 인공지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나준호, 2016).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전문직의 업무 변화를 분석하고 적정한 업무 범위 재설계를 통해 업무 효율을 개선하며 준전문가의 기술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혁신 기술 도입에 따라 업무 변화가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직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법률 관련 산업, 협회, 단체나 법무법인의 관련자를 섭외하여 전형적인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직무수행 내용과 방식의 변화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을 선정한 후 국내·외 해당 전문직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법률 전문직의 시장 현황 및 직무 변화와 관련된 국외 사례를 조사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 변화가 법률시장 및 해당 직역 내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파악한다.

넷째, 법률 전문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미래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미래 직업세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미래 법률직 변화에 따른 해당 직업의 요구 역량을 분석한다.

다섯째, 법률 전문직 역할 정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조 및 가치관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생태 환경적 변화, 정치 및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한 법률 전문직 직업에 대한 세분화, 전문화, 직무 변화를 중심으로 미래 직업세계를 전망하고 고용 노동 및 인재정책 관점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앞서 기술한 연구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성 및 정량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문헌 고찰, 사례 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FGI, 미래 워크숍 등을 토대로 도출된 미래 법률 전문직의 미래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역량에 대한 요구 분석과 정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먼저, 국내외 학술 논문, 연구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선행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 혁신이 법률 전문직의 직무 내용 및 수행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면접조사, 주제 초점 집단 면접조사(FGI)를 실시한다. 법률 관련 산업, 일자리, 교육훈련 분야의 협회 및 학술 전문가, 인재개발 관련 정부, 연구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 일회성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지성과 사회적 책임을 발휘하기 위해 연구 전체 진행 과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셋째, 법률 전문직의 미래 참여적 워크숍을 개최하여 미래 법률직의 변화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성하기 위해 현직 법률전문가와 해당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로 구성·운영한다.

넷째, 전문가 대상 심층 면접조사 및 현직자 대상 법률직의 미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법률직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변화상에 대한 타당성을 교차 검증하고자 한다.

제4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전문직의 미래 변화상과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제시함으로써 청년층 및 현직 재직자의 주도적인 직업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훈련 및 고용 서비스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법률 관련 학교 및 교육기관과 산업 현장의 괴리를 메우고 실사구시 관점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연구,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성과물은 보고서 책자 안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고용안전망인 워크넷 직업진로, 한국잡월드 미래직업랩(LAB), 직업진로 상담교사 협의체 등에 접근성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수요자 친화형으로 탈바꿈하여 확산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어진 현실적 제약 속에서 법률 전문직 중 변호사, 법률사무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계를 지니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판사와 검사직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

선행 문헌 고찰

제1절 전문직의 의미

전문직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의미하는데, 사회학 사전¹⁾에 따르면,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관련이 깊은 제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체계적 지식을 응용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profession)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일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해 외적 간섭 및 통제를 받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산업 사회의 노동력 구성에 있어 특수한 위치를 갖는 직업 범주로 여겨진다(심운중, 유흥준, 박승희, 1992). 이처럼 사회로부터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직은 이에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제표준분류체계(ISCO-08)에서의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 개발 및 개

1) 고용부(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선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각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사업, 법률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술적인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을 말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09)²⁾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문직은 “기존의 지식을 확장시키며, 과학적 혹은 예술적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고, 이를 체계적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일부를 수행”하므로, 제4 수준의 직능(skill level 4)을 요구한다고 한다(장주희 외, 2020)³⁾.

전문가들이 지닌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평생고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기업과 조직 수준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지식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이며,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전문가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오현석, 성은모, 2010)⁴⁾.

제2절 변호사 제도의 도입

서구식의 근대적 변호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05년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⁵⁾ 그러나 이 시기의 변호사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법제와 서구식 법제가 혼재된 상태였고, 변호사 제도 도입 후 1906년~1908년까지 대략 20여 명의 변호사가 등록했지만 그다지 활발한 활동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사람들이 법에 호소하는 일도 많지 않았다.⁶⁾ 이후 일본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변호사 시험이

2)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9 한국직업사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3) 장주희 외(2020). 인공지능 시대의 전문직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오현석, 성은모(2010). 전문직종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사회의 특성 및 동향 분석, 직업교육연구, Vol.29, No.2, 205-223.

5) 물론 1905년 ‘변호사법’ 제정 이전에도 1895년 4월 ‘민형소송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代人제도가 창설된 바 있다. 이 代인은 소송인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자이다 이 代人제도는 변호사 제도의 전신이다. 1897년 9월 법부 훈령으로 ‘대서소 세칙’이 시행되어 소송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였다. 변호사 제도는 한때 일본에서처럼 代言人으로도 불리다가 변호사법이 제정되기 직전부터는 ‘변호사’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김효전(1997.12), 「근대 한국의 변호사들」, 『동아법학』 23, 132-133쪽).

6) 손경찬(2016), 「한국 변호사제도의 기원과 의의」, 『법학논고』 53, 319쪽.

1922년부터 시행되어 연 10여 명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요인들이 결합되어 1920년대부터 조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는 급증하기 시작한다.⁷⁾ 그 결과 1910년대 51명이던 변호사 숫자는 1920년대에 105명, 1930년대에는 209명에 이르게 된다.⁸⁾

변호사는 분명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직업이다. 전근대 국가에 존재했던 규문주의적 소송 제도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피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강제적 수단은 물론이고 신체적 고문까지 활용하며 사안을 조사했다. 또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립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수사소추재판자의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기도 했다.⁹⁾ 이렇게 압도적 권력을 가진 법원에 맞서 법적 지식이 전문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던 것이 전근대의 사법제도였다.

근대적 법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이다. 피고인 스스로 죄 없음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임무를 맡은 변호사는 자연히 대중들의 선망과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거나 관검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 자격요건 때문에 조선인 변호사는 귀하게 대접받을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 조선에서 변호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¹⁰⁾

1920~30년대 당시 조선에서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조선인 변호사는 주로 사상 문제와 관계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맡았는데,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이광수 소설 『흙』의 허송처럼 부자들의 유산 상속이나 이혼 소송 등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변호사의 수입은 높은 수준이었는데 가령 1934

7) 박천웅(2016),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연결망, 계층화, 협업」, 『한국사학회』 50(1), 136쪽.

8) 대한변호사협회(2009), 『대한변협50년사』, 2002, 46~47쪽;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34쪽.

9) 문준영(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6쪽.

10) 사법관이 된다는 것은 조선인이라도 단숨에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급여와 제한적인 권력이나 잠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사법관의 자격시험인 고문 사법과에 합격만 하여도 본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었고 신문기자의 인터뷰 신청이 쇄도하였으며, 출신 지역 또는 고향에서는 성대한 환영회나 축하회를 개최 해주었다(전병무(2012),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46~247쪽).

년 조선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연 수입은 약 3,000원이었으며, 경성(3,639원)과 평양(3,864원) 등지에서는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신문기자 840원, 의사 1,200원 등 당시 다른 전문직의 평균 연봉을 감안했을 때 변호사의 수입이 확실히 좋을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연봉(초임 기준으로 약 1,200원)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제3절 국내 변호사 시장의 현황

이른바 전문직을 대표하는 ‘사’ 자 직업을 이끌던 변호사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이 깊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로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가 매년 1,500여 명씩 급증하면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만 명을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가 진행된다면 조만간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변호사의 연도별 증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 인원	20,531	22,318	24,015	25,838	27,695
개업	17,424	18,849	20,182	21,573	23,144
비개업	3,107	3,469	3,833	4,265	4,551

자료: 법무부, 2020년 법무연감

한편 국제청에 따르면, 2019년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가 6조 3,437억 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어난 수치라고 하며, 지난 2015년 4조 6,373억 원부터 꾸준히 연간 4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법률신문, 2020.09.07.)¹²⁾.

11) 심지어 1927년 평양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수입을 보면 1인당 평균 수입액이 무려 4,800원에 이른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전병무, 앞의 책, 195, 247쪽 참조).

12) 법률신문(2020.09.07.). 국내 법률시장 규모 6조 돌파...9년 만에 2배로

〈표 2-2〉 우리나라 법률시장 매출 규모

(단위: 억 원, 이하 절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과세표준 신고액	46,373	50,622	5,4157	59,334	63,437

자료: 국세청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각 년도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87.2%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014년 67.6%, 2016년 55.2%로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지난 2012년 1,665명이었던 응시자가 2018년은 3,240명으로 6년 만에 배로 늘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국내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75% 선으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누적되고 있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증가할수록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로부터 응시자 3,316명 중 1,768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53.3%로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홈페이지 2020.09.28. 열람).

제4절 변호사 업무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일반적으로 법률 서비스는 전문성, 복잡성, 대면성 등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변호사들 역시 신기술의 등장과 해당 기술의 사용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공지능 사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변호사들은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매력과 극단적 회의 사이에서 조심스레 접근¹³⁾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를 사용할 만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변호사 업무의 인공지능 적용에 관한 유인 및 효과

변호사가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유인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사람에 의한 업무처리에 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¹⁴⁾이 생긴다. 인공지능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찾아줌으로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변호사의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¹⁵⁾ 또한 지속적인 법제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법률과 판례의 변화와 동향 등을 반영하며, 쉬지 않고 지식을 축적함¹⁶⁾으로써 최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

13) James A. Sherer, Ed Walters, PRACTICAL MAGIC: LAW'S HANDS-ON AI REVOLUTION, 44 No. 1 Law Prac. 32, 2019. 34쪽.

14) Michael Mills, Using AI in law practice: It's practical now, 42 No. 4 Law Prac. 48, 2016, 48쪽.

15) Andrew Arruda, An ethical obligatio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n examination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and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40 Am. J. Trial Advoc. 443, 2017, 453쪽.

16) Andrew Arruda, An ethical obligatio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n examination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and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40 Am. J. Trial Advoc. 443, 2017, 453쪽.

사는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사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결과¹⁷⁾로 이어질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변호사가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정보가 점차로 방대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효율성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고,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그 사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면,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역시 비교적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즉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이 결과적으로는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¹⁸⁾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¹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유인이나 효과는 인공지능이 적정하게 작동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2. 변호사 업무의 인공지능 적용에 관한 인식의 변화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해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방향 역시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먼저 직접적인 활용 주체인 변호사의 경우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위기감과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변호사가 적지 않다는

17) Scott B. Garn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not-so-artificial legal ethics implications, 59-OCT Orange County Law. 64, 2017, 68쪽.

18) Michael Mills, Using AI in law practice: It's practical now, 42 No. 4 Law Prac. 48, 2016, 48쪽.

19) 통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고비용, 법률시장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잠재적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의 접근 범위 밖에 있다; 양중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영남법학 제44호, 2017, 13쪽.

주장²⁰⁾ 법률정보 조사에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시기가 온다면 신입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업계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주장²¹⁾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²²⁾는 견해, 나아가 인공지능과 변호사의 협업 모델이 줄 수 있는 혁신의 수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²³⁾는 견해, 사람인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²⁴⁾는 견해 등 긍정적인 입장 역시 적지 않다. 이에 비해 로펌의 경우 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에 다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로펌의 변화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기술 활용이 인력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5.7%에 이르고 있고, 로펌 리더들은 고용변호사(특히 법률사무원 및 신입 변호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을 점차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⁵⁾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뢰인 역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가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제공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면 그 사용의 선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법률 서비스 공급자인 로펌과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의뢰인이 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 확보와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²⁶⁾은 그 자체로 향후 변화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 Sharon D. Nelson, John W. Simek, Running with the machines: AI in the practice of law, 43 No.4 Law Prac. 24(2017). 24쪽.

21) 김기영, “인공지능 활용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쟁점”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1호, 2017, 108쪽.

22) Sergio David Becerra,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legal field: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going, 11 J. Bus. Entrepreneurship & L. 27, 2018, 52쪽.

23) 양종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영남법학 제44호, 2017.

24) Michael Mills, Using AI in law practice: It’s practical now, 42 No. 4 Law Prac. 48, 2016, 48쪽.

25) 2018 Law Firms in Transition An Altman Weil Flash Survey, Altman Weil, Inc. http://www.altmanweil.com/dir_docs/resource/45F5B3DD-5889-4BA3-9D05-C8F86CDB8223_document.pdf

26) 이외에도 기업 사내 변호사의 경우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인공지능 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는 Olga Mack, Katia Bloom, Carly O’Halloran Alameda, Sarah delos Santos, Artificial intelligence meets the mainstream: AI’s potential impact on in-house practice, 35 No. 2 ACC Docket 26, 2017, 28쪽.

3. 사회 변화의 방향과 규범의 한계

주지하듯이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며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가 지난 한 세대에 걸쳐 사회 전반에 보급되었듯이 향후 인공지능 기술 역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그 자체로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쟁 해결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이메일의 등장과 보편화,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보편화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의 등장과 보편화는 법률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²⁷⁾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의 사용이 보편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모든 변화가 법률 전문가로부터 환영받기는 어렵겠지만,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법률 전문가들 역시 결국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배워야 할 것이다.²⁸⁾ 아직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기술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변호사들 역시 여러 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그 같은 신중함이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²⁹⁾ 나아가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업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³⁰⁾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축적은 결국 변호사가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

27) 약 20여 년간 미국 전자증거개시 절차상 나타난 변화는 신기술의 등장과 보편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이의 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규범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28) Sharon D. Nelson, John W. Simek, Running with the machines: AI in the practice of law, 43 No.4 Law Prac. 24(2017). 27쪽

29) James A. Sherer, Ed Walters, PRACTICAL MAGIC: LAW'S HANDS-ON AI REVOLUTION, 44 No. 1 Law Prac. 32, 2019. 34쪽

30)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심오한 기술적 배경지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이 필요하다; Olga Mack, Katia Bloom, Carly O'Halloran Alameda, Sarah delos Santos, Artificial intelligence meets the mainstream: AI's potential impact on in-house practice, 35 No. 2 ACC Docket 26, 2017, 29쪽.

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신기술의 등장은 언제나 그러하듯 다양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확대나 촉진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물론 관련 규제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걸림돌에 불과한 경우 역시 적지 않다. 이에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 역시 재고해 보아야 할 몇 가지 규범이 있다. 우선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경우 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규정 역시 선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의미하고,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관련이 깊은 제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체계적 지식을 응용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profession)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구식의 근대적 변호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05년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근대적 법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피고인 스스로 죄 없음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임무를 맡은 변호사는 자연히 대중들의 선망과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전문직을 대표하는 ‘사’자 직업을 이끌던 변호사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이 깊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로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가 매년 1,500여 명씩 급증하면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조만간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청에 따르면, 2019년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가 6조 3,437억 원으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꾸준히 연간 4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87.2%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014년 67.6%, 2016년 55.2%로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는데 최근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로부터 합격률은 53.3%로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법률 서비스는 전문성, 복잡성, 대면성 등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변호사들 역시 신기술의 등장과 해당 기술의 사용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가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유인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사람에 의한 업무처리에 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인공지능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찾아줌으로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변호사의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법제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법률과 판례의 변화와 동향 등을 반영하며, 쉬지 않고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최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직접적인 활용 주체인 변호사의 경우 자신들의 직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위기감과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변호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견해, 나아가 인공지능과 변호사의 협업 모델이 줄 수 있는 혁신의 수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 긍정적인 입장 역시 적지 않다.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며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그 자체로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쟁 해결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법률 전문가들 역시 결국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배워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글로벌 관점에서 법률시장의 규모,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기술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 등과 같은 개괄적인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후 해외 법률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 서비스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법률시장의 현황과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5개 주요국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변호사 양성체계와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시장에서의 직무 특성과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시장 내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향후 시장 요구가 나타날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리걸테크 확산에 따라 변호사의 역량 변화 필요성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변호사 양성체계의 변화와 지속적인 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해외 주요국의 법률시장 동향

1. 해외 법률시장과 서비스 개요³¹⁾

해외 주요국의 법률시장 동향 부분은, 첫째, 전체적인 해외 법률시장의 규모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둘째, 대형 로펌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률시장 규모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한국의 법률시장과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해외 법률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법률시장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대형 로펌사의 시장 서비스를 이해하면, 최근 시장 동향과 변화하는 법률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법률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법률시장의 변화와 변호사의 잠재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해외 법률시장에 관한 규모와 동향은 다음과 같다. 규모의 경우 2018년 기준 794.5억 불(한화 1,003조 원)에서 886억 불(한화 1,10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하는 주된 이유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기업 내부에 고용된 변호사들을 통한 법률 대응이 쉽지 않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 법률시장 확대의 중요한 이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의 확대인데, 향후 인간 변호사를 대체하여 자연어 처리 수준으로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자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하거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1) 본 내용들은 Legal Services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2019), statista.com 통계자료, The American Lawyer 2019 The Global 100(2019), 법률신문 ‘세계 법률시장 고속 성장세…변호사 1만 명 로펌 눈앞’ (2019.10.14.), 서울경제신문 ‘법률시장 개방 7년... 기 못퍼는 외국계로펌’ (2019.11.4.), 이코노미조선 ‘로펌의 세계’ 시리즈 (2020.6.22.)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그림 3-1] 해외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규모

(단위: 억 불)



출처: statista.com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

해외 법률시장의 서비스 유형은 소송, 기업법률, 노사관계, 부동산, 파산, 세금 등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로펌) 등은 위와 같은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글로벌 회사들의 경우, 해외 노사관계 관련 소송이나 특허 및 저작권 등의 소송을 많이 의뢰하고 있다. 또한 개인 소송 외에도 기업의 금융 소송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세금 이슈로 인해 법률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자 대형 로펌들의 경우, 세금과 비즈니스 관련 소송과 자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해외 법률시장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주체는 로펌(legal business), 개인 법률사무소(private practicing attorneys), 기타(others), 정부 공공법률 서비스 기관들(government department)로 구분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로펌의 시장 점유율은 45%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 자체는 정체상태에 있다. 그 결과 로펌들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 외에도 기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로펌 간 인수와 합병을 하기도 한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는 고객에 대한 법률교육, 경영진단과 컨설팅,

공공분야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활동 지원 등이 있다.

2018년 기준, 법률 서비스 시장의 40% 정도를 대형 로펌들이 시장 매출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형 소송, 법률 위반, 비즈니스 거래 등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대형 로펌들의 주요 고객과 이들의 요구는 대기업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요한 수입사항이 될 것이다. 반면 중형과 소형 로펌들의 경우, 해외 각 국가에 공격적으로 사무소를 증설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사업 분야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지켜야 할 법률들에 대한 자문 혹은 특화된 서비스들이다. 이를 통해 대형 로펌들이 집중하지 않는 분야 혹은 시장 확대에 따라 대형 로펌들이 차지하는 소송들의 일부를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대륙별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법률 부서를 통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외부 로펌이나 서비스 제공 주체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나 합병과 같은 기업 관련 서비스가 주로 북미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는 시장 확장 면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특히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정부 규제나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소송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중국과 인도가 있는데, 인도의 경우 공장 신·증설과 같은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글로벌 로펌사 외에도 토종 로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의 법률 서비스 시장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해외 로펌들의 시장 점유와 동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100대 로펌들의 총 매출액은 2018년 기준 1,142억 불(한화 136조 원)이었는데, 이는 2017년 매출액 1,057억 불 이후 연속하여 1,000억 불 매출을 달성하였다. 연 매출액 10억 불(한화 1조 2천억 원) 이상인 해외 로펌은 2018년 46개사였다. 100위권 로펌의 총매출액은 4억 8천만 불(한화 5,600억 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매출액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미국계 로펌이었다.

[그림 3-2] 해외 로펌의 매출액 순위(법률신문 2018.10.22. 자료 인용)

순 위	로 펴 명	매출액(달러)
1위	Kirkland & Ellis	37억 5700만
2위	Latham & Watkins	33억 8606만
3위	Baker & Mckenzie	29억
4위	DLA Piper	28억 3598만
5위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26억 7270만
6위	Dentons	24억 2000만
7위	Clifford Chance	22억 6235만
8위	Sidley Austin	22억 1976만
9위	Linklaters	21억 7643만
10위	Allen & Overy	21억 7416만
...		
53위	Kim & Chang	9억 100만

총매출액 외에 로펌 경쟁력은 지분 파트너 1인당 순이익(Profits per Equity Partner: PEP)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파트너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위에서 18위까지 모두 미국의 로펌사들이 순위를 점하고 있었다. Wactell 로펌의 경우, PEP가 653만 불(한화 77억 원)으로 PEP에서는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호사 수의 경우, 2018년 기준 중국계 다국적 로펌인 덴톤스(Dentons) 소속 변호사가 1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의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1천 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것에 비해 10배 가까운 변호사 수를 보유한 것이다.

[그림 3-3] 해외 로펌의 지분 파트너 매출액 순위(법률신문 2018.10.22. 자료 인용)

순 위	로 펴 명	PEP(달러)
1위	Wachtell, Lipton, Rosen & Katz	653만
2위	Kirkland & Ellis	503만
3위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502만
4위	Cravath, Swaine & Moore	462만
5위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453만
6위	Sullivan & Cromwell	450만
7위	Davis Polk & Wardwell	440만
8위	Simpson Thacher & Bartlett	408만
9위	Weil, Gotshal & Manges	383만
10위	Milbank	382만
...		
59위	Kim & Chang	130만

셋째,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는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시장 규모로는 미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1/100 수준이다. 국내 변호사 수는 2016년 2만 4,476명, 2018년 2만 8,156명, 2020년 6월 현재 3만 890명이었다. 전국 법무법인 수는 2016년 969개, 2017년 1,045개, 2018년 1,079개, 2019년 1,160개, 2020년 1,235개였다. 2012년 법률시장 개방 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의 경우, 미국계 24개, 영국계 4개, 호주계 1개, 중국계 1개 등 총 30개의 외국계 로펌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6대 로펌의 매출액은 김앤장(2019년 기준, 매출 1조 960억 원, 변호사 수 865명), 태평양(3,374억 원, 443명), 광장(3,320억 원, 501명), 율촌(2,286억 원, 333명), 세종(2,080억 원, 398명), 화우(17,00억 원, 285명)이었다. 매출액 대비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로펌은 김앤장으로서, 매출 1조 960억 원에 전문 인력 1,476명을 나누었을 경우, 7억 4,254만 원이었다. 다음으로 태평양, 율촌 법무법인 순이었다. 다만 이 생산성은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변호사를 포함한 전체 전문 인력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PEP의 수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그림 3-4] 2019년 기준, 한국 6대 로펌의 전문 인력 보유현황
(이코노미조선 2020.6.22. 인용)

	국내 변호사	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고위 및 전문위원	합계
김앤장	885	185	98	20	-	208	-	100	1476
광장	501	107	23	8	-	29	1	61	730
태평양	443	73	27		-	55	3	41	642
울촌	333	57	54					34	478
세종	398	51	5	5	4	21	1	33	518
화우	285	39	8	10	7	29	3	38	419

[그림 3-5] 2019년 기준, 한국 6대 로펌 인력의 1인당 생산성
(이코노미조선 2020.6.22. 인용)

	매출	전문인력	1인당 생산성
1 김앤장	1조960억원	1476명	7억4254만원
2 태평양	3374억	642	5억2554만
3 울촌	2286억	478	4억7824만
4 광장	3320억	730	4억5479만
5 화우	1700억	419	4억572만
6 세종	2080억	518	4억154만

2. 미국의 법률시장과 서비스 현황³²⁾

미국의 법률시장 규모는 추계하는 리서치 회사마다 다소 상이한데, 2019년 기준 대략 3,000억 달러(한화 400조 원)에서 4,400억 달러(5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가 상이한 것은, 로펌의 매출액과 변호사 수 등을 중심으로 추계하는 방식, 리걸테크를 포함하여 산업적인 관점에서 법률시장을 추계하는 방식, 소송 건수나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추계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로펌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들이 많은데, 이들의 실적을 미국 법률시장 규모에 추계할지 혹은 해외 자산으로 분리할지에 따라 매출 규모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시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큰 법률 서비스 시장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조사에서 일치하고 있다.

미국 로펌 순위는 1위 Kirkland & Ellis(37억 5,7천만 불), Latham & Watkins(33억 8천만 불), Baker & McKenzie(29억 불), DLA Piper, Skadden, Arps, Slate(28억 4천만 불), Meagher & Flom(26억 7천만 불)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로펌들도 지분 파트너(PEP) 순위에서는 순위가 달라지는데, 1위는 M&A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Wactell로서 80명의 지분 파트너가 있는데, 총매출액이 8억 5,639만 달러(1조 195억 원)인데 PEP는 653만 달러(77억 원)이었다. 로펌들 중에 유일하게 PEP가 600백만 불 이상인 로펌이었다.

미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소송, 기업회계,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기소사건의 비중이 전체 사건수입의 64%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9년에 비해 소송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법무 및 노사관계 관련 소송은 각각 1.4%와 1.6% 증가하였다. 사건 수입료도 높아졌는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법률 소송은 3.9%, 기업법무 3.8%, 노사관계 3.3% 순으로 수입료가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모든 소송에서 수입료는 3.8% 증가하였다. 그런데 100대 로펌의 경우, 수입료는 평균 4% 이상 상승하였으나, 200대 로펌은 전체 37%만이 4% 이상 수입료가 높아졌고, 중소형 로펌의 경우, 전체 39%가 4% 이상 수입

32) 본 내용은 Thomson Reuters Legal Executive Institute와 the Georgetown Law Center on Ethics and the Legal Profession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0 Report on the State of the Legal Market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료가 상승하였다.

미국 법률시장의 서비스 중 특기할 만한 점은, 고객들은 누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객들은 단순히 상담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조달을 통해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채용, 보상, 프로젝트 관리 등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형 로펌들의 경우, 중소형 로펌들과 달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법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 기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걸테크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상도 대형 로펌들이며, 이러한 대형 로펌사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유형이나 내용이 매우 혁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법률시장에서 미국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은 최상위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상위권 로펌의 대다수가 미국 혹은 미국의 투자를 받은 로펌사들로서, 이들의 매출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은 매년 전년도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분 파트너 1인당 순이익의 경우에도 세계 최상위권은 이들 로펌들이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 100대 로펌의 총매출액은 1040억 불(한화 124조 원)이고, 변호사 1인당 평균 매출은 100만 불(한화 12억 원) 수준이며,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익은 40만 불(4억 8천 원), 파트너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익은 196만 불(한화 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영국의 법률시장과 서비스 현황³³⁾











영국의 법률시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 35억 불(한화 4,200억 원)로서 전년 대비 6.3% 성장하였다. 이러한 시장 규모는 매년 5% 이상 확대되고 있다. 로펌 수는 12,000개인데, 이중 절반은 기업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통적인 로펌 모델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100대 로펌들의 매출액이 전체 법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100대 로펌들의 세일즈

33) 본 내용은 ResearchAndMarkets.com에서 발간한 UK Legal Services Market Trends Report 2019, The Lawyer UK 200: The Top Firms and the UK 200: The Independents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임.

능력에 기반한 기업 매출 확대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영국 외의 해외 지역에서도 매출액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로펌들은 Linklaters, Slaughter and May, Clifford Chance, Allen & Overy, Freshfields,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등인데, 이들 5개사를 통칭하여 매직 서클펌(magic circle firm)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5대 대형 로펌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DLA Piper사가 1,946억 파운드, Clifford Chance가 1,693억 파운드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영국 로펌의 매출액별 순위(2019년도 기준, www.acritas.com 인용)

Rank 2019	Firm	Revenue 2018/19 (£m)
1	 DLA Piper	1,946.8
2	 Clifford Chance	1,693.0
3	 Linklaters	1,628.7
4	 Allen & Overy	1,627.0
5	 Hogan Lovells	1,596.0
6	 Norton Rose Fulbright	1,501.0
7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1,472.0
8	 CMS	1,203.7
9	 Herbert Smith Freehills	965.7
10	 Eversheds Sutherland	895.6

영국 법률시장의 수요는 대체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무소송이나 상업적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전체 소송의 47%가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매출액의 11%는 개인상해, 사고, 의료분쟁 등이었는데, 이 분야는 수수료의 증가와 소송 건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법률시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향후 영국의 법률시장과 관련해서는 가족법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었고, 2020년까지 법률시장에서 수입료는 5~6%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국의 법률시장은 향후 다양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이 수입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수입료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송사를 다루는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소액사건들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법률행위와 소송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형태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수입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와 기준이 낮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로펌들은 공공 서비스 관련된 사건들을 수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단순 법률 서비스 제공 외에도 비즈니스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구조를 개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소송, 사건관리, 보험소송, 의료분쟁 등에 특성화된 팀이나 전문 로펌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 다양한 전문직의 사람들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독일의 법률시장과 서비스 현황³⁴⁾

독일의 법률시장은 대략 25억 불(한화 30조 원) 규모의 세계 3위 수준의 시장으로서, 전체 법률시장의 4%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독일의 변호사 수는 165,855명이고, GDP 1억 달러당 법조인 수는 4.63명이며,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9.95명이다.³⁵⁾ 독일 법률시장의 대표적인 로펌들로는 Baker McKenzie, CMS, CSW Rechtsanwälte Steuerberater Wirtschaftsprüfer, DLA Piper, Eversheds Sutherland, Heuking Kühn Lüer Wojtek, Jones Day, Luther Rechtsanwaltsgesellschaft mbH, McDermott Will & Emery Rechtsanwälte

34) 본 내용은 legal500.com과 marketresearch.com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음.

35) 이 내용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박종현 등(2020).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들을 인용한 것임.

Steuerberater LLP, Noerr, SKW Schwarz Rechtsanwälte 등이며, 이들은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법률시장은 은행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이 출연하였다. 주요 로펌들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 회사 등과 협력을 통해 금융 분야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생 스타트업들의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 분야에서 규제 완화, 펀드 개발, 대출 확대, 펀드 조성 등의 자문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계기로 금융자본의 유치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도 강화하는 등 전통적인 서비스 영역 외에도 다양한 분야 서비스 개발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프랑스의 법률시장과 서비스 현황

프랑스의 법률시장³⁶⁾은 전 세계 4위의 법률시장으로서, 비중은 3.5%를 차지하는 20억 불(한화 24조 원) 수준이다. 프랑스는 유사 직역들을 통·폐합하면서 2018년 기준, 66,958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구 1만 명당 변호사의 수는 2018년 기준 10.30명이고, GDP 1억 불당 변호사 수는 2.61명이다. 2011년 대비 2018년까지 변호사의 증가율은 24.6%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변호사의 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고, 법률 서비스도 규제 중심의 법률과 소송들이 많다.

2019년 기준, 프랑스 법률시장에서는 로펌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³⁷⁾ 브렉시트로 인해 부동산 중개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업무 수요가 높다. 철도, 항만,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조치, 에너지 프로젝트, 도시재생 분야의 법률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24년 파리 올림픽 유치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과 관련된 법률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역적, 국제적으로는 사회 혼란, 경기 침체, 환경문제 등으로 전통적인

36) 이 내용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박종현 등(2020).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들을 인용한 것임.

37) 구체적인 sodydds <https://www.legal500.com/c/france/legal-market-overview>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것.

법률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사회 개혁과 규제 해소로 인해 많은 로펌들은 전통적으로 주력해 온 고용, 노사관계, IT, 기업 법률 상담 분야에서 이중 분야의 법률 송무, 소송, 기업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기업이 인권, 보건, 환경 침해를 수립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소송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법률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6. 일본의 법률시장과 서비스 현황

일본의 법률시장 규모³⁸⁾는 2018년 기준, 3.4억 불(한화 4,500억 원)이고, 전 세계 법률시장의 약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0.7% 성장률을 기록했고, 대형 로펌들의 매출액은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일본의 변호사 수는 40,066명이고, GDP 1억 불당 변호사 수는 0.89명이며,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3.15명이다³⁹⁾. 연평균 변호사 수 증가율은 4% 수준이다. 일본의 법률시장은 국내 시장의 성장보다 해외 시장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로펌들 간의 인수와 합병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법률시장은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 토종 로펌 외에도 일본에 진출한 글로벌 로펌사들은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일본의 로펌들은 인수와 합병 관련 자문을 많이 담당해왔다. 아래 표에 제시된 일본 로펌 순위는 변호사 보유 수가 많은 로펌들이고, 주로 도교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8) 이 내용은 <https://www.marketresearch.com>와 www.marketline.com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임.

39) 이 내용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박종현 등(2020).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들을 인용한 것임.

[그림 3-7] 일본 로펌 순위와 변호사 수

Rank	Firm	Head office	Lawyers
1	Nishimura & Asahi	Tokyo	517
2	Nagashima Ohno & Tsunematsu	Tokyo	358
3	Mori Hamada & Matsumoto	Tokyo	349
4	TMI Associates	Tokyo	319
5	Anderson Mōri & Tomotsune	Tokyo	318
6	Baker & McKenzie	Chicago	143
7	City-Yuwa Partners	Tokyo	130
8	Oh-Ebashi LPC & Partners	Osaka	122
9	Adire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Tokyo	110
10	Atsumi & Sakai	Tokyo	103

제2절 해외 주요국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1. 해외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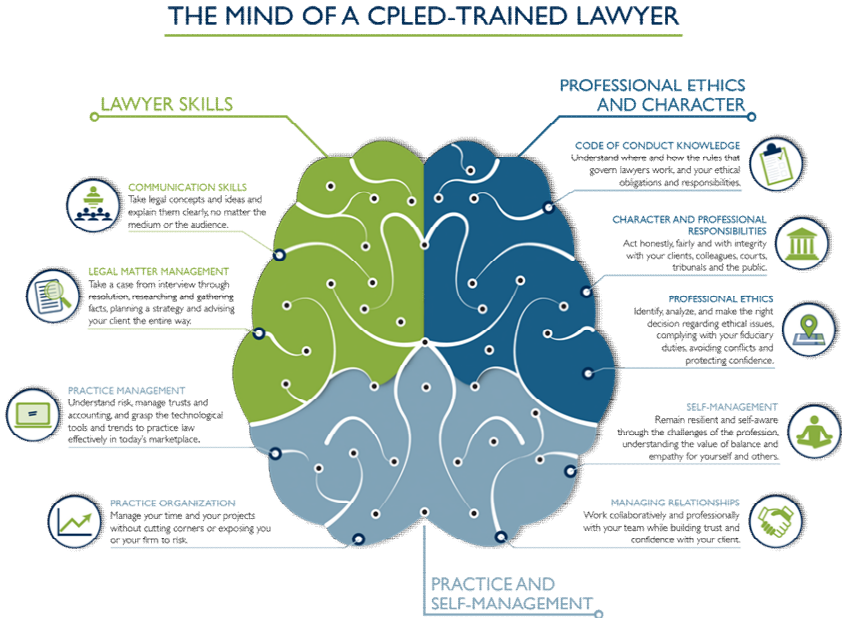
직업사전에 등재된 변호사의 정의는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이다.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는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기본적으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관련 행위를 하는 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를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직업사전에 따르면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변호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역량에 관한 해외 동향, 한국 변호사의 양성과정, 한국 변호사의 주요 직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직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하위 절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변호사의 양성체계, 주요 직무, 필요 역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변호사의 역량에 관한 해외 동향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전문법률교육센터(Canadian Centre for Professional Legal Education)에서 제안한 역량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다. 변호사의 역량은 크게 변호사의 전문 스킬(lawyer skills), 윤리와 소양(professional ethics and character), 실무능력과 자기관리(practice and self-manag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 스킬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법률사건 처리 능력으로 구성되고, 윤리와 소양은 직업소양, 책임감, 윤리성으로

구성되며, 실무능력과 자기관리는 자기관리 및 관계관리 능력으로 구성된다.

[그림 3-8] 변호사의 전문 역량(캐나다 전문법률교육센터⁴⁰⁾)



다음으로, althena legal 로펌에서 제시한 변호사의 역량은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한 역량 프레임워크로서, 변호사, 변호사와 고객, 변호사와 팀, 변호사와 고객사의 4가지 관계에 따라 모형을 제시하였다. 변호사 자신은 독립성, 자기인식 능력, 성실성이 있어야 하고, 고객과 일을 할 때는 협상력, 고객관리 능력, 비즈니스 개발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팀과 일을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협업력이 있어야 하며, 고객사와 일을 할 때는 재무 및 위기관리 능력, 업무 분담 능력, 전략적 인식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0)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cpled.ca/about-cpled/competency-framework>을 검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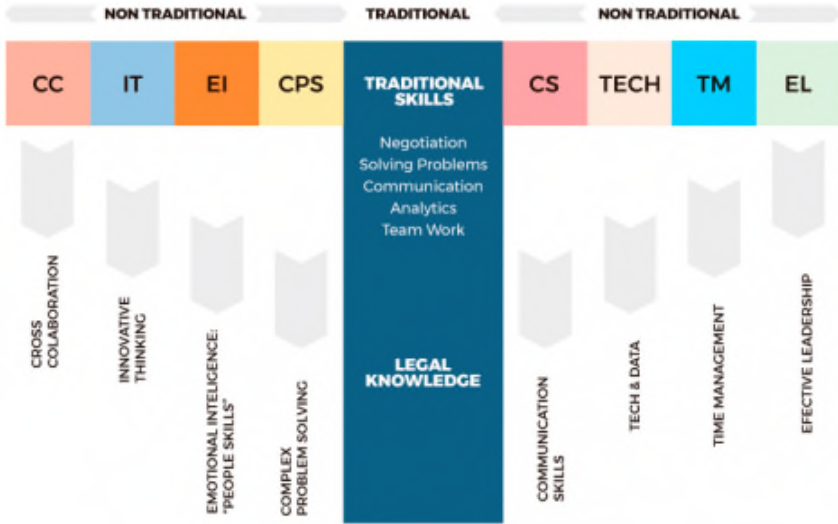
[그림 3-9] lawyer360 역량 모델



변호사의 미래 역량과 관련해서는 스페인의 ie 로스쿨⁴¹⁾에서 제시한 역량 모델이 있는데, 해당 모델은 T-shaped model로 명명되어 있다.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협상력, 문제해결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능력, 팀워크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 역량으로는 교차협력, 혁신적 사고, 강성지능, 고차원적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시간관리, 효과적인 리더십 등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역량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인 간 관계라든지, 높은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41) <https://www.ie.edu/law-school/news-events/news/t-shaped-lawyers-taking-legal-industry-을> 참조할 것.

[그림 3-10] 변호사의 미래 역량(ie law school)



둘째, 한국 변호사의 경우, 직업정보 현황⁴²⁾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과 및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인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변호사의 임금은 상위 25%가 9,928만 원, 중위값이 8,189만 원, 하위 25%가 6,130만 원이었다. 직업만족도는 82.3%였고, 향후 일자리 전망은 감소(37%), 현상 유지(33%), 증가(30%) 순으로 예측하였다.

한국 변호사의 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3년 과정을 이수하고

42) 본 내용은 워크넷 직업정보에서 ‘변호사’ 직업을 검색하여 제시된 결과들을 요약 정리한 것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⁴³⁾의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하고 있고,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을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응시하게 되어 있다.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가 합격 최저 점수이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 최저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할 수 있다.

셋째, 한국 변호사의 주요 직무와 역량은 다음과 같다. 직업사전에 명시된 변호사의 주요 직무는 사건을 수입하고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형사소송 시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변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상담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 명시된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한다.
-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민사소송사건·조정사건·비송사건·행정소송사건 등)를 판단하고 수입한다.
-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소·심판 등의 제기 and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 형사소송 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 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43)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http://www.moj.go.kr/moj/441/subview.do> 홈페이지를 참고.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한다.
- 이외에도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도 한다.

변호사란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역량으로는 듣고 이해하기, 선택적 집중력, 읽고 이해하기, 범주화, 판단과 의사결정 역량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타난 변호사의 역량들에는 법률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공성, 윤리성, 서비스 마인드, 소통, 협력, 전략적 사고방식, 전달능력, 상황 파악 능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3-1> 변호사의 역량(워크넷 직업사전)

역량	내용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선택적 집중력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자극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에 집중한다.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범주화	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분류한다.
판단과 의사결정	이득과 손실을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다.
추리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학습전략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문제 해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한다.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2. 미국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미국의 변호사 양성과 시험은 주마다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 인증한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의 J.D.(Juris Doctor) 과정을 이수하고, 주마다 서로 다른 변호사 시험(Bar Exam)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LSAT 시험, 학부 성적, 추천서, 지원서, 경력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의 4년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에서 외국인 대상 LLM(Master of Law) 과정을 수료한 후, LLM 학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다. LLM 과정은 1-2년이고, 국내 대학들 중에 LLM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어, 해외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가 없다. LLM 과정은 J.D. 과정과 달라 LSAT 점수는 필요 없고, 한국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위, 토플 점수, 학부 성적, 추천서, 지원서 등을 준비하여 응시하면 된다. 또한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세무사, 변호사, 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에 의해 일정기간 실무 경력이 인정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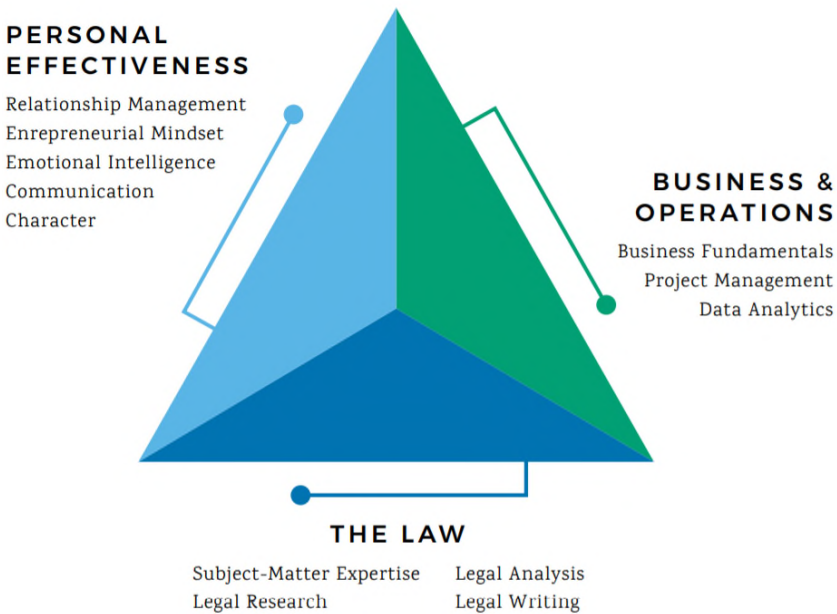
미국 변호사의 주요 법률사무⁴⁴⁾는 변호사 외의 사람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비(非)면허 법률사무 취급”(Unauthorized Practice of Law)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외한 독점적 법률사무로 1)사법절차 내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하는 행위(법정변론), 2)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법률문서)의 작성, 3)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관한 조언(법률자문)을 주된 법률사무로 간주하고 있다. 2)와 3)의 경우, 유사 직역(예, 세무, 회계 등)들 간의 직무 차별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의 주요 역량으로는 델타 모델 3.0으로 명명된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Legal Executive Institute에서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로스쿨에 권고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현

44) 이 부분은 설민수(2017).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둘러싼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경쟁과 독점 법률사무의 범위 결정요인. 법제논단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업 변호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든 역량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인효과성 측면에서 관계관리, 기업가적 정신, 감성지능, 커뮤니케이션, 성품 등의 역량이 필요하고, 비즈니스 실행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기초,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하며, 법률 지식 측면에서는 법률 관련 전문성, 법률 연구능력, 법률분석, 법률문서 작성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3-11] 미국 변호사의 역량 모델 3.0(Legal Executive Institute)⁴⁵⁾



45) 관련 내용은 <https://www.legalevolution.org/2019/11/the-delta-model-simple-accurate-versatile-125/>을 참조할 것.

3. 영국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영국의 변호사 양성과 시험⁴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의 변호사는 법률사무 업무에 따라,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라는 두 가지 유형의 변호사가 있다. 법원에서 변론권을 독점하되, 사건의뢰인과 직접 교섭이 없거나 보수청구권이 없는 법정변호사와 업무 영역에 제한 없이 법률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변호사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에 법원 및 법률 서비스에 관한 법률(Courts and Legal Services Act)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변호사 업역을 통합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고등법원에서의 변론은 주로 법정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변호사 양성과정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고교 졸업 후 3년제 법과대학을 수료한 후, 사무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사무변호사협회 가 주관하는 법률실무 교육과정(Legal Practice Course: LPC)과 실무수습 계약 과정(Training contract) 과정을 이수한 후, 사무변호사협회(Law Society)에 등록을 한다. 다음으로 법정변호사의 경우, 사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법정변호사협회의 실무교육(Ba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BPTC)과 실무연수기간(Pupillage) 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이후 법정변호사협회(Bar Council)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된다.

이러한 양성과정 외에도 3-4년제 비법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법학석사 학위과정(Graduate Diploma in Law: GDL)을 이수한 후,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 과정을 그대로 이수하는 방법도 있다. GDL 과정은 전공과 무관하게 이미 4년제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변호사 전환시험(Qualified Lawyers Transfer Scheme: QLTS)을 통해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있다. 이 시험은 영국의 법률 조정기구인 SRA(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에서 주관한다. 이러한 QLTS는 객관식 시험과 실전 시험을 치른 후에 영국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변호사의 주요 법률사무는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 유형에 따라 다소 상

46) 이 내용은 고영미(2016)의 각 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에 관한 2차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이하다. 최근에는 두 변호사의 유형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나, 여전히 일반적인 법률사무는 사무변호사가 수행하고, 법정변호사는 법정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무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상속 관련 사무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법률지식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임하고 지원하게 된다. 최근에는 사무변호사가 하급심 법원과 고등법원과 같은 상급심 법원의 변론도 하고 있다. 법정변호사는 법정변론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민사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영국변호사의 주요 역량으로는 윤리의식(ethics), 전문성(professionalism), 판단력(judgment), 실무적 법률사무(technical legal practice), 타인과 협업하기(working with other people), 자기관리(managing yourself), 자기 일 관리(your own work) 등이 있다. 이외에도 상업적 인식(commercial awareness), 팀워크(teamwork), 정확성(attention to detail),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creative problem solving), 정보 분석과 연구능력(information analysis and research), 조직력(organisation), 회복탄력성과 자기 확신(resilience and self-confidence), 주도력(initiative), 책임감(the ability to work under pressure) 등이 있다.⁴⁷⁾

4. 독일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독일변호사의 양성과 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법과대학에서 7학기 이상 학업을 거친 후, 1차 시험(ersts Staatsprüfung)에 합격하면 2년간의 실무수습(Vorbereitungsdienst)을 거쳐 2차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후 변호사가 된다. 자격인가 및 소속인가를 획득할 경우 개업을 할 수 있는데, 자격인가를 통해 원하는 곳의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하며, 소속인가를 받으면 인가 받은 곳의 고등법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1차 시험의 경우, 각 주마다 시험방식이 상이한데, 대체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치르게 되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문제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47)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rospects.ac.uk/jobs-and-work-experience/job-sectors/law-sector/7-skills-for-a-successful-law-career>을 참조할 것.

사법연수 과정의 경우⁴⁸⁾, 준공무원의 지위를 누리도록 되어 있고, 의무 연수지에서 1년 8개월의 연수(정규 민사법원 6개월, 형사법원 3개월, 행정관청 4개월, 변호사 또는 법원에서 3개월, 변호사 4개월)를 하고, 선택 연수지(법률구조, 경제와 조세, 노동과 사회, 국가와 행정 또는 국제영역)에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사법연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2차 사법시험의 경우, 각 주마다 1차 사업시험과 유사하게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병행하여 치르게 된다. 1차 시험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문제해결력과 법적 지식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2차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판사, 검사, 공증인, 고급 공무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독일 변호사의 주요 법률사무⁴⁹⁾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대리인을 변호하고, 소송사건을 수행한다. 또한 분쟁 당사자 간 합의된 정규 재판소가 없을 경우, 중재위원회 사건의 대리를 맡아 수행하기도 한다. 법정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문서를 작성하여 공판에 대비하고, 증인신문이나 전문가의 소견을 요청할 때 변론을 하게 된다. 법원의 모든 과정을 공판보고 형태로 의뢰인과 협의한다. 이외에도 재판 외의 채권 청구 및 방어, 회사법 관련 서류 검토 및 분석, 채무청산 계약 작성, 소송절차, 항소절차, 강제집행, 청구원 등록, 채권자회의 참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독일 변호사의 주요 역량⁵⁰⁾으로는 법률지식이 있는데, 민법(Bürgerliches Recht), 상법(Handelsrecht), 회사법(Gesellschaftsrecht), 노동법(Arbeitsrecht), 국제사법(Internationales Privatrecht), 민사소송법(Zivilprozessrecht), 형법(Strafrecht), 형사소송법(Strafprozessrecht), 공법(Oeffentliches Recht), 행정소송법(Verwaltungsprozessrecht), 유럽법(Europarecht) 등이 있다. 다음으로 심화된 법률지식으로서, 법사학과 비교법(Rechtsgeschichte und Rechtsvergleichung), 사법기관과 변호사 업무에서의 민사법제도(Zivilrechtliche Rechtspflege in Justiz und Anwaltschaft), 형사법제도(Strafrechtliche Rechtspflege)가 있다.

48) 자세한 내용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pros&logNo=1014977374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을 참조할 것.

49)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htsanwalt-lee.de/ko/unsere-leistungen-245.html>를 참조할 것.

50) 이 내용은 홍선기(2015).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법학논총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또한 경험적-형벌적 분야(Empirisch-poenologis), 상업과 경제(Handel und Wirtschaft), 노동과 사회보험(Arbeit und Soziale Sicherung), 유럽 및 국제법과 경제관계(Europaeische und internationale Rechts- und Wirtschaftsbeziehungen), 환경법과 경제(Umwelt und Wirtschaft), 정보법과 지적재산(Informationsrecht und Geistiges Eigentum), 정보 및 언론법(Informations- und Medienrecht), 지적 재산(Geistiges Eigentum)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핵심 역량으로 분쟁해결방법(Verhandlungsmanagement), 대화방법(Gespraechsfuehrung), 수사법(Rhetorik), 중재방법(Mediation), 분쟁조정법(Streitschlichtung), 심문이론(Vernehmungstheorie), 의사소통능력(Kommunikationsfaehigkeit) 등이 있다. 또한 외국어 능력도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5. 프랑스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프랑스 변호사 양성과 시험⁵¹⁾의 중요한 점은 판사, 검사와 변호사 선발제도가 분리되어 있다. 판사와 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입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4년간 대학교육을 받은 후, 국립 그랑제꼴 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ENM) 입학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한다. 국립 그랑제꼴 법관학교가 아닌 방식으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선발시험(recrutement latéral)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나 행정 부처의 공무원이 일정 경력을 쌓은 후에 판사나 검사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것이다. 국립 그랑제꼴 법관학교에서 31개월간의 연수(일반 연수 25개월, 전문 연수 6개월) 후, 10주의 외부 기관 실무 연수를 통해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변호사 선발제도의 경우, 입학시험을 통해 변호사연수원에 입학한 후 연수원을 수료할 때 변호사 자격증(Certificat d' Aptitude a la Profession d' Avocat, CAPA)을 취득하는 방법과 전직 검사, 전직 판사, 외국변호사 등의 경우, 연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비정규 선발절차를 두기도 한다. 연수원 입학시험에서 1차는 종합 요약시험, 법적사고 시험, 법률사례 시험 등을 치르게 되고, 2차 구술시험에서는 법과목 구술시험과 외국어 회화 등을

51) 유주성(20105). 프랑스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공동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

포함한 5가지 유형의 구술시험을 치르게 된다. 연수생은 18개월의 연수과정(6개월 이론 연수, 1년 실무 연수) 이수 후에 변호사 자격시험(1' Exament du certificat d' aptitude a la profession d' avocat)에 응시하여 1차와 2차 검증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변호사의 주요 법률사무⁵²⁾는 운영 형태에 따라 상이한데, 개인은 사무실을 개설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동업형태로 회사를 설립하여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는 직종 간 협력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직종의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과 협력할 수 있다. 다만 배타적인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과의 협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소송대리, 항소장 준비, 공증업무, 동산경매인, 경매대리인, 합병, 인수, 구조조정, 기업법률, 세법 지원, 노동 및 근로관계 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프랑스 변호사의 주요 역량은 교육방식이나 시험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법학지식, 일반적 업무처리 능력,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종합적 사고, 표현능력, 외국어 능력, 직무윤리 등과 같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프랑스 변호사의 주요 역량은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유럽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외국어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프랑스 로펌의 다수가 국내 토종 로펌이라기보다 해외 로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6. 일본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일본 변호사 양성과 시험의 특징⁵³⁾은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의 병행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하여 수료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치러서 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 로스쿨의 경우에도 기존에 법과대학을 졸업한

52) 전학선(2016). 프랑스에서의 변호사 선발과 직무. 외법논집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53) 박종수, 김상중, 정채연(2013). 각 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사람은 2년제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년제 과정으로 진학해야 한다. 일본에도 영국과 유사하게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제도로 변호사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법정변호사만 변호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사무변호사는 사법서사라고 한다.

일본 변호사의 주요 법률사무는 전통적인 변호사의 사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소송대리, 판례분석, 법률자문, 협상, 부동산 양도, 피고인 변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일본 내 사내변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IT 관련된 업무, 인수 합병과 같은 경영 컨설팅 및 법률사무에 대한 업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첨단 분야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서, 관련 법률적 리스크를 대비한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사, 노무, 금융, 투자, 기업 송무 등 각 분야에서 인력 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의 주요 역량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지식과 이와 관련된 소양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 산업, 문화, 지적재산, IT와 같은 분야별 트렌드 지식과 관련 자격증(변리사, 노무사 등)에 대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형사나 화이트칼라 범죄 등과 같은 국제법과 관련된 역량 외에도 외국과의 무역협상, 인수, 합병과 같은 경영 컨설팅 능력 및 외국어 능력에 대한 역량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변호사 배출 인원 수가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전체적인 채용 축소가 이뤄짐에 따라 전통적인 변호사의 역량 외에도 신규 분야나 직무에 대한 능력을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변호사의 해외 사례 분석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법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송, 변론, 공증, 자문 등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이고, 경제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법률 규제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해외 글로벌 경제체제의 확대에 따른 국가 간 법률 차이에 따른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법률시장은 인간 중심의 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가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서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된 기술 서비스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기술 변화를 법률 서비스에 접목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의 확장과 변호사의 역량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앞으로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정보 검색이나 판례 분석 등은 인공지능화된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소송 의뢰인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률시장은 여전히 국내 시장의 법률 수요에만 초점을 맞춰 성장하고 있다. 일부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 개설을 통한 해외 진출, 국제 분쟁을 염두에 둔 소송 서비스 기능 강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등에 관심을 두고 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은 소형 법률사무소 위주의 법률 서비스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 로펌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시장 확대와 진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법률 서비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기존 서비스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국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제도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변호사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만을 습득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다.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에 법률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시험의 경우에도 단순한 암기 위주의 양성방법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전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이러한 과정을 적절하게 이수하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변호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을 중심으로 현장성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와 자격체제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법률시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공이 상이하거나 해외에서 일정한 법학지식을 쌓았을 경우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확대하여 법률시장의 인력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모델의 역량 요인들이 현장에서 통용 가능하고 실제적인 수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모델을 수정하고, 로스쿨의 교육모형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변호사도 다양한 경제, 산업,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한 역량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체제인 로스쿨의 선발, 양성, 활용단계들이 체계적이고 현실지향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선발의 경우에도 현재의 역량보다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로스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나 시험 성적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인성과 품성을 갖추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성체제의 경우에도 실무현장에 바로 진출하여서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과 인턴십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의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건, 소송, 의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역량을 갖춘 제너럴리스트보다는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변호사가 일하게 될 환경은 기존에 로스쿨의 양성단계에서 학습한 경험이 없는 사건이나 소송 등이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직으로서 미래 역량을 갖춘 변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로스쿨에서 학습한 내용들은 불과 5~10년 이내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더욱이 기술 발전에 따라 리걸테크 기업들에 의한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수록 변호사의 직무와 경쟁력이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 분야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모습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습 역량과 경력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재교육 외에도 변화하는 사회상과 기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구축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임용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는 주목하지 않는 특정한 내용이나 분야일지라도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호사 개인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 체제나 자격 연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해외 사례 분석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의 법률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법률시장 분석은 로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 외에도 법조인력 혹은 변호사가 로펌 이외의 분야에서 가치를 높인 모든 비용들을 반영하여 법률시장 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통계정보가 구축될 수 있다면, 법률시장 확장의 가능성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로펌 외에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규모나 서비스 현황들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법률직의 미래 전망

제1절 미래 워크숍 설계

1. 미래 워크숍 개요

한국고용정보원은 법률직의 미래 전망을 위해 변호사, 로스쿨 학생, 법률 사무직 종사자 15명이 참여하는 미래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 미래전략연구소 더블유(이하 한미소W)⁵⁴⁾의 도움을 받았다. 미래 워크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인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박사, 숙명여대 이영민 교수,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성원 박사와 한미소W가 협업했다.

우리는 법률직 종사자가 생각하는 일하는 방식, 직무, 일터의 변화 등 10년 후 법률직에 대한 미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브레인스토밍,

54) 민간 미래연구 전문기관.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미래연구, 미래 워크숍 기획, 미래 워크숍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미래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및 국가기관과 협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브레인라이팅, 미래 이슈 카드 활용 등 다양한 미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였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미래 워크숍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았다. 워크숍은 직군별로 5명씩 나누어 총 3회 진행되었다. 7월 11일 토요일, 복합한옥공간 곳에서 매 회 2시간씩 총 3회의 미래 워크숍이 시행되었다.

<표 4-1> 미래 워크숍 개요

대상	일 시	장 소
로스쿨 학생	2020.07.11.(토) 10:00~12:00	복합한옥공간 곳
변호사	2020.07.11.(토) 12:30~14:30	복합한옥공간 곳
법률 사무직	2020.07.11.(토) 15:00~17:00	복합한옥공간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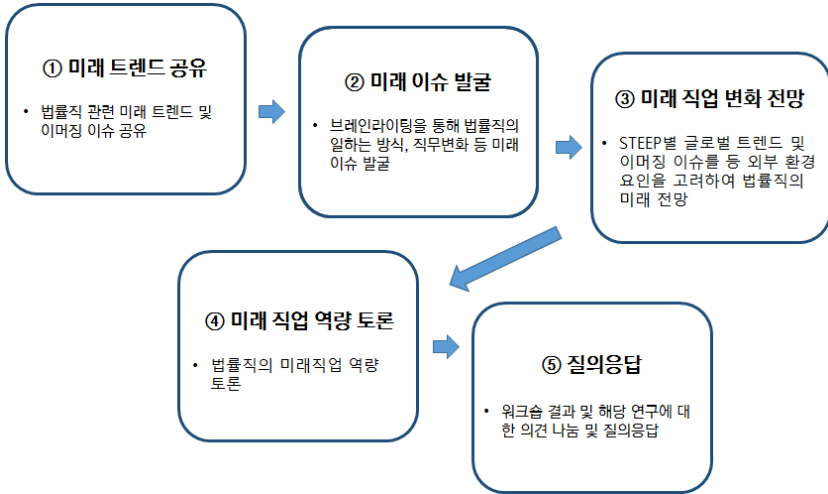
<표 4-2> 미래 워크숍 단계 및 과정

단계 및 시간 배분	과정
오프닝(20분)	워크숍 목적 및 과정 공유
미래이슈 발굴(35분)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여 법률직의 일하는 방식, 직무, 일자리 생멸과 관련한 미래 이슈 발굴
미래직업 변화 전망(40분)	STEEP 및 트렌드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법률직의 미래 전망
미래직업 역량 토론(15분)	법률직의 미래직업 역량 토론
클로징(10)	질의 응답

전체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되었다[그림 4-1]. 국내·외 법률직 트렌드를 공유하여 아이디어의 출발 지점을 맞추는 ①미래 트렌드 공유,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②미래 이슈 발굴, 메가 트렌드와 이머징 이슈 등 미래 이슈 카드를 변수로 활용하여 미래 법률직의 변화를 예측하는 ③미래 직업변화 전망, 미래에 필요한 직업 역량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④미래 직업 역량 토론, 전체 과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⑤질의 응답 과정이었다.

[그림 4-1] 미래 워크숍 프로세스



[그림 4-2] 미래 워크숍 진행 과정



2. 미래 워크숍 방법론

미래 워크숍은 다양한 미래 예측(Foresight) 방법론 가운데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나 대안에 대해 창의적 생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1980년대에 로버트 융크(R. Jungk) 등에 의해 개발된 이후⁵⁵⁾ 다양하게 확장돼 왔다. Popper(2008)의 미래 예측 방법 다이아몬드에 의하면[그림 1-1] 미래 워크숍(Futures workshops)은 참가자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기반해 미래에 대한 균형적이고, 창의적인 상상을 유도한다. 미래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여 참가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 한편, 미래 이슈 카드를 활용하여 10년 후 미래에 몰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미래 이슈 카드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동인이 미래를 변화시켰는지, 그 미래에서 예측의 대상이 되는 법률직 종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도록 돕는다. 이런 방법론은 미래학계에서는 Incasting(특정 미래상황에서 전개과정 예측하기)이라고 부른다.

1)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응용된 상상 Applied Imagination』(1953)의 저자이자 광고인인 알렉스 F. 오스본에 의해 알려졌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의견을 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0년 후 법률직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0년 후 법률직’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무엇이 계속될까?’, ‘무엇이 사라질까?’, ‘무엇이 새로 생길까?’ 세 가지 질문을 시작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했다.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은 아이디어에 제약을 두지 않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포스트잇에 적어 전체 참가자

55) Müllert, N., R. Jungk, and Institute for Social Inventions, London (United Kingdom), Future Work-shops: How to create desirable futures, 1987

들과 공유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들은 이후 브레인라이팅에 쓰인 아이디어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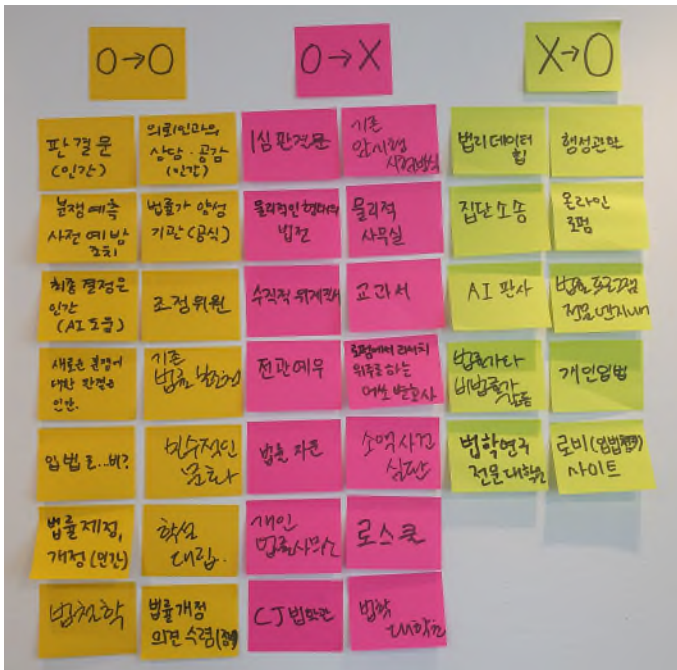
<표 4-3> 브레인스토밍 진행 방법

브레인스토밍 진행 방법

1.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는다.
2. 주제를 명시한다.
3. 아무리 엉뚱해도 모든 것을 적는다.
4. 시간을 제한한다.
5.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 아이디어 순서를 매기는 등 후속 토론을 한다.

출처: 그래픽 디자인 씽킹(비즈앤비즈, 2018),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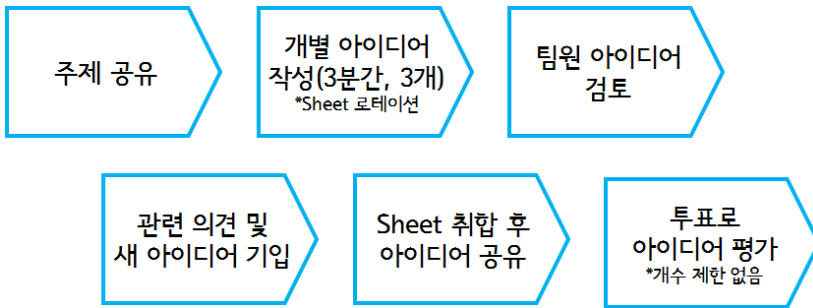
[그림 4-3] 브레인스토밍 결과



2) 브레인라이팅

브레인라이팅은 독일의 Holiger가 1968년 개발한 자유 연상 방법론으로 침묵의 집단 발상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과 달리 브레인라이팅은 말 대신 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글로 읽고 다시 글로 의견을 표현하기 때문에 말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운 참가자도 폭넓은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다량의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내기에도 적절한 방법론이다.

[그림 4-4] 브레인라이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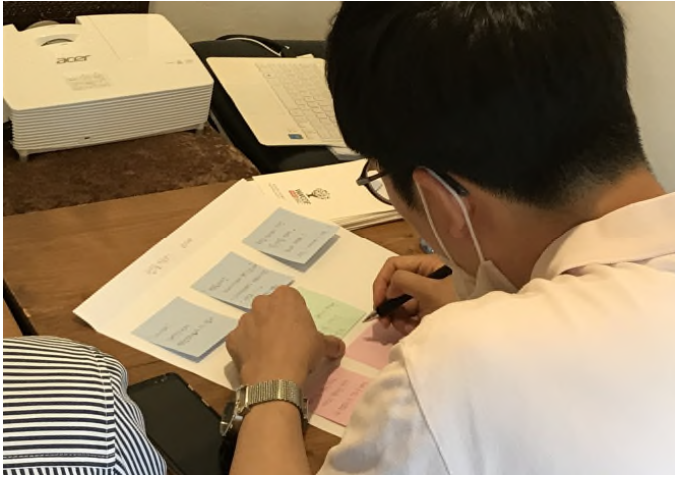


<표 4-4> 브레인라이팅 활용 질문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질문

1. 브레인스토밍 결과와 연계하여 법률직과 관련된 미래 사건 도출
2. 법률직이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할까?
3. 법률직의 직무는 어떻게 변할까?
4. 2030년 법률직과 관련된 뉴스 헤드라인 상상(희망적 뉴스, 우려되는 뉴스)

[그림 4-5] 브레인라이팅 과정



3) 미래 이슈 카드

미래 이슈 카드를 활용한 토론은 참가자에게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슈나 질문을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제 이슈를 포함한 5개의 거시적 미래 트렌드와 국내 사안을 반영한 5개의 이머징 이슈를 활용하여 미래 아이디어 도출에 활용했다. 각 이슈는 비록 출현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는 무작위로 이슈 카드를 뽑았고, 이후 해당 미래 이슈가 발생할 시 법률직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지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는 메가 트렌드와 이머징 이슈를 고려하여 법률직의 미래를 예측한다. 이는 직업 변화가 다양한 사회 변화와 함께 이루어짐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10개의 미래 이슈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분류를 참고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표 4-5〉 워크숍 활용 미래 이슈 10개

분류	STEEP	질문	이슈
메가 트렌드	환경	기후변화로 생태학적 난민이 증가한다면?	기후변화
	사회	한국이 초백세인(Supercentenarian) 대표 국가가 된다면?	바이오/ 고령화
	과학기술	가상세계가 물리적 세계만큼 중요해진다면?	디지털 전환
	경제	1%의 엘리트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양극화
	정치	한국이 G7에 진입한다면?	국제정치
이머징 이슈	사회	100% 비대면 시대가 온다면?	과학기술
	경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온다면?	사회복지
	환경	원 헬스(One Health)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된다면?	보건의료
	사회	새로운 유형의 범죄, 갈등 양상이 나타난다면?	사회 갈등
	과학기술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트랜스휴먼(transhuman) 기술이 활용된다면?	인공지능

[그림 4-6] 미래 이슈 토론 과정



제2절 미래 워크숍 결과

1. 브레인스토밍 결과

이번 워크숍에서는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활용했다. ①미래 법률직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직무와 상황이 지속될까? ②미래 법률직과 관련하여 무엇이 사라질까? ③미래 법률직과 관련하여 무엇이 새로 생길까? 이 질문을 통해 10년 후 미래 법률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 도출의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키워드 중심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포스트잇에 적은 아이디어는 전체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였고, 이러한 공유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도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새로운 미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는 브레인라이팅의 씨앗 아이디어로 활용했다.

1) 10년 후 법률직 관련 계속 있을 것

참가자들은 10년 후 법률직 관련 지속될 것으로 여러 상황을 언급했다. 변호사 그룹은 입법 절차, 공익을 위한 이슈 개발, 법리 창조, 이혼 등 가사 분야 상담, 클라이언트 상담 같은 직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그룹은 법률 개정과 의견 수렴, 판결문 작성, 의뢰인 상담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변호사나 학생 모두 이런 점에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학생 그룹은 변호사 그룹과 달리 분쟁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직무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 달랐다. 법률직 사무원의 경우, 형량 조절, 특허 관련 업무 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일하는 방식에서는 세 그룹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는데, 직접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지속된다는 의견이었다. 법률직 사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전자문서로 대체된다고 예측한 점이 특이했다. 이 그룹은 법적 소송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다른 그룹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의견이었다. 법률

직 사무원 그룹은 전문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인지 편리한 법률 서비스나 국가 간 법률 서비스 간소화 등의 의견도 제안했다.

<표 4-6> 10년 후 법률직 관련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

분류	변호사	로스쿨 학생	법률직 사무원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절차(제안과 의견 수렴) • 공익을 위한 이슈 개발 • 법리 창조 • 조정, 합의 • 이혼 등 가사 분야 상담 • 클라이언트 상담 • 형사 분야 조사 참여 • 공판 • 법률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개정과 의견 수렴 • 기존 법률 보조 • 의뢰인과의 상담 및 공감 • 법률 제정 및 개정 • 새로운 분쟁에 대한 판결 • 최종 결정(인간) • 판결문 작성(인간) • 분쟁 예측 사전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하는 판결 업무 • 상황에 맞는 상담 • 형량 결정(인간의 주관적 견해 필요할 것) • 특히 관련 심사 업무 • 명확하지 않은 법 분야 해석(인간)
일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간 직접 소통 • 법적 절차 전반을 구두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이후 피해자의 감정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 전자 제출 시스템 • 공감 바탕의 소통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 지원관(심리 케어)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서비스 제공과 전문 자격의 연결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적인 문화 • 공식적인 법률가 양성 기관 • 학설 대립 • 법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서비스 이용 빈도 증가(소송 증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관련 범죄 보호 제도 • 인권 바탕 피해자 보호 제도 • 더욱 접근이 편리한 법률 서비스 • 국가 간 법률 처리 간소화 협약

2) 10년 후 법률직 관련 사라질 것

10년 뒤 법률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변호사 그룹은 로스쿨 학생 그룹이나 법률직 사무원 그룹보다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다. 직무에서 조사, 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번역과 통역 업무, 전형적인 사건 등은 10년 뒤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법률 서비스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의 폭과 속도가 다른 그룹보다 크고 빠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호사 그룹은 서면으로 일하는 방식의 종말을 예측했고, 언어 장벽이 상당히 낮아져 외국계 로펌의 활발한 국내 진출을 전망했다. 법률직 사무원도 서류 업무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았고, 해외 업무에서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로스쿨 학생 그룹은 로스쿨의 쇠퇴, 암기식 공부와 대학가에 형성되어 있는 법학공부촌이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학생들은 또한 전관예우, 수직적 위계질서 등도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변호사 그룹이나 법률직 사무원 그룹에서는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다.

<표 4-7> 10년 후 법률직 관련 사라질 것

분류	변호사	로스쿨 학생	법률직 사무원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계약서 초안 작성(고객 스스로 하게 될 것) •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답변 상담 • 번역, 통역 업무 • 간단한 신청 사건 • 전형적인 사건 • 일부 사건(민사 행정) 법원의 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자문 • 소액사건 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혼자서 내리는 판결 •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민사재판(범죄금 문제 관련) • 공증 업무

분류	변호사	로스쿨 학생	법률직 사무원
일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공식 문서 등의 포맷 체크 오·탈자 검수 긴 시간 업무(근무시간 축소) 언어 장벽 해소로 거래 분야 외국 로펌 진출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전화 상담 접수 업무 서류 접수 인감 등 증명서 발급 업무 해외 대리인들과의 레터 송신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사무직 단순 리서치 업무 직종 관할, 지역 단위의 변호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펌에서 리서치 위주로 하는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 내 미화직, 보안직 속기사(중국은 사라짐) 번역 관련 직종 법률 서비스 전체에 종사 업무자 감소(AI 활용, 전자화)
공간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법률사무소 물리적인 형태의 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사무실 (비대면 업무 증가)
교육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 법학 대학원 교과서 물리적 사무실 기존 암기형 시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다른 플랫폼 통해 전문 지식 취득 가능)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관예우 수직적 위계질서 	

3) 10년 후 법률직 관련 새로 생길 것

10년 뒤 법률직에서 새로 등장할 것은 무엇이였을까. 변호사 그룹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듯, 비대면 재판, 다양한 법률 플랫폼, 인공지능의 활약 등을 새롭게 등장할 사건으로 내다보았다. 로스쿨 학생 그룹은 법리를 한꺼번에 담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칩, 온라인 로펌, 로비 사이트 등이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률직 사무원 그룹은 인공지능 법관이나 인공지능 검찰이 등장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 로스쿨 학생 그룹은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을 언급했다. 반면 변호사 그룹은 인공지능은 변호 업무의 보조적 수단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변호사 그룹은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론이 오류가 있음을 밝히는 또 다른 업무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4-8> 10년 후 법률직 관련 새로 생길 것

분류	변호사	로스쿨 학생	법률직 사무원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중심이 아닌 사건 위주의 관할 		
일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재판 입법 컨설팅 + PR + 여론 조성 등 복합 업무 AI가 전 세계 법률을 비교해 미비 규정/법률 입법 제안 언어장벽을 AI가 해소 법률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리 데이터칩 온라인 로펌 개인이 입법하는 시스템 로비(입법) 사이트 법학연구 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례를 빠른 시간에 해석해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 IT 기업의 법률 서비스 분야 사업 확장 지능화된 판독 시스템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판사 법률 프로그램 전문 엔지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법관 AI 검찰 아동 및 여성 등 취약 계층을 효과적으로 서포트 해줄 전문 인력 교감 서비스 AI
새로운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화된 판단(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소송 법률가와 비법률가 갈등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 해결 제도 대체 국가 간 자격증 공유 특수감옥 신설 전 세계 정부 신설 법률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성 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전문 법원 ex. 노동법원, 조세법원 배심원 제도

2. 브레인라이팅 결과

1) 법률직의 변화

변호사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레인라이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력에서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며, 대형 로펌에서는 기술력이 월등한 인공지능 기술을 구입해 활용한다. 이는 국가별로도 차이가 난다. 미국이나 영국 등 부국의 법률가들은 고급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앞서가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법률가들은 이들의 기술력에 예속된다.

판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판결에 활용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의 판례에만 의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반영해 인간이 판결하는 심판과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심판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한편 인공지능의 판결에 흠결이 없는지 조사하는 새로운 업무가 변호사에게 부여된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학생 그룹이 변호사 그룹보다 더 진전된 상황을 가정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사건의 승소 여부까지 예측하고, 이 예측의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패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건에 대해 인간 변호사들은 변호하길 꺼리기까지 한다. 수임 거절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해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인공지능 변호사까지 서로 다투면서 변호하는 장면도 예상되었다.

법률직 사무원 그룹은 인공지능 기술의 법적 적용에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분야에 활용되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인공지능의 법률 해석으로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과거의 판결 데이터에만 의존한 결과를 내놓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간 변호사들이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를 다시 검토하게 되고, 이것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표 4-9> 변호사가 전망한 10년 후 법률직 변화

변수	내용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는 비싼 변호인을 고용하여 AI 시스템을 잘 갖춘 로펌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은 반면 B는 허술한 AI의 조력으로 패소한다. • AI의 지불 능력에 따른 법률 조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한다. • 판사 대신 AI가 분쟁을 해결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합의를 따라가지 못해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 국가 간 법률 전문적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의 선례에서 가장 유리한 선례를 찾기 위한 검색 능력이 중요해진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거대 AI가 등장해 전 세계 법률시장을 독과점한다. • 인터넷 기사, 댓글 SNS를 분석하여 “국민의 여론”을 판단한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AI 도입 후, 개별 사건에서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 빅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미국, 영국 AI가 전 세계 AI 시장을 독과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AI가 개발된다. 이에 대한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 • AI 보험제도가 개발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판단 소송과 AI 판단 소송이라는 두 가지 재판제도가 신설된다.
국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영국에서 각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이슈를 발굴하여 각 국가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가 및 지역의 규제 간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소를 선택하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무의미해진다. • 전 세계의 법률, 규제가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국가의 법률정보를 기초로 자국의 법률을 재개정하려는 시도가 늘어난다.

<표 4-10> 변호사가 전망한 직무 변화

관련 이슈	내용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판단에 대한 시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 • 감정에 호소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 사람 재판관이 맡게 해야 할 근거를 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표 4-11> 로스쿨 학생이 전망한 10년 후 법률직 변화

변수	내용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의 인용, 기각 여부 등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서 기각될 청구는 수임을 안 하려고 한다(수임 거절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가 추려낸 유사 판례를 기반으로 판결의 결과를 예측한다. AI가 판결의 승소 자체를 예측한다. 법률가들은 기존의 부를 활용해 더 좋은 인공지능과 더 좋은 법리 데이터집을 많이 사고 이와 달리 양적으로 축적된 AI나 기존 법리를 활용한 비법률가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다. AI 판사의 첫 제1심 재판이 열린다. AI 법조인들 간의 첫 재판이 열린다.
전문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 자문 외에 일반법률 교육이 증가한다(법 시민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가들은 비법률가와 선을 긋기 위해 입법 활동을 통한 조언을 선전한다.
온라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로펌 소액사건 승소율이 로펌 승소율보다 높아진다.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로비시장처럼 기득권 중심의 입법이 형성된다.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에서 로비 사이트가 위험인지 판단하게 된다.

<표 4-12> 로스쿨 학생이 전망한 직무 변화

관련 이슈	내용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가 예측한 결과대로 패소할 확률이 높음에도 의뢰인의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가 생겨난다. 변호사가 더 이상 법리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어, 주로 상담과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분쟁 해결을 담당하게 된다. 어쨌든 변호사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쓰기보다는 검토하는 일이 많아진다. 적용 법리가 간단한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전형적으로 작성되어 AI가 작성한다. 판사는 이를 확인만 한다.
공감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 상담이 변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된다.
전문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와 의뢰인이 관련 문서를 같이 보면서 의뢰인 앞에서 문서를 작성한다.

관련 이슈	내용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비 사이트의 관리 업무나 개인 입법 사이트의 관리를 변호사들이 맡게 된다. •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로비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새 직무가 된다(여론 조성 등).
온라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사이트 청원의 헌법합치 및 법률 적합성을 검토한다(판사의 직무영역 확대).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가들의 법률 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다(창업 등).

<표 4-13> 법률 사무원이 전망한 10년 후 법률직 변화

변수	내용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의 판단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슷한 유형의 판례지만, 심층적으로 따지고 볼 때 성질이 다른 사건일 경우, AI의 실행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감정노동 직군이 없어져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지만, 이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접수가 활성화되고, 법원직 공무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 검사 AI는 감정이 없어 말하기 편해진다. 모든 것을 잘 판단해 줄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견해, 감정 등 판결에 영향이 없도록 원천 배제하는 AI 법률 서비스의 활용이 증가한다.
전문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져 다른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관련 직종으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된다.
온라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표 4-14> 법률 사무원이 전망한 직무 변화

관련 이슈	내용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화 작업이 대폭 감소한다(불필요한 서면 결재, 다량의 문서 작업).
공감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학교에서 심리상담사를 고용하듯,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전문 심리상담가(아동, 노인 특정 전문)의 채용이 활발해질 것이다.

2) 법률직 관련 미래 뉴스 헤드라인

우리는 세 그룹에게 향후 10년 후, 법률 서비스 관련 어떤 뉴스가 메인 기사로 부각될지 물었다. 우리는 이들의 의견을 법률 서비스 시장의 위기, 기회 그리고 중립 등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사용되지만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의견을 낸다면 이는 법률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기로 판단했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로 법원의 사무를 축소하고, 사무직은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이는 기회로 보았다. 한편 온라인 법률 서비스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중립으로 분류했다.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변호사가 전망한 미래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인공지능의 판결이 사회의 편견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불리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로펌은 막강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것으로도 예측되었다. 이는 법률시장에 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전관예우 같은 전근대적인 관행이 사라진 다든지, 인공지능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해 사건의 소송 비용을 줄이고 법원 사무도 축소할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판사는 특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데, 인간 판사의 판단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경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애매해지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변호사 그룹은 예측했다.

법률직 사무원이 전망한 미래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인간 판사가 놓친 사건의 이면을 인공지능 판사가 짚어내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앞서 법률직 사무원 그룹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10년 뒤 미래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긍정적인 기회도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인간 판사가 판결한 것을 인공지능 검사나 변호사가 재반박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언급했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이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수행해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로스쿨 학생 그룹은 인공지능 판사가 사상 처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을 예상했다.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의 활약이 예상보다 막강해 변호사들도 직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로스쿨 학생 그룹은 장차 우주산업의 활발한 부각을 예상하면서 법률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우주 개발과 관련한 국제법 제정을 두고 각 국의 변호사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일 수 있음을 예상했다.

<표 4-15> 변호사가 전망한 미래 뉴스 헤드라인

이슈	뉴스 헤드라인	분류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판사의 판결,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 그대로 드러내 • 소수 AI 로펌의 놀이터로 전락한 법률시장, 시장점유율 90%에 달해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A국가 AI 진단 결과 영국 법 시스템에 90% 이상 따라와 • AI 판결 도입 후 전관예우 근절 • ‘AI 분쟁 해결 시스템’ 으로 법원 사무 대폭 축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가 잡으면 사람이 풀어준다’ 인간 재판부 잇단 선처 	중립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값싼 비용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나라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 생활고로 투신 • 21세기 장발장. 기초수급자 식빵 훔쳐 징역 5년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법률 플랫폼으로 사건 집중’ 기존 로펌 위기의식 	중립
국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미얀마 판례 최초 인용 	

〈표 4-16〉 법률직 사무원이 전망한 미래 뉴스 헤드라인

분류	뉴스 헤드라인	이슈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로 인해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 인공지능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 발생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판단으로 선량한 시민을 구하다. • AI 법관 첫 판결 결과는? 당사자 충분히 수궁 • 위험한 사건(범죄)에서 AI가 사람을 구했다.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에 대해 AI 검사, 변호사 참여 	중립
전문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직종 스태프들의 대거 실업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스쿨 입학, 올해가 마지막, “학교” 를 통한 전문 자격증 취득은 올해가 마지막 • 변호사, 하나의 기본 자격증으로 전환 	중립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7월부터 전관예우 없어질 예정” 	중립

〈표 4-17〉 로스쿨 학생이 전망한 미래 뉴스 헤드라인

분류	뉴스 헤드라인	이슈
AI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리 데이터 칩과 법률 인공지능의 질적 차이에 의한 사회 계층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변호사 대규모 실업 • AI 군인 변호사와 상충부 사이 갈등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판사의 첫 재판 제1심 판결이 최초 선고됨 • AI 법률 서비스,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법률 분쟁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법률가들의 필요성 증대될 듯 	중립
전문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 법률가인 체 행세하는 비법률가 따로 처벌도 안 받아 • 국회 내 법률가 출신 의원과 비법률가 출신 의원 관련 입법 둘러싸고 갈등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가들 비법률가와 차이 없는 상담에도 수입료는 많게는 10배. 비법률가 상담 선호 현상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직 종사 변호사의 급증 	중립
우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 개발 및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 	중립

3) 미래 이슈 토론

10개의 미래 이슈 중 변호사들이 선택한 미래 이슈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들은 각 이슈별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슈별로 변호사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살펴보자.

3-1) 변호사 그룹의 미래 이슈 논의

미래 이슈: 새로운 양상의 갈등 발생(형사, 민사)

“사회적인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각 국가마다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속도는 다릅니다. 새로운 범죄, 갈등 양상이 나타날 시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대응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입법으로 반영한다든지 현재 있는 법 안에서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범죄나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걸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변호사들은 입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앞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 역할들이 훨씬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특수화된 전문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시될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에서 고민하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적인 분쟁이나 갈등도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관련된 분쟁들도 기존이라 완전히 다르고요. 이런 것들은 법으로 먼저 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약관이 사실상 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만들 때 변호사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겁니다. 스타트업들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법률적인 조언이나 조력, 설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 이슈: 한국의 국제적 위치 부상

“애플 같은 회사들은 단 하나의 약관으로 전 세계 서비스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 규정에 맞춰서 시정하라고 요구했을 때,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테지만 요새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 기준을 바꾸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안에서 외국 사업자들을 대리하는 인바운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래 이슈: 100% 비대면 시대가 온다면

“100% 비대면이 온다면 변호사들도 본인을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릴 것 같아요.”

“사무실 중심 변호사 시장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자기 관할에 출석하는 변호사 위주로 보게 되었고, 그 때문에 지역적 시장이 좁았어요.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정도로 범위가 좁혀졌는데 완전 비대면이 되면 적어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장은 단일 시장이 되는 거죠. 그 경우 마케팅 압력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미래 이슈: 1%의 엘리트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양극화 심화)

“좋은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과 허술하고 저렴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의 격차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나 거기서 예측해주는 결과도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 편견까지 그대로 반영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선례를 보는 방식이 비판적이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된다면 법률적 판단으로 사회를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법치주의 순기능 중의 하나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현재도 소외당하고 있고 현재도 적절히 대변 받고 있지 못하는 계층, 계급, 집단의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 같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시 여성이 배제되는 등 차별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쉽고 간단하다는 이유나 너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AI로 돌렸을 때는 결국 힘이 없는 쪽에 훨씬 더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3-2) 로스쿨 학생 그룹의 미래 이슈 논의

미래 이슈: 가상세계가 물리적 세계만큼 중요해진다면

“가상세계에서 물질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물리적 세계의 물질과 동등하게 봐야 하는지 등 개념 정의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로비 활동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가상 화폐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 다음은 가상세계에서의 인격체를 현실의 인격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법학에서는 법인격 개념이 있는데, 가상세계 인격이 법인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겠죠.”

“가상세계의 부동산을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가상세계에도 등기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발생할 것 같아요.”

“가상세계 안에서 아바타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신체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특별법으로 관련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세계 인격체를 공격한 것과 같은 범주로 다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래 이슈: 트랜스휴먼(transhuman: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활용된다면

“트랜스휴먼 변호사가 나온다면 해당 기술을 활용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간 변호사는 경쟁력을 잃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판례를 찾거나 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휴먼 변호사의 업무 효율이 매우 높을 텐데, 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 순수 인간 변호사는 도태되지 않을까요?”

“트랜스휴먼 변호사에게도 공감 능력이 요구될 것 같아요. 의뢰인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는 것이고, 이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기계적인 존재보다는 능력도 있고 공감 능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미래 이슈: 한국이 초백세인(Supercentenarian) 대표 국가가 된다면

“고령 의뢰인의 경우 공감에 기반한 상담을 바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AI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모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이 때문에 법률가가 고령층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백세인 이슈와 트랜스휴먼 이슈가 결합하면 연령이 높아져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노동인구와 부양인구를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경제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에 따라 AI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미래 이슈: 100% 비대면 시대가 온다면

“코로나 이후 사람끼리 대면이 줄어들면서 분쟁이나 사건 의뢰 개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무소는 굉장히 어렵고 대형 로펌에서도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100% 비대면 시대가 오면 개인 간의 분쟁은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해

지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 같아요. 홍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법률 지식보다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변호사 스스로 역량을 마케팅하고 일종의 상품으로서 어필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 장소 제약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의뢰인의 상담에 응해야 하는 거죠. 호출이 왔을 때 바로 답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24시간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동안 대면으로 얻어왔던 정보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정보를 알아내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정보 습득 방법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비대면으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도 늘어날 텐데 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과 법률가의 역할이 결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백세인 이슈와 연결해 보면 몸이 아프고 소통 기회가 줄어든 사람들이 증가할 테고, 이들을 위한 상속이나 관계를 정리해 주는 법적 역할도 중요해지겠죠.”

미래 이슈: 기후변화로 생태학적 난민이 증가한다면

“한국에 난민이 늘어나게 되면 법률시장 안에도 통역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제3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사무원들이 고용될 것 같고요.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다문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미래 이슈: AI의 발달

“변호사의 일 중 단순 송무 영역은 AI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AI가 주체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기업이나

로펌의 경우도 AI 변호사를 유형별로 나누어 운영하고요 AI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일하고, 기업에서는 돈만 받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처럼 사람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승패를 예측해서 이 건은 질 거라고 예측한다고 해도, 사람 변호사가 다시 맡아 변호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할까요. 법률은 사회 분위기나 정책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AI가 패소를 예측한 건이라고 해도 전문 변호사가 다시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공학자의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판례나 유사 사례를 분류하는 작업을 법률전문가와 공학자가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협업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AI가 발달하면 역으로 인간적인 면이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머니즘에 기반한 변호사라고 할까요. 현재의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와 비슷하게 소통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나올 것 같아요. 또 AI가 발달하면 그만큼 새로운 갈등도 발생할 텐데 AI로 비롯된 갈등에 관한 법률 전문 서비스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3) 법률직 사무원 그룹의 미래 이슈와 논의

미래 이슈: 1%의 엘리트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돈이 많으면 법률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사법 불신도 심화될 것 같고요. 또한 법원 공무원 자살률이 높은 편인데 법원 직원들도 감정노동자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더 친절한 서비스를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갑의 입장에서 특권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힘이 듭니다. 1%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무원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이슈: 새로운 양상의 갈등 발생(형사, 민사)

“최근 여성에 대한 범죄가 중요한 사안인데, 판결이 약하게 나오는 건, 법을 만들거나 판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 사회는 여성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그동안 여성들이 억압받고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에 대한 판결이 사회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이후 사회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렇듯 새로운 갈등은 사회를 보다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이슈: 트랜스휴먼(transhuman, 인간과 기술의 융합)이 활용된다면

“지금도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잘못인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트랜스휴먼 기술이 활용되면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보다 효용성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트랜스휴먼이 된다면 법률책을 통째로 이식해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하게 되면 사무 보조원뿐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 전문 서비스가 사라질 것 같아요. 스스로 정보 칩을 이식해서 전문가가 되면 되니까요.”

“현재는 지문 감정으로 수사를 많이 하는데, 트랜스휴먼이 많아지면 기존의 수사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이슈: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온다면?

“업무 역량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니까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 자유롭게 취직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소속감과 자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이슈: 한국의 국제적 위치 부상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부상한다면 미국적 법률 서비스나 금융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료 법률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한국이 G7에 진입한다면 미국처럼 법률 서비스에 더 큰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방향이 국내 상황과 잘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에 특화된 나라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경쟁 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이 경우 소수의 약자를 대변하거나 돈이 안 되는 것은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이 많아지는 동시에 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업무가 미국 중심, 요즘은 중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소통을 할 때 영어, 중국어를 저희 쪽에서 번역하고 해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G7에 든다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할 것이고, 한국은 넓은 시장에 진출해 지금보다 주도적으로 법적인 서비스 역량을 넓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3절 법률시장의 미래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변화의 폭과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 매우 넓고 급진적이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부터 시작해보자. 2016년 미국 거대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호스테틀러(BakerHostetler)는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를 고용했다. 로스는 파산부에 고용되어 일상적인 판례 연구에 조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변호사 아이디어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취급되었으나 로스의 등장으로 사실이 되었다. 물론 SF영화에 등장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은 아니지만, 인간 변호사들의 일을 돕기 시작한 기술의 등장은 향후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기에 충분히 놀랄만한 증거다.

이런 사건을 필두로 리걸Zoom(Legal Zoom), 로켓로이어(Rocket Lawyer), 로데포(Law Depot) 등은 지금 매우 활발히 법률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다. 이들 플랫폼은 유언, 이혼 절차, 임대 계약 등 전통적으로 인간 변호사들이 수행한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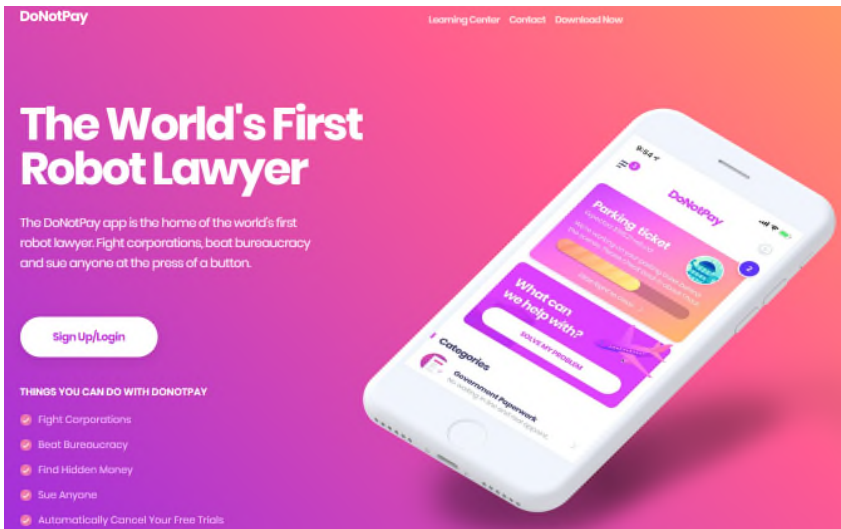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리걸Zoom(LegalZoom.com)은 임대계약서 작성에 29달러, 기본 유언장 작성에 69달러, 합의 이혼에는 299달러를 청구한다. 만약 인간 변호사에게 이런 일을 맡기려면 최소 시간당 300달러를 들여야 한다.

이렇듯 저렴한 법률 서비스 덕분에 로켓로이어(RocketLawyer)는 2019년 현재 4천만 건의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50만 건 이상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700만 건 이상의 사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추세는 확대일로여서 어느 정도로 법률시장을 침투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미 4년 전인 2016년 “More than 100,000 Legal roles to Become Automated” 라는 기사에서(Financial Times, March 15, 2016) 영국 법률 보조원과 비서 등 3만 1천 개 법조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20년 동안 1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더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쯤 되면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의 대니얼 시칠리아노 교수이자 변호사는 “15년 안에 변호사의 3분의 2가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아예 변호사의 꿈을 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오펜하이머, 2020, 2030 미래 일자리 보고서, p. 228).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의 전망이 아닌 법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의 전망이라 더욱 무게감이 느껴진다. 현재 미국의 법률 시장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변화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4-7] Donotpay.com 첫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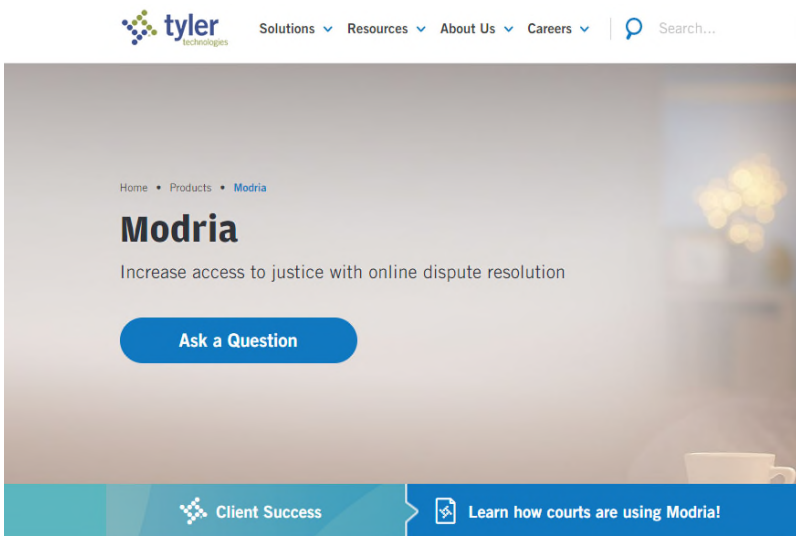
[그림 4-7]은 요즘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Donotpay.com의 메인 화면이다. 이 온라인 사이트는 2017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미국의 스탠퍼드대 학생 조슈아 브라우더를 미국의 혁신적인 변호사로 선정할 원인이자, 조슈아는 변호사도 아니었다. 조슈아는 “나는 변호사도, 대학 졸업자도 아니지만,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문직을 모두 공짜로 만들고 싶다”고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10대 때 런던에서 교통 위반 딱지를 떼였는데, 이의신청 과정이 너무

나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항상 똑같은 편지를 보내도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돕는 무료 웹사이트 donotpay.com을 설립했다. 2017년 말까지 37만 5천 장의 주차 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했고, 93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주차 위반 대응의 자동화를 넘어 이제는 기업의 횡포(서비스 거절하기, 신용카드 문제, 항공기 연착이나 불친절 서비스 등)나 관료주의 폐해(주차 위반 딱지 등) 신고 등으로 업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4-8] 온라인 분쟁 해결 웹사이트 Modria.com



Deliver Fast and Fair Online Dispute Resolution

[그림 4-8]은 온라인 분쟁 해결 웹사이트 모드리아닷컴(Modria.com)의 메인 화면이다. 이베이와 페이스북의 온라인 분쟁 해결 책임자였던 콜린 룰(Colin Rule)이 2011년에 설립한 온라인 법률 분쟁 조정 웹사이트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산 사람들과 판 사람들 사이에서 4억 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례로 우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사람 간 분쟁 해결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오픈하이머(2020)는 “5년에서 10년 사이 모드리아

닷컴은 온라인으로 어떤 분쟁도 해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어떻게 고객들의 문제 제기를 자동으로 해결하는지 살펴보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이베이 웹사이트에 문제 해결 페이지를 방문한다. 이베이는 고객의 불만을 모드리아닷컴에 전달한다. 고객은 제품이 늦게 도착했고, 제품에 손상이 있다는 불만을 적어놓는다. 모드리아닷컴의 알고리즘은 자동검색으로 이 고객이 판매자에게 같은 불만을 제기한 이력을 검색하고, 배송 과정에서 지연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한다. 모드리아닷컴은 자동으로 사건을 판정하고, 고객을 달래기 위해 50달러 상품권을 배송한다. 또는 이베이에 새 제품으로 교환을 지시할 수도 있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고객의 항소도 자동화한다. 테네시대학 법대 교수 벤저민 바턴은 “모드리아닷컴이 더 많은 변호사와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며 “분쟁 해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한 오페하이머(2020:237)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인기가 높아지고, 리걸줌과 로켓로이어 등 웹사이트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미국 전역의 판사들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지어 법원이 웹사이트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플랫폼들은 미국을 벗어나 법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미 법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고 있다.

렉스마키나닷컴(LexMachina.com)은 수백만 건의 특허소송 파일 저장으로 특허소송 파일을 분석해 특허 동향을 탐지하고,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등록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온라인 업체는 미국 대법원 상고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사건에도 승소를 예측한다. 미국 대법원의 경우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판사의 성향을 예측하기 쉽다고 한다.

리걸리스트닷컴(Legalist.com)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알고리즘 예측에 따라 소송 비용 일부를 대출해준다. 승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최종 승소 결과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바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법률시장에 예측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시작된 것이다. 프리모니션닷컴(Premonition.com)은

로펌을 평가해 특정 법률 서비스에서 높은 순위를 받은 로펌을 골라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영남대 로스쿨의 양종모 교수는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면서 스스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코딩하는 교수로 유명하다. 그는 20년 이상 법률시장의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 <표 4-18>과 같은 전망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하였다.

양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법률 검색이나 양형 예측은 현재도 가능하다. 판결의 승패 예측이나 재범 확률 예측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반쪽의 성공만 거두고 있다. 이유는 인공지능이 아직 과거 법률 데이터에 의존해 사회적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양 교수는 예측한다. 그는 법률이 규칙의 배열로 체계화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느낌, 감각, 직감이나 상상력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 뒤 그런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을 끌어내고 적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런 일을 하기는 앞으로도 어렵다는 것이다.

<표 4-18> 법률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AI 대체 가능성

법률 서비스	AI로 대체 (현재)	AI로 대체 (미래)	비고
법률 검색	○	○	현재도 활용
판결 승패 예측	△	○	더 많은 데이터 축적 필요
재범 예측	△	○	AI 편향성 보완 필요 “AI 알고리즘은 인간의 편견을 반영, 더 증폭시키거나 영속화할 수 있다”
양형 예측	○	○	현재도 활용
범죄 사실 판단	×	×	“법률은 규칙의 배열로 체계화되거나 설명될 수 없고, 법원은 느낌, 감각, 직감이나 상상력을 통해 결론에 도달 후 그런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을 끌어내고 적용” (양종모, 2017)

여러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인간 변호사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훌륭한 변론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법의 해석, 재개정의 논의(분석할 자료가 적기 때문), 변화가 많은 금융 분야의 법 개정 등은 여전히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객과 유대를 맺고 신뢰를 쌓는 일, 소송 그 자체의 예측보다 장기적으로 고객의 목표를 보호하고 상기시키는 일 등은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월등할 것으로 보인다(오펜하이머, 202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법률직이 맞이할 네 가지 미래상

우리는 세 그룹과 진행한 미래 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확정했다.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기술이 결정하는 방향과 여전히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향 등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그림 2-9) 참조. 또 하나의 변수로 법률시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는 방향과 전통과 안정을 고수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축으로 교차시켜 네 가지의 미래적 상황을 도출했다.

1-1 융합/도전, 인간(중심) 결정

[그림 2-9]에서 A미래는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결정을 중심에 두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일부에서 발견된다. 이 미래 사회는 기술의 의존을 경계하면서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무환경은 사회적 평판이 높은 스타 변호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로스쿨의 문턱은 낮아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률시장에 진입해 활동한다. 이 중 분야의 연결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된다. 예를 들면 의료전문 변호사, 가상세계의 아바타 케어 전문 변호사 등이다. 이 사회에서 변호사는 융합력,

마케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무실 중심 변호사 시장이 사라지면서 변호사 개개인의 홍보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해진다.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변호사가 스타 변호사로 떠오른다.
-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반영한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이 증가한다. 기업의 약관이 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커진다.
- 변호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4시간 상담해주는 서비스나 고객 맞춤형 플랫폼 등 더욱 간편하고 접근이 쉬운 법률 서비스가 등장한다.

2-2. 융합/도전, 기술(중심) 결정

[그림 2-9]에서 B미래는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면서 기술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사회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력이 높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법률사무가 가능하면, 더 나아가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기술 수준이 높다. 미래도 예측한다.

B미래에서 변호사들은 전통적 변호 업무보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일이 중심이다. 법률 분야의 이머징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예상한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탐색하고 갈등 조정 업무가 중시된다. 변호사들은 기술 활용력이나 조정과 대안 제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터넷 기사, 댓글, SNS 등 국민의 여론을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는 법률 AI가 등장한다.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미래 예측도 시도하며, 변호사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중요한 자료로 취급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 사람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AI 법조인 간의 재판이 열린다.
- 의뢰인들은 편견이 없는 AI와의 법률 상담을 사람 변호사와의 상담보다 선호한다.

2-3. 전통/안정, 인간(중심) 결정

C미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고, 인간의 최종 결정을 믿는다.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이 장려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선에서 그친다. 인공지능은 판례를 수집하거나 요약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는 판례 해석력, 고객과 공감 중심의 소통력을 향상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전히 대면 업무가 중요하며 의뢰인의 성향에 맞는 소통 능력이 중시된다. 법률 상담과 함께 공감 능력도 변호사의 주요 역량이다. 변호사의 업무에서 심리 상담도 주요 업무다.
- 법률 AI가 등장하지만 판단과 결정 영역은 여전히 사람이 담당한다. AI는 판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 입법 관련 로비스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로비를 뇌물로 인식하는 정서 대신 자연스러운 경쟁이라고 보고 로비 활동 합법화가 추진된다.

2-4. 전통/안정, 기술(중심) 결정

D미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들의 기술 수용력도 높다. 사회는 다소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해 변호사 외에 법률 사무직은 거의 사라진다. 인공지능은 다수의 의견과 기존의 판례를 중시한 결론을 내린다.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로펌들이 시장을 장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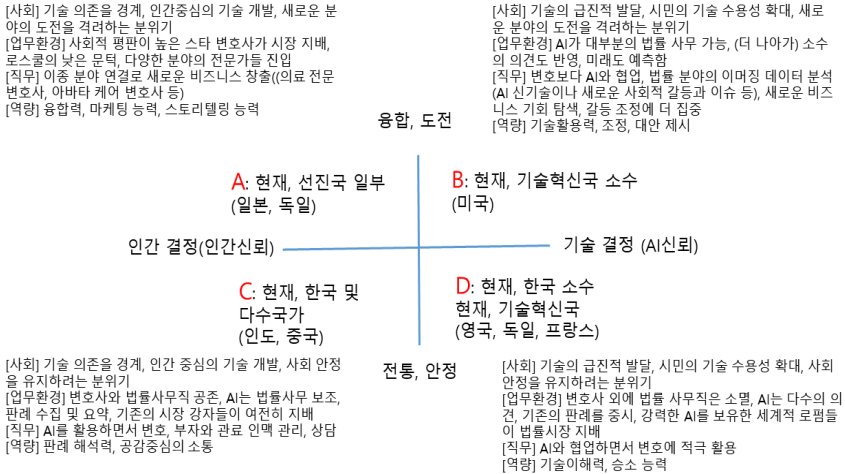
변호사들은 인공지능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활동한다. 이들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 활용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무조건 승소가 목적이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거대 AI가 등장해 전 세계 법률시장을 독점한다. 국가 간 법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 법률, 규제 방향이 비슷해진다.

- 법률 AI의 능력에 따른 격차가 생긴다. 기존에 부를 쌓은 법률사무소가 시스템이 뛰어난 법률 AI를 도입하면서 승소율이 높아진다. 변호사 간에 양극화가 심화된다.
-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는 법률 AI 활용이 보편화된다. 기존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흡수하여 AI의 판결에서도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이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그림 4-9] 법률직의 네 가지 미래상



제5장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인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률시장의 변화, 미래 직무 변화 및 새롭게 수행할 신(新) 직무, 미래 요구 역량에 관한 요구 역량을 파악하여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변화상의 타당성 검증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 방법

2020년 9월 24일부터 동년 10월 31일에 걸쳐 변호사 141명, 법학전문대학원생 71명을 합해 총 212명을 조사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부록 참고)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했다.

〈표 5-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유효 표본	총 212명(변호사: 141명, 법학전문대학원생: 71명)
조사 기간	2020년 9월 24일 ~ 10월 31일

3. 주요 조사 내용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를 예측하기 위해,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미래 법률시장 영향 요인,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 분야, 10년 뒤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과 준비 정도,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등에 관한 항목을 조사했다.

〈표 5-2〉 조사 주요 항목

항목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예상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필요 정도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준비 정도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가능성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

제2절 조사 결과

1.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전체 인원은 212명으로 변호사 141명, 대학원생 71명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인 인구통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3> 응답자 인구통계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12	100.0
소속	변호사	141	66.5
	대학원생	71	33.5
성별	남성	134	63.2
	여성	78	36.8
나이	20대	58	27.4
	30대	94	44.3
	40대	48	22.6
	50대 이상	12	5.7
법률 관련 경력	3년 미만	93	43.9
	3년 이상~5년 미만	30	1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22.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14.6
	20년 이상	11	5.2
지역	서울	79	37.3
	부산	4	1.9
	대구	5	2.4
	인천	6	2.8
	대전	14	6.6
	광주	31	14.6
	울산	3	1.4
	경기	10	4.7
	강원	18	8.5
	충북	6	2.8
	충남	8	3.8
	전북	3	1.4
	전남	17	8.0
	경북	2	0.9
	경남	3	1.4
제주	3	1.4	

2. 주요 결과 요약

가.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예상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예상으로 ‘확장’ (확장될 것이다: 48.1%, 매우 확장될 것이다: 2.4%)이 5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 (축소될 것이다: 19.3%, 매우 축소될 것이다: 1.4%)는 20.8%로 낮게 나타났다.

<표 5-4>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예상

(단위: %)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예상		
▶ 매우 축소될 것이다	1.4	} → 축소 (20.8)
▶ 축소될 것이다	19.3	
▶ 현상 유지될 것이다		28.8
▶ 확장될 것이다	48.1	} → 확장 (50.5)
▶ 매우 확장될 것이다	2.4	
▶ 계		100.0
▶ 100점 평균		57.7점

나.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변호사 수 증가’가 8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74.2점),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72.8점),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7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업무 전문성 약화’ (56.6점)와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확대’ (62.1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5> 미래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0.0	3.8	18.4	60.8	17.0	100.0	72.8
변호사 수 증가	0.5	1.9	4.7	51.4	41.5	100.0	82.9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확대	0.5	13.7	31.6	45.3	9.0	100.0	62.1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0.5	4.7	24.5	51.9	18.4	100.0	70.8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0.5	1.9	15.1	65.6	17.0	100.0	74.2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0.5	2.8	18.9	61.8	16.0	100.0	72.5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 발전	0.9	8.0	20.8	53.3	17.0	100.0	69.3
변호사 업무 전문성 약화	2.4	15.1	43.9	31.1	7.5	100.0	56.6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0.0	4.7	25.9	58.0	11.3	100.0	69.0
특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0.5	3.3	25.0	59.9	11.3	100.0	69.6

나.1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종합순위(1+2+3순위) 기준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8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 (40.6%),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35.4%),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호사 수 증가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변호사의 무영확장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공적영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해외로의 국내 진출 확대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약화	특정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종합순위(1+2+3순위)	80.2	40.6	33.5	35.4	29.2	25.9	16.5	15.1	9.9	13.2
1순위	45.8	7.5	6.1	19.8	6.1	7.5	2.8	2.4	1.4	0.5
2순위	19.8	16.5	14.6	9.4	12.3	11.8	3.8	5.7	3.3	2.8
3순위	14.7	16.6	12.8	6.2	10.9	6.6	10	7.1	5.2	10

다.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 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 이 5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55.8점),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5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48.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7>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단위: %)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	2.4	21.7	39.2	33.0	3.8	100.0	53.5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를 판단하고 수입	4.2	18.9	46.2	26.9	3.8	100.0	51.8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 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	2.4	12.7	38.2	41.5	5.2	100.0	58.6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0.9	9.9	57.1	29.2	2.8	100.0	55.8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2.8	28.3	41.5	25.5	1.9	100.0	48.8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1.4	8.5	58.0	30.2	1.9	100.0	55.7
증서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 업무	5.2	24.1	37.3	28.8	4.7	100.0	50.9

다.1.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부동산’이라는 응답이 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공지능’과 ‘일반 법률 자문’ (각각 7건), ‘계약서 자문’과 ‘기업체 자문’ (각각 5건), ‘공공/민간 소속’과 ‘교육’, ‘후견’ (각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

(단위: 개)

의견	개수	의견	개수
부동산	9	노년층 대상	1
인공지능	7	벤처캐피털	1
일반 법률 자문	7	보험	1
계약서 자문	5	상담(콘텐츠 크리에이터)	1
기업체 자문	5	서비스(유사사건 맞춤)	1
공공/민간 소속	4	세무	1
교육	4	소셜미디어	1
후견	4	소속	1
개인 대상	3	소송(집단/공동)	1
소송 전 단계 자문	3	스포츠	1
대리업무	2	신탁	1
로비	2	예방법학	1
상담	2	유사 업무 수행	1
상속	2	은행	1
스타트업	2	의뢰인과 관계 유지	1
신기술	2	의료	1
심리	2	자문(컴플라이언스)	1
영업	2	자산관리	1
일상생활	2	전자 시스템과 접목	1
입법	2	조력	1
지역 공동체	2	준법감시	1
창업	2	채권추심	1
경영	1	책임	1
계약서	1	탐정업	1
공적 상담	1	해양	1
국제	1	없음/무응답	127

라-1.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필요 정도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이 8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84.2점), ‘언어력(한국어)’ (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8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능력’ (62.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9>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필요 정도

(단위: %)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필요 정도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언어력(한국어)	0.5	1.4	14.2	35.8	48.1	100.0	82.4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0.5	0.0	9.4	35.8	54.2	100.0	85.8
법률 지식	0.0	2.4	15.6	40.1	42.0	100.0	80.4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0.0	1.4	14.6	37.7	46.2	100.0	82.2
업무 윤리성	0.5	4.2	24.1	31.6	39.6	100.0	76.4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0.0	1.9	13.7	40.1	44.3	100.0	81.7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0.0	1.4	10.8	37.3	50.5	100.0	84.2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0.5	2.8	14.6	36.3	45.8	100.0	81.0
기업가 정신	1.4	7.5	33.5	31.6	25.9	100.0	68.3
기술 활용 능력	0.0	2.8	18.9	46.2	32.1	100.0	76.9
외국어 능력	0.5	13.7	32.5	42.0	11.3	100.0	62.5
다양성 포용력	0.0	3.3	30.7	49.1	17.0	100.0	69.9
미래 예측력	0.0	3.3	32.1	44.3	20.3	100.0	70.4
위기 대처능력	0.0	0.5	17.0	48.1	34.4	100.0	79.1
이종 학문 분야 학습 및 다학제 간 지식 융합력	0.5	5.2	23.1	50.9	20.3	100.0	71.3
자기주도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0.0	5.2	32.5	45.8	16.5	100.0	68.4
차별화 전략 능력	0.0	0.9	17.5	46.7	34.9	100.0	78.9
전체 조망력	0.0	1.4	12.7	47.6	38.2	100.0	80.7
통찰적 실행력	0.0	0.9	18.4	46.7	34.0	100.0	78.4
변화수용력	0.0	0.9	18.4	41.5	39.2	100.0	79.7

라-2.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준비 정도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어력(한국어)’(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 ‘다양성 포용력’(6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활용 능력’(46.0점), ‘기업가 정신’(46.3점),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48.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0>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준비 정도

(단위: %)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준비 정도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언어력(한국어)	0.5	3.3	35.8	47.2	13.2	100.0	67.3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0.0	4.7	40.6	45.3	9.4	100.0	64.9
법률 지식	0.5	9.0	44.8	40.1	5.7	100.0	60.4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0.9	10.4	42.5	34.4	11.8	100.0	61.4
업무 윤리성	0.9	1.9	33.0	42.9	21.2	100.0	70.4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2.8	26.4	49.5	16.5	4.7	100.0	48.5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0.5	5.7	45.8	39.6	8.5	100.0	62.5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0.0	17.5	47.6	28.8	6.1	100.0	55.9
기업가 정신	5.2	21.7	58.5	11.8	2.8	100.0	46.3
기술 활용 능력	4.2	27.8	50.5	14.6	2.8	100.0	46.0
외국어 능력	5.7	19.3	47.2	22.6	5.2	100.0	50.6
다양성 포용력	0.9	2.4	44.8	41.0	10.8	100.0	64.6
미래 예측력	0.9	13.2	63.7	19.3	2.8	100.0	52.5
위기 대처능력	0.9	6.6	53.8	32.1	6.6	100.0	59.2
이종 학문 분야 학습 및 다학제 간 지식 융합력	3.8	19.3	53.3	18.9	4.7	100.0	50.4
자기주도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0.9	8.5	52.4	30.7	7.5	100.0	58.8
차별화 전략 능력	1.9	17.5	51.4	25.0	4.2	100.0	53.1
전체 조망력	0.5	7.1	46.7	36.8	9.0	100.0	61.7
통찰적 실행력	0.9	6.6	51.9	31.1	9.4	100.0	60.4
변화 수용력	0.0	6.6	47.2	34.9	11.3	100.0	62.7

마-1.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가능성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가능성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 이 8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타 변호사 등장’ (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 (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 법조인간 재판’ (37.7점), ‘AI와의 상담 선호’ (43.6점),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47.6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1>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가능성

(단위: %)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가능성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스타 변호사 등장	0.0	4.7	15.1	40.1	40.1	100.0	78.9
변호사 역할 증대	0.0	3.3	17.9	49.5	29.2	100.0	76.2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	0.5	2.4	12.3	42.0	42.9	100.0	81.1
법률 AI 등장	0.9	9.0	19.3	48.6	22.2	100.0	70.5
AI 법조인간 재판	19.3	35.8	23.6	17.0	4.2	100.0	37.7
AI와의 상담 선호	12.3	33.0	29.2	18.9	6.6	100.0	43.6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0.0	1.9	19.8	50.9	27.4	100.0	75.9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0.5	3.8	14.6	47.6	33.5	100.0	77.5
입법 관련 로비 활발	2.4	22.6	30.7	34.0	10.4	100.0	56.8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14.2	23.6	28.8	24.5	9.0	100.0	47.6
법률 AI 도입으로 양극화 심화	4.7	18.9	26.4	38.7	11.3	100.0	58.3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	2.4	12.3	20.3	47.6	17.5	100.0	66.4

마-2.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 이 7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법 관련 로비 활발’ (70.3점), ‘변호사 역할 증대’ (70.0점),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 (6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와의 상담 선호’ (59.7점),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61.1점), ‘AI 법조인간 재판’ (63.0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63.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2>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

(단위: %)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스타 변호사 등장	0.0	7.5	30.2	49.1	13.2	100.0	67.0
변호사 역할 증대	0.0	4.2	27.4	52.4	16.0	100.0	70.0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	0.5	5.2	25.0	49.5	19.8	100.0	70.8
법률 AI 등장	0.9	8.0	28.3	42.9	19.8	100.0	68.2
AI 법조인간 재판	9.9	13.2	20.3	28.3	28.3	100.0	63.0
AI와의 상담 선호	6.6	19.3	22.2	32.5	19.3	100.0	59.7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0.9	9.4	43.9	35.8	9.9	100.0	61.1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1.4	5.7	42.0	39.2	11.8	100.0	63.6
입법 관련 로비 활발	0.0	5.2	32.1	39.2	23.6	100.0	70.3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6.1	7.5	24.5	31.6	30.2	100.0	68.0
법률 AI 도입으로 양극화 심화	2.4	10.4	25.9	40.1	21.2	100.0	66.9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	0.9	6.6	27.8	44.3	20.3	100.0	69.1

바.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에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변호 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 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3>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단위: %)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응답 결과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에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변호 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	42.5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며 시민의 기술 수용성도 확대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볼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고 미래도 예측한다. 변호사는 과거 변호 업무보다 AI와 협업하며, 법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이슈 등을 찾는 데 더 바쁘다.	24.5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사회적 평판이 높은 스타 변호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로스쿨의 입학 및 졸업 문턱은 낮아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입한다. 이종 분야의 연결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활발하다.	16.5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증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	16.5

바-1.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증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 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4>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

(단위: %)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	응답 결과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증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	34.0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변호 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	31.1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사회적 평판이 높은 스타 변호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로스쿨의 입학 및 졸업 문턱은 낮아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입한다. 이종 분야의 연결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활발하다.	21.7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며 시민의 기술 수용성도 확대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볼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고 미래도 예측한다. 변호사는 과거 변호 업무보다 AI와 협업하며, 법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이슈 등을 찾는 데 더 바쁘다.	13.2

3. 미래 역량 요구도 분석

변호사들이 미래 직업 수행을 위해 각각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요도에 비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요구 분석을 하였다. 요구 분석이란 현재 수행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즉, 필요 수준(중요도) 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조대연, 2009), 요구도 분석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요구도} = \frac{\{\sum(\text{중요도} - \text{현재 수준})\} \times \text{중요도의 평균}}{\text{전체 사례 수}(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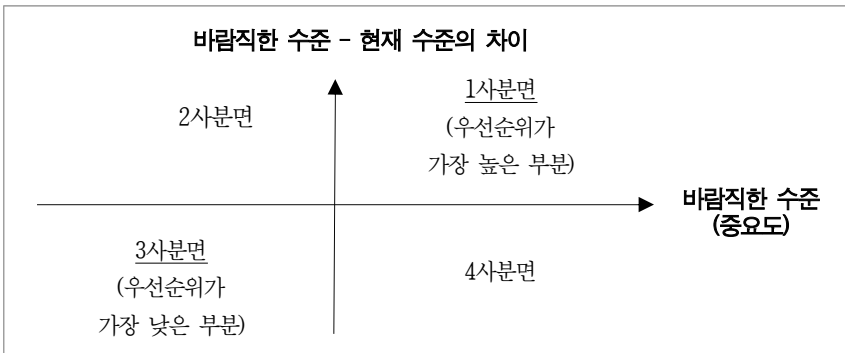
보리치 요구도 분석 결과,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5.68), 기술 활용 능력(5.04), 차별화 전략 능력(4.29),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4.26),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3.79)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변호사 미래 역량 요구도 분석

순번	미래 요구 역량	N	편차 합	편차 평균	중요도 평균	보유도 평균	보리치 요구도	보리치 순위
1	언어력(한국어)	212	128	0.60	4.30	3.69	2.59	16
2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212	178	0.84	4.43	3.59	3.72	6
3	법률 지식	212	170	0.80	4.22	3.42	3.38	8
4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212	176	0.83	4.29	3.46	3.56	7
5	업무 윤리성	212	51	0.24	4.06	3.82	0.98	19
6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212	282	1.33	4.27	2.94	5.68	1
7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212	184	0.87	4.37	3.50	3.79	5
8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212	213	1.00	4.24	3.24	4.26	4
9	기업가 정신	212	186	0.88	3.73	2.85	3.27	10
10	기술 활용 능력	212	262	1.24	4.08	2.84	5.04	2
11	외국어 능력	212	101	0.48	3.50	3.02	1.67	17
12	다양성 포용력	212	45	0.21	3.80	3.58	0.81	20
13	미래 예측력	212	152	0.72	3.82	3.10	2.74	15
14	위기 대처능력	212	169	0.80	4.17	3.37	3.32	9
15	이종 학문 분야 학습 및 다학제 간 지식 융합력	212	178	0.84	3.85	3.01	3.24	11
16	자기주도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212	81	0.38	3.74	3.35	1.43	18
17	차별화 전략 능력	212	219	1.03	4.16	3.12	4.29	3
18	전체 조망력	212	161	0.76	4.23	3.47	3.21	12
19	통찰적 실행력	212	153	0.72	4.14	3.42	2.99	13
20	변화 수용력	212	144	0.68	4.19	3.51	2.85	14
평균				0.76	4.08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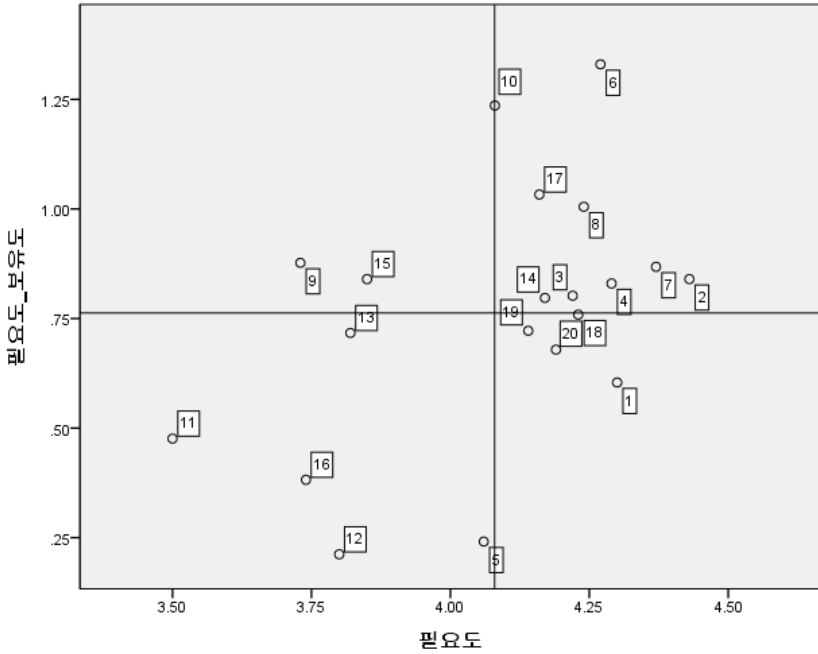
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바람직한 수준(중요도)을 가로축으로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행 수준의 차이를 세로축으로 하여, 좌표 평면에 표기하는 것으로, 1사분면은 바람직한 수준이 평균값보다 높고 두 수준의 차이 역시 평균값보다 높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3사분면의 경우, 바람직한 수준의 평균값보다 낮고, 두 수준의 차이 역시 평균값보다 낮으므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의 경우, 요구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우선순위를 1사분면에 두고 난 다음의 두 번째 우선순위를 2사분면으로 할 것인지, 4사분면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림 5-1] The Locus for Focu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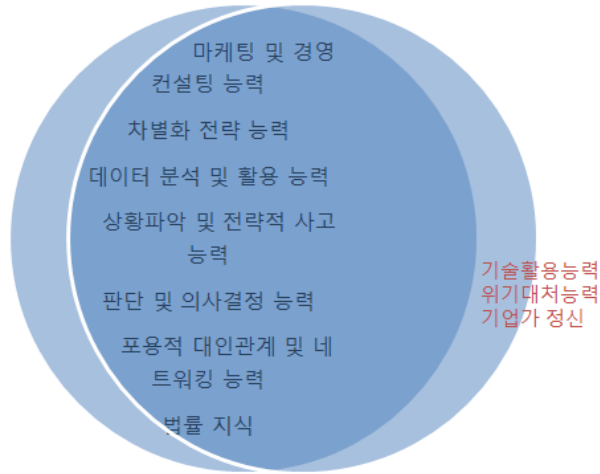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 결과, 1사분면에 해당하는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법률 지식,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The Locus for Focus 결과_ 미래 요구역량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미래 직업 수행을 위한 요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Borich의 요구도 상위 10개 역량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1사분면에 해당되는 공통 요소들을 교차 검증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3] 법률직 미래 요구 역량 종합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할 때, 미래에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법률 지식이 중요하게 도출되었다.

제3절 소결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변호사(141명), 법학전문대학원생(71명)을 대상으로 법률시장의 변화, 미래 직무 변화 및 새롭게 수행할 신(新)직무, 미래 요구 역량에 관한 요구 역량을 파악하여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변화상의 타당성 검증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으로 2020년 9월 24일부터 동년 10월 31일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했다.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를 예측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는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50.5%)이었고, 미래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8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74.2점),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72.8점),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7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3순위를 합산한 결과, ‘변호사 수 증가’가 8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 (40.6%),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35.4%),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소·심판 등의 제기 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 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이 5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55.8점),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5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48.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해 ‘부동산’이라는 응답이 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부동산 열풍과 우리나라의 협소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인공지능’과 ‘일반 법률 자문’ (각각 7건), ‘계약서 자문’과 ‘기업체 자문’ (각각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8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84.2점), ‘언어력(한국어)’(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8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능력’(62.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어력(한국어)’(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 ‘다양성 포용력’(6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타 변호사 등장’(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AI 법조인간 재판’(37.7점), ‘AI와의 상담 선호’(43.6점),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47.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시 사회 영향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이 7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법 관련 로비 활발’(70.3점), ‘변호사 역할 증대’(70.0점),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6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와의 상담 선호’(59.7점),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61.1점), ‘AI 법조인간 재판’(63.0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63.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에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변호 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중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 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미래 직업 수행을 위해 각각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요도에 비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요구 분석을 하였다.

먼저 보리치 요구도 분석 결과,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5.68), 기술 활용 능력(5.04), 차별화 전략 능력(4.29),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4.26),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3.79)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1사분면에 해당하는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법률 지식,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석을 종합할 때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법률 지식이 공통으로 미래에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1. 선행문헌 고찰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의미하고,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관련이 깊은 제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체계적 지식을 응용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profession)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구식의 근대적 변호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05년 ‘변호사법’ 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근대적 법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피고인 스스로 죄 없음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임무를 맡은 변호사는 자연히 대중들의 선망과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전문직을 대표하는 ‘사’ 자 직업을 이끌던 변호사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이 깊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로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가 매년 1,500여 명씩 급증하면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조만간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가 6조 3,437억 원으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꾸준히 연간 4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87.2%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014년 67.6%, 2016년 55.2%로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 최근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로부터 합격률은 53.3%로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법률 서비스는 전문성, 복잡성, 대면성 등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변호사들 역시 신기술의 등장과 해당 기술의 사용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가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유인은 업무 처리의 효율성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사람에 의한 업무처리에 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생긴다. 인공지능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찾아줌으로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변호사의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법제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법률과 판례의 변화와 동향 등을 반영하며, 쉬지 않고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최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직접적인 활용 주체인 변호사의 경우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위기감과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변호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견해, 나아가 인공지능과 변호사의 협업 모델이 줄 수 있는 혁신의 수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 긍정적

인 태도 역시 적지 않다.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며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그 자체로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쟁 해결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법률 전문가들 역시 결국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배워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해외 사례 분석

변호사의 해외 사례 분석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법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송, 변론, 공증, 자문 등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이고, 경제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법률 규제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해외 글로벌 경제체제의 확대에 따른 국가 간 법률 차이에 따른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법률시장은 인간 중심의 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가,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에 의해 리절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서,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된 기술 서비스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기술 변화를 법률 서비스에 접목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의 확장과 변호사의 역량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앞으로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정보 검색이나 판례 분석 등은 인공지능화된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소송 의뢰인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률시장은 여전히 국내 시장의 법률 수요에만 초점을 맞춰 성장하고 있다. 일부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 개설을 통한 해외 진출, 국제 분쟁을 염두에 둔 소송 서비스 기능 강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등에 관심을 두고 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은 소형 법률사무소 위주의 법률 서비스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 로펌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시장 확대와 진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법률 서비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기존 서비스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국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제도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변호사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만을 습득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다.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 상당한 기간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에 법률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시험의 경우에도 단순한 암기 위주의 양성방법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전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이러한 과정을 적절하게 이수하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변호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을 중심으로 현장성 높은 교육을 하고, 엄격한 시험관리와 자격체제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법률시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공이 상이하거나 해외에서 일정한 법학지식을 쌓았을 경우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확대하여 법률시장의 인력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모델의 역량 요인들이 현장에서 통용 가능하고 실제적인 수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모델을 수정하고, 로스쿨의 교육모형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변호사도 다양한 경제, 산업,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한 역량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체제인 로스쿨의 선발, 양성, 활용단계들이 체계적이고 현실지향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선발의 경우에도 현재의 역량보다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로스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나 시험성적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인성과 품성을 갖추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성체제의 경우에도 실무 현장에 바로 진출하여서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과 인턴십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의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건, 소송, 의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역량을 갖춘 제너럴리스트보다는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변호사가 일하게 될 환경은 기존에 로스쿨의 양성단계에서 학습한 경험이 없는 사건이나 소송 등이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직으로서 미래 역량을 갖춘 변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로스쿨에서 학습한 내용들은 불과 5~10년 이내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더욱이 기술 발전에 따라 리걸테크 기업들에 의한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수록 변호사의 직무와 경쟁력이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 분야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모습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습 역량과 경력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재교육 외에도 변화하는 사회상과 기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구축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임용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는 주목하지 않는 특정한 내용이나 분야일지라도,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호사 개인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 체제나 자격 연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해외 사례 분석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의 법률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법률시장 분석은 로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 외에도 법조 인력 혹은 변호사가 로펌 이외의 분야에서

가치를 높인 모든 비용들을 반영하여 법률시장 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통계정보가 구축될 수 있다면, 법률시장 확장의 가능성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로펌 외에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규모나 서비스 현황들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법률직의 미래 전망

미래 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을 확정했다.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정하는 방향과 여전히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변수로 법률 시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는 방향과 전통과 안정을 고수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축으로 교차시켜 네 가지의 미래적 상황을 도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미래: 융합/도전, 인간(중심) 결정

A미래는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결정을 중심에 두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일부에서 발견된다. 이 미래사회는 기술의 의존을 경계하면서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무환경은 사회적 평판이 높은 스타 변호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로스쿨의 문턱은 낮아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률시장에 진입해 활동한다. 이 중 분야의 연결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된다. 예를 들면 의료전문 변호사, 가상세계의 아바타 케어 전문 변호사 등이다. 이 사회에서 변호사는 융합력, 마케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무실 중심 변호사 시장이 사라지면서 변호사 개개인의 홍보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해진다.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변호사가 스타 변호사로 떠오른다.
-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반영한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의 범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이 증가한다. 기업의 약관이 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커진다.

- 변호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4시간 상담해주는 서비스나 고객 맞춤형 플랫폼 등 더욱 간편하고 접근이 쉬운 법률 서비스가 등장한다.

나. B미래: 융합/도전, 기술(중심) 결정

B미래는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면서 기술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사회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력이 높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인공지능으로 대부분의 법률사무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기술 수준이 높다. 미래도 예측한다.

B미래에서 변호사들은 전통적 변호 업무보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일이 중심이다. 법률 분야의 이머징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예상한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탐색하고 갈등 조정 업무가 중시된다. 변호사들은 기술 활용력이나 조정과 대안 제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터넷 기사, 댓글, SNS 등 국민의 여론을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는 법률 AI가 등장한다.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미래 예측도 시도하며, 변호사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중요한 자료로 취급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 사람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AI 법조인 간의 재판이 열린다.
- 의뢰인들은 편견이 없는 AI와의 법률 상담을 사람 변호사와의 상담보다 선호한다.

다. C미래: 전통/안정, 인간(중심) 결정

C미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고, 인간의 최종 결정을 믿는다.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이 장려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선에서 그친다. 인공지능은 판례를 수집하거나 요약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는 판례 해석력, 고객과 공감 중심의 소통력을 향상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전히 대면 업무가 중요하며 의뢰인의 성향에 맞는 소통 능력이 중시된다. 법률 상담과 함께 공감 능력도 변호사의 주요 역량이다. 변호사의 업무에서 심리 상담도 주요 업무다.
- 법률 AI가 등장하지만 판단과 결정 영역은 여전히 사람이 담당한다. AI는 판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 입법 관련 로비스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로비를 뇌물로 인식하는 정서 대신 자연스러운 경쟁이라고 보고 로비 활동 합법화가 추진된다.

라. D미래: 전통/안정, 기술(중심) 결정

D미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들의 기술 수용력도 높다. 사회는 다소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해 변호사 외에 법률 사무직은 거의 사라진다. 인공지능은 다수의 의견과 기존의 판례를 중시한 결론을 내린다.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로펌들이 시장을 장악한다.

변호사들은 인공지능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활동한다. 이들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 활용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무조건 승소가 목적이다.

이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거대 AI가 등장해 전 세계 법률시장을 독점한다. 국가 간 법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 법률, 규제 방향이 비슷해진다.
- 법률 AI의 능력에 따른 격차가 생긴다. 기존에 부를 쌓은 법률사무소가 시스템이 뛰어난 법률 AI를 도입하면서 승소율이 높아진다. 변호사 간에 양극화가 심화된다.
-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는 법률 AI 활용이 보편화된다. 기존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흡수하여 AI의 판결에서도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이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4. 법률직의 미래 인식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변호사(141명), 법학전문대학원생(71명)을 대상으로 법률시장의 변화, 미래 직무 변화 및 새롭게 수행할 신(新)직무, 미래 요구 역량에 관한 요구 역량을 파악하여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변화상의 타당성 검증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0년 9월 24일부터 동년 10월 31일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했다.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를 예측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는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50.5%)이었고, 미래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8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74.2점),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72.8점),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7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3순위를 합산한 결과, ‘변호사 수 증가’가 8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 (40.6%),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35.4%),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 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이 5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55.8점),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5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48.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해 ‘부동산’이라는 응답이 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부동산 열풍과 우리나라의 협소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인공지능’과 ‘일반 법률 자문’ (각각 7건), ‘계약서 자문’과 ‘기업체 자문’ (각각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8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84.2점), ‘언어력(한국어)’ (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8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능력’ (62.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어력(한국어)’ (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64.9점), ‘다양성 포용력’ (6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타 변호사 등장’ (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 (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AI 법조인간 재판’ (37.7점), ‘AI와의 상담 선호’ (43.6점),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47.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시 사회 영향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이 7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법 관련 로비 활발’ (70.3점), ‘변호사 역할 증대’ (70.0점),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 (6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와의 상담 선호’ (59.7점),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61.1점), ‘AI 법조인간 재판’ (63.0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63.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에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변호 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중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 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미래 직업 수행을 위해 각각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요도에 비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요구 분석을 하였다.

먼저 보리치 요구도 분석 결과,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5.68), 기술 활용 능력(5.04), 차별화 전략 능력(4.29),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4.26),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3.79)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1사분면에 해당하는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법률 지식,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석을 종합할 때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법률 지식이 공통적으로 미래에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제2절 결론 및 제언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을 말하는데, 변호와 같은 법률 전문직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변호사와 관련된 문헌 및 해외 사례 분석, 미래 워크숍과 전문가 인식 조사를 통해 향후 미래에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직이 미래 직업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의 근대 변호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지난 한 세기 동안 변호사를 위시한 법률 전문직은 일반 대중들의 선망과 관심이 집중되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내에서 배출되는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사건 수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는 인간사의 복잡 미묘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복잡성, 대면성과 더불어 사회적 통용성이 중요하므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시장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그 자체의 속성으로 위협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분쟁의 대상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학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변호사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단순 반복적인 과업의 경우 사람에게 의한 업무 처리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결과는 확증 편향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새로운 사회 가치의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인간 변호사의 결정과 이에 따른 책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 체계와 시대 정신을 읽고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학습이 요구된다.

둘째, 변호사의 해외 사례 분석으로부터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인 소송, 변론, 공증, 자문 등의 업무는 유지되는 반면, 새로운 법률 규제나 글로벌 경제 체제의 확대에 따른 국가 간 법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변호사 공급의 과잉만을 우려하는 소극적 시장에서 탈피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가 도입되면서 전통적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던 단순한 법률정보 검색이나 판례 분석과 같은 정형된 것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고 있고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사는 소송 의뢰인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법률 선진국들은 로스쿨을 중심으로 현장성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와 자격체제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법률시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도 다양한 경제, 산업,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한 역량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체제인 로스쿨의 선발, 양성, 활용단계들이 체계적이고 현실지향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양성체제 역시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의 교육과정을 확대하며, 특히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서 미래 역량을 갖춘 변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의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재교육 외에도, 변화하는 사회상과 기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보수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자격 연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미래 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결정하는 방향, 여전히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향, 법률시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는 방향, 전통과 안정을 고수하는 방향을 축으로 융합/도전, 인간(중심) 결정, 융합/도전, 기술(중심) 결정, 전통/안정, 인간(중심) 결정, 전통/안정, 기술(중심) 결정의 네 가지의 미래적 상황을 도출했다. 이러한 다양한 미래 ‘들’이 펼쳐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

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넷째,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법률시장의 변화, 미래 직무 변화 및 새롭게 수행할 신(新)직무, 미래 요구 역량에 관한 요구 역량을 파악하여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변화상의 타당성 검증하고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인식을 도출할 수 있다.

향후 미래의 법률시장은 수요 측면에서 신규 법률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고 스타 변호사가 등장하며, 이에 비해 공급 측면에서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심층적 법리 해석 및 전략 수립 판단과 의사결정 및 이에 따른 책임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업무 수행의 범위로 기존의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지금과 같이 수행할 것으로 보수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같은 새로운 법률 서비스 영역을 수행하면서 유사 직역과의 업무 영역 중첩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래 수행 요구 역량과 현재의 준비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법률 지식’이 미래에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에 법률 전문직을 지망하거나 해당 영역에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전문직의 양성 및 활용 과정에서 경제 사회 및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유연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재교육 및 자격

연수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업역의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을 필두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제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및 국내 법률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략적 마케팅 능력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문제 상황의 인식 및 파악 능력,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윤리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방식 역시 최근의 다양한 산업 현장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논박하는 실습 중심의 체험형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산업이 융·복합화되고 업무 영역이 중첩되면서 법률 전문직과 다른 직역과의 갈등도 예견된다. 앞서 새로운 법률 서비스 영역으로 꼽혔던 부동산이나 기존의 세무 영역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문화 예술이나 지적재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예견되는 업역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선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향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전문직 내의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미래 지향적인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양방향 개방형 법률 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시계 편집부. (2019). [법무뉴스] 백수변호사, 폐업 의사... 잘나가던 ‘사’ 자의 추락. 고시계, 64(6), 257-261.
- 고영미(2016)의 각 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에 관한 2차 연구. 법무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STEPI 미래연구용어집』.
- 김경민(2017). “법에 기반한 근대 사회와 변호사 - 인물의 탄생: 1920~30년대 소설에 재현된 변호사-인물을 중심으로-”
- 김도훈. (2018).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소고. 미국헌법연구, 29(3), 241-272.
- 마츠 린드그렌, 한스 반드홀드, 「시나리오 플래닝」, 이주명 역(2006), 필맥.
- 박병원 외(2012),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Ⅳ』,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50-59.
- 박종수·김상중·정채연(2013). 각 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에 관한 연구. 법무부.
- 박종현·윤경수·윤지용·이지은(2020).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법무부.
- 법률신문(2018.10.22.). 해외 로펌의 매출액 순위.
- 법률신문(2019.10.14.). 세계 법률시장 고속 성장세…변호사 1만 명 로펌 눈앞.
- 샘 케이너, 레니 린드, 캐서린 톨디, 사라 피스크, 두에인 버거, 「민주적 결정방법론」, 구기욱 역(2017), KOOFA BOOKs.
- 서울경제신문(2019.11.4.). 법률시장 개방 7년... 기 못펴는 외국계 로펌.
- 설민수(2017).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둘러싼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경쟁과 독점 법률사무의 범위 결정 요인. 법제논단, 6월호, pp.10-39.
- 유주성(20105). 프랑스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공동 심포지엄.
- 이코노미조선(2020.6.22.). 로펌의 세계 시리즈.
- 전학선(2016). 프랑스에서의 변호사 선발과 직무. 외법논집, 제40권 4호, pp. 287~312.
- 최병삼 외(2018),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X』,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03~272.
- 최석우 외(2019), 『해양수산 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pp. 62~6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선기(2015).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법학논총, 제28권 1호, 115~156쪽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홍성수(2016).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81~114쪽,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acritas.com>

<http://www.marketline.com>

<http://www.marketresearch.com>

<http://www.moj.go.kr/moj/441/subview.do>

<http://www.statista.com>

<https://cpled.ca/about-cpled/competency-framework>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pros&logNo=1014977374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https://www.ie.edu/law-school/news-events/news/t-shaped-lawyers-taking-legal-industry>

<https://www.legal500.com/c/france/legal-market-overview>

<https://www.legalevolution.org/2019/11/the-delta-model-simple-accurate-versatile-125>

<https://www.marketresearch.com>

<https://www.prospects.ac.uk/jobs-and-work-experience/job-sectors/law-sector/7-skills-for-a-successful-law-career>

<https://www.rechtsanwalt-lee.de/ko/unsere-leistungen-245.html>

Law.com(2019). The American Lawyer 2019 The Global 100. Retrieved 2020.7.26. from <https://www.law.com/americanlawyer/2019/09/24/the-2019-global-100/>

Müllert, N., R. Jungk, and Institute for Social Inventions(1987), London (United Kingdom), Future Work-shops: How to create desirable futures.

Popper, R.(2008), “Foresight Methodology” , The Handbook of Technology Foresight, p. 66.

ResearchAndMarkets.com(2019). Legal Services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Retrieved 2020.7.28. from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reports/4871383/legal-services-market-size-share-and-trends>

ResearchAndMarkets.com(2020). The Lawyer UK 200: The Top Firms and the UK 200: The Independents. Retrieved 2020, 8.20 from <https://www.thelawyer.com/reports/uk-200-the-independents-2019/>

ResearchAndMarkets.com(2020). UK Legal Services Market Trends Report 2019. Retrieved 2020,8.20 from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reports/4755264/uk-legal-services-market-trends-report-2019>.

Thomson Reuters Legal Executive Institute & the Georgetown Law Center on Ethics and the Legal Profession(2020). 2020 Report on the State of the Legal Market Retrieved 2020.7.28. from <https://www.legalexecutiveinstitute.com/2020-legal-market-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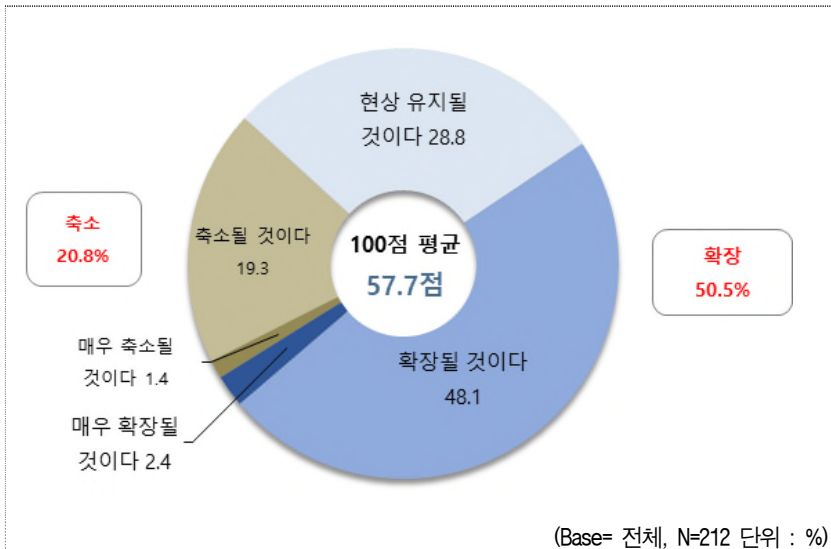
부록. 법률직 미래 설문조사 주요 결과

1.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예상

Q1. 향후 5년 이내에 법률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 예상으로 ‘확장’ (확장될 것이다: 48.1%+매우 확장될 것이다: 2.4%)이 5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 (축소될 것이다: 19.3%+매우 축소될 것이다: 1.4%)는 20.8%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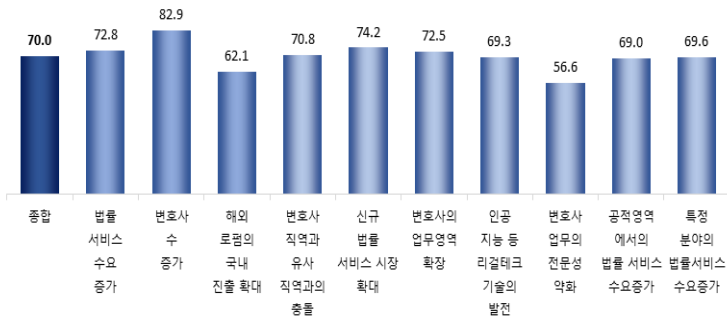
		사례 수 (명)	매우 축소될 것이다	축소될 것이다	현상 유지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매우 확장될 것이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1.4	19.3	28.8	48.1	2.4	100.0	57.7
소속	변호사	141	1.4	21.3	29.1	46.8	1.4	100.0	56.4
	대학원생	71	1.4	15.5	28.2	50.7	4.2	100.0	60.2
성별	남성	134	1.5	22.4	28.4	44.0	3.7	100.0	56.5
	여성	78	1.3	14.1	29.5	55.1	0.0	100.0	59.6
나이	20대	58	0.0	10.3	29.3	56.9	3.4	100.0	63.4
	30대	94	2.1	22.3	25.5	48.9	1.1	100.0	56.1
	40대	48	2.1	22.9	31.3	41.7	2.1	100.0	54.7
	50대 이상	12	0.0	25.0	41.7	25.0	8.3	100.0	54.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6.1	24.7	54.8	3.2	100.0	60.8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23.3	33.3	40.0	0.0	100.0	52.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3.4	27.7	48.9	0.0	100.0	56.4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16.1	35.5	41.9	3.2	100.0	56.5
	20년 이상	11	0.0	27.3	36.4	27.3	9.1	100.0	54.5
지역	서울	79	2.5	21.5	27.8	48.1	0.0	100.0	55.4
	부산	4	0.0	25.0	25.0	50.0	0.0	100.0	56.3
	대구	5	0.0	0.0	40.0	60.0	0.0	100.0	65.0
	인천	6	0.0	66.7	0.0	33.3	0.0	100.0	41.7
	대전	14	0.0	14.3	50.0	28.6	7.1	100.0	57.1
	광주	31	0.0	16.1	22.6	51.6	9.7	100.0	63.7
	울산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경기	10	0.0	30.0	40.0	30.0	0.0	100.0	50.0
	강원	18	5.6	11.1	33.3	50.0	0.0	100.0	56.9
	충북	6	0.0	16.7	33.3	50.0	0.0	100.0	58.3
	충남	8	0.0	0.0	25.0	75.0	0.0	100.0	68.8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17.6	23.5	58.8	0.0	100.0	60.3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2.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종합-

Q2. 다음의 각 항목은 미래 법률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변호사 수 증가’가 8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74.2점),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72.8 점),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7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업무 전문성 약화’ (56.6점)와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확대’ (62.1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Base= 전체, N=212 단위 : %)

응답자 특성

(단위: 점)

	사례 수 (명)	종합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변호사 수 증가	해외법의 국내 진출 확대	변호사 지역 과 유사 지역 과의 충돌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변호사 업무 확장	인공지능 등 리걸 테크 기술의 발전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약화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특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전체]	212	70.0	72.8	82.9	62.1	70.8	74.2	72.5	69.3	56.6	69.0	69.6
소속	변호사	141	69.1	69.7	85.1	60.5	72.9	72.2	70.6	69.1	57.8	66.1
	대학원생	71	71.7	78.9	78.5	65.5	66.5	78.2	76.4	69.7	54.2	74.6
성별	남성	134	69.8	71.8	82.5	62.5	70.7	73.3	72.0	71.1	57.1	68.3
	여성	78	70.3	74.4	83.7	61.5	70.8	75.6	73.4	66.3	55.8	70.2
나이	20대	58	72.4	78.0	80.6	67.2	66.8	78.0	75.9	72.8	56.9	73.7
	30대	94	69.5	74.5	82.4	59.8	72.3	74.5	74.5	66.2	54.0	68.4
	40대	48	68.5	65.1	87.0	59.9	71.4	72.4	67.2	71.4	58.9	66.1
	50대 이상	12	67.3	64.6	81.3	64.6	75.0	60.4	62.5	68.8	66.7	62.5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72.3	77.4	82.0	65.3	69.1	77.7	76.9	71.2	55.4	74.2
	3년 이상~5년 미만	30	67.2	70.0	80.8	59.2	73.3	72.5	70.0	62.5	52.5	6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68.4	71.8	83.5	59.6	69.7	71.8	70.2	67.0	55.9	66.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69.0	64.5	87.1	58.9	73.4	72.6	66.9	75.0	62.9	65.3
	20년 이상	11	68.0	68.2	81.8	63.6	75.0	63.6	68.2	65.9	63.6	61.4
지역	서울	79	69.6	71.2	86.1	61.4	72.5	73.1	70.9	68.0	59.5	65.5
	부산	4	73.8	68.8	93.8	56.3	75.0	75.0	75.0	87.5	56.3	75.0
	대구	5	64.0	65.0	80.0	50.0	70.0	75.0	70.0	50.0	35.0	70.0
	인천	6	63.8	70.8	83.3	50.0	66.7	66.7	70.8	54.2	54.2	58.3
	대전	14	74.3	75.0	78.6	73.2	73.2	78.6	80.4	73.2	58.9	75.0
	광주	31	71.3	75.8	79.0	69.4	66.1	74.2	73.4	71.0	54.0	75.8
	울산	3	65.8	66.7	83.3	75.0	75.0	66.7	58.3	75.0	58.3	50.0
	경기	10	70.0	70.0	82.5	75.0	80.0	70.0	70.0	77.5	50.0	65.0
	강원	18	70.3	79.2	75.0	58.3	70.8	75.0	76.4	65.3	54.2	73.6
	충북	6	70.0	75.0	91.7	58.3	75.0	70.8	70.8	66.7	58.3	62.5
	충남	8	70.9	75.0	84.4	62.5	71.9	78.1	71.9	75.0	56.3	68.8
	전북	3	64.2	75.0	75.0	41.7	83.3	75.0	75.0	41.7	50.0	66.7
	전남	17	69.3	75.0	80.9	57.4	57.4	79.4	72.1	73.5	54.4	72.1
	경북	2	70.0	75.0	75.0	50.0	62.5	75.0	75.0	75.0	75.0	75.0
	경남	3	75.0	58.3	100.0	33.3	66.7	91.7	91.7	83.3	66.7	75.0
제주	3	68.3	58.3	83.3	66.7	91.7	58.3	58.3	75.0	66.7	66.7	

2. 1)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3.8	18.4	60.8	17.0	100.0	72.8
소속	변호사	141	0.0	4.3	27.0	54.6	14.2	100.0	69.7
	대학원생	71	0.0	2.8	1.4	73.2	22.5	100.0	78.9
성별	남성	134	0.0	4.5	20.9	57.5	17.2	100.0	71.8
	여성	78	0.0	2.6	14.1	66.7	16.7	100.0	74.4
나이	20대	58	0.0	1.7	10.3	62.1	25.9	100.0	78.0
	30대	94	0.0	3.2	13.8	64.9	18.1	100.0	74.5
	40대	48	0.0	6.3	33.3	54.2	6.3	100.0	65.1
	50대 이상	12	0.0	8.3	33.3	50.0	8.3	100.0	64.6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2.2	7.5	68.8	21.5	100.0	77.4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23.3	53.3	16.7	100.0	7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27.7	57.4	14.9	100.0	71.8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9.7	32.3	48.4	9.7	100.0	64.5
	20년 이상	11	0.0	9.1	18.2	63.6	9.1	100.0	68.2
지역	서울	79	0.0	5.1	20.3	59.5	15.2	100.0	71.2
	부산	4	0.0	25.0	25.0	0.0	50.0	100.0	68.8
	대구	5	0.0	0.0	60.0	20.0	20.0	100.0	65.0
	인천	6	0.0	0.0	16.7	83.3	0.0	100.0	70.8
	대전	14	0.0	0.0	28.6	42.9	28.6	100.0	75.0
	광주	31	0.0	6.5	3.2	71.0	19.4	100.0	75.8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30.0	60.0	10.0	100.0	70.0
	강원	18	0.0	0.0	0.0	83.3	16.7	100.0	79.2
	충북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충남	8	0.0	0.0	25.0	50.0	25.0	100.0	75.0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5.9	5.9	70.6	17.6	100.0	75.0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2. 2)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변호사 수 증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1.9	4.7	51.4	41.5	100.0	82.9	
소속	변호사	141	0.7	0.7	4.3	46.1	48.2	100.0	85.1
	대학원생	71	0.0	4.2	5.6	62.0	28.2	100.0	78.5
성별	남성	134	0.0	2.2	6.0	51.5	40.3	100.0	82.5
	여성	78	1.3	1.3	2.6	51.3	43.6	100.0	83.7
나이	20대	58	0.0	3.4	6.9	53.4	36.2	100.0	80.6
	30대	94	1.1	1.1	5.3	52.1	40.4	100.0	82.4
	40대	48	0.0	0.0	2.1	47.9	50.0	100.0	87.0
	50대 이상	12	0.0	8.3	0.0	50.0	41.7	100.0	81.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2.2	4.3	57.0	36.6	100.0	82.0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3.3	6.7	40.0	46.7	100.0	8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6.4	53.2	40.4	100.0	83.5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3.2	45.2	51.6	100.0	87.1
	20년 이상	11	0.0	9.1	0.0	45.5	45.5	100.0	81.8
지역	서울	79	1.3	0.0	2.5	45.6	50.6	100.0	86.1
	부산	4	0.0	0.0	0.0	25.0	75.0	100.0	93.8
	대구	5	0.0	0.0	0.0	80.0	20.0	100.0	80.0
	인천	6	0.0	0.0	16.7	33.3	50.0	100.0	83.3
	대전	14	0.0	7.1	7.1	50.0	35.7	100.0	78.6
	광주	31	0.0	0.0	6.5	71.0	22.6	100.0	79.0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10.0	0.0	40.0	50.0	100.0	82.5
	강원	18	0.0	5.6	5.6	72.2	16.7	100.0	75.0
	충북	6	0.0	0.0	0.0	33.3	66.7	100.0	91.7
	충남	8	0.0	0.0	12.5	37.5	50.0	100.0	84.4
	전북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전남	17	0.0	5.9	5.9	47.1	41.2	100.0	80.9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0.0	0.0	100.0	100.0	100.0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2. 3)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확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13.7	31.6	45.3	9.0	100.0	62.1	
소속	변호사	141	0.7	14.2	36.2	40.4	8.5	100.0	60.5
	대학원생	71	0.0	12.7	22.5	54.9	9.9	100.0	65.5
성별	남성	134	0.0	14.9	32.1	41.0	11.9	100.0	62.5
	여성	78	1.3	11.5	30.8	52.6	3.8	100.0	61.5
나이	20대	58	0.0	13.8	19.0	51.7	15.5	100.0	67.2
	30대	94	1.1	14.9	35.1	41.5	7.4	100.0	59.8
	40대	48	0.0	12.5	39.6	43.8	4.2	100.0	59.9
	50대 이상	12	0.0	8.3	33.3	50.0	8.3	100.0	64.6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2.9	23.7	48.4	14.0	100.0	65.3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16.7	36.7	40.0	6.7	100.0	59.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4.9	36.2	44.7	4.3	100.0	59.6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12.9	41.9	41.9	3.2	100.0	58.9
	20년 이상	11	0.0	9.1	36.4	45.5	9.1	100.0	63.6
지역	서울	79	0.0	16.5	32.9	39.2	11.4	100.0	61.4
	부산	4	0.0	25.0	25.0	50.0	0.0	100.0	56.3
	대구	5	20.0	0.0	40.0	40.0	0.0	100.0	50.0
	인천	6	0.0	16.7	66.7	16.7	0.0	100.0	50.0
	대전	14	0.0	0.0	28.6	50.0	21.4	100.0	73.2
	광주	31	0.0	6.5	19.4	64.5	9.7	100.0	69.4
	울산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경기	10	0.0	0.0	10.0	80.0	10.0	100.0	75.0
	강원	18	0.0	22.2	27.8	44.4	5.6	100.0	58.3
	충북	6	0.0	16.7	33.3	50.0	0.0	100.0	58.3
	충남	8	0.0	12.5	25.0	62.5	0.0	100.0	62.5
	전북	3	0.0	66.7	0.0	33.3	0.0	100.0	41.7
	전남	17	0.0	11.8	52.9	29.4	5.9	100.0	57.4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66.7	33.3	0.0	0.0	100.0	33.3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2. 4)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4.7	24.5	51.9	18.4	100.0	70.8	
소속	변호사	141	0.0	2.1	25.5	51.1	21.3	100.0	72.9
	대학원생	71	1.4	9.9	22.5	53.5	12.7	100.0	66.5
성별	남성	134	0.7	5.2	23.9	50.7	19.4	100.0	70.7
	여성	78	0.0	3.8	25.6	53.8	16.7	100.0	70.8
나이	20대	58	1.7	8.6	24.1	51.7	13.8	100.0	66.8
	30대	94	0.0	4.3	22.3	53.2	20.2	100.0	72.3
	40대	48	0.0	2.1	31.3	45.8	20.8	100.0	71.4
	50대 이상	12	0.0	0.0	16.7	66.7	16.7	100.0	75.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8.6	21.5	50.5	18.3	100.0	69.1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23.3	50.0	23.3	100.0	73.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31.9	51.1	14.9	100.0	69.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25.8	54.8	19.4	100.0	73.4
	20년 이상	11	0.0	0.0	18.2	63.6	18.2	100.0	75.0
지역	서울	79	0.0	3.8	25.3	48.1	22.8	100.0	72.5
	부산	4	0.0	0.0	25.0	50.0	25.0	100.0	75.0
	대구	5	0.0	0.0	20.0	80.0	0.0	100.0	70.0
	인천	6	0.0	0.0	33.3	66.7	0.0	100.0	66.7
	대전	14	0.0	0.0	21.4	64.3	14.3	100.0	73.2
	광주	31	3.2	6.5	25.8	51.6	12.9	100.0	66.1
	울산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경기	10	0.0	0.0	10.0	60.0	30.0	100.0	80.0
	강원	18	0.0	0.0	27.8	61.1	11.1	100.0	70.8
	충북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충남	8	0.0	0.0	12.5	87.5	0.0	100.0	71.9
	전북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전남	17	0.0	29.4	23.5	35.3	11.8	100.0	57.4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66.7	0.0	33.3	100.0	66.7
	제주	3	0.0	0.0	0.0	33.3	66.7	100.0	91.7

2. 5)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1.9	15.1	65.6	17.0	100.0	74.2
소속	변호사	141	0.7	2.8	19.1	61.7	15.6	100.0	72.2
	대학원생	71	0.0	0.0	7.0	73.2	19.7	100.0	78.2
성별	남성	134	0.0	3.0	18.7	60.4	17.9	100.0	73.3
	여성	78	1.3	0.0	9.0	74.4	15.4	100.0	75.6
나이	20대	58	0.0	0.0	8.6	70.7	20.7	100.0	78.0
	30대	94	1.1	1.1	13.8	67.0	17.0	100.0	74.5
	40대	48	0.0	4.2	18.8	60.4	16.7	100.0	72.4
	50대 이상	12	0.0	8.3	41.7	50.0	0.0	100.0	60.4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1.1	7.5	71.0	20.4	100.0	77.7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0.0	20.0	56.7	20.0	100.0	72.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17.0	72.3	8.5	100.0	71.8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25.8	48.4	22.6	100.0	72.6
	20년 이상	11	0.0	9.1	27.3	63.6	0.0	100.0	63.6
지역	서울	79	1.3	3.8	15.2	60.8	19.0	100.0	73.1
	부산	4	0.0	0.0	0.0	100.0	0.0	100.0	75.0
	대구	5	0.0	0.0	20.0	60.0	20.0	100.0	75.0
	인천	6	0.0	0.0	33.3	66.7	0.0	100.0	66.7
	대전	14	0.0	7.1	7.1	50.0	35.7	100.0	78.6
	광주	31	0.0	0.0	9.7	83.9	6.5	100.0	74.2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30.0	60.0	10.0	100.0	70.0
	강원	18	0.0	0.0	11.1	77.8	11.1	100.0	75.0
	충북	6	0.0	0.0	16.7	83.3	0.0	100.0	70.8
	충남	8	0.0	0.0	25.0	37.5	37.5	100.0	78.1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0.0	11.8	58.8	29.4	100.0	79.4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0.0	33.3	66.7	100.0	91.7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2. 6)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2.8	18.9	61.8	16.0	100.0	72.5
소속	변호사	141	0.7	2.8	23.4	59.6	13.5	100.0	70.6
	대학원생	71	0.0	2.8	9.9	66.2	21.1	100.0	76.4
성별	남성	134	0.0	3.7	22.4	56.0	17.9	100.0	72.0
	여성	78	1.3	1.3	12.8	71.8	12.8	100.0	73.4
나이	20대	58	0.0	3.4	10.3	65.5	20.7	100.0	75.9
	30대	94	1.1	0.0	18.1	61.7	19.1	100.0	74.5
	40대	48	0.0	6.3	25.0	62.5	6.3	100.0	67.2
	50대 이상	12	0.0	8.3	41.7	41.7	8.3	100.0	62.5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2.2	10.8	64.5	22.6	100.0	76.9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0.0	23.3	60.0	13.3	100.0	7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25.5	61.7	10.6	100.0	70.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25.8	61.3	6.5	100.0	66.9
	20년 이상	11	0.0	9.1	27.3	45.5	18.2	100.0	68.2
지역	서울	79	1.3	3.8	21.5	57.0	16.5	100.0	70.9
	부산	4	0.0	0.0	0.0	100.0	0.0	100.0	75.0
	대구	5	0.0	0.0	40.0	40.0	20.0	100.0	70.0
	인천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대전	14	0.0	7.1	7.1	42.9	42.9	100.0	80.4
	광주	31	0.0	6.5	6.5	74.2	12.9	100.0	73.4
	울산	3	0.0	0.0	66.7	33.3	0.0	100.0	58.3
	경기	10	0.0	0.0	30.0	60.0	10.0	100.0	70.0
	강원	18	0.0	0.0	11.1	72.2	16.7	100.0	76.4
	충북	6	0.0	0.0	16.7	83.3	0.0	100.0	70.8
	충남	8	0.0	0.0	12.5	87.5	0.0	100.0	71.9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0.0	29.4	52.9	17.6	100.0	72.1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0.0	33.3	66.7	100.0	91.7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2. 7)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 발전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8.0	20.8	53.3	17.0	100.0	69.3
소속	변호사	141	0.0	9.2	22.0	51.8	17.0	100.0	69.1
	대학원생	71	2.8	5.6	18.3	56.3	16.9	100.0	69.7
성별	남성	134	0.7	9.0	15.7	54.5	20.1	100.0	71.1
	여성	78	1.3	6.4	29.5	51.3	11.5	100.0	66.3
나이	20대	58	3.4	3.4	17.2	50.0	25.9	100.0	72.8
	30대	94	0.0	11.7	23.4	53.2	11.7	100.0	66.2
	40대	48	0.0	4.2	25.0	52.1	18.8	100.0	71.4
	50대 이상	12	0.0	16.7	0.0	75.0	8.3	100.0	68.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2	6.5	17.2	52.7	21.5	100.0	71.2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10.0	36.7	46.7	6.7	100.0	62.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2.8	17.0	59.6	10.6	100.0	67.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25.8	48.4	25.8	100.0	75.0
	20년 이상	11	0.0	18.2	9.1	63.6	9.1	100.0	65.9
지역	서울	79	0.0	7.6	27.8	49.4	15.2	100.0	68.0
	부산	4	0.0	0.0	0.0	50.0	50.0	100.0	87.5
	대구	5	0.0	20.0	60.0	20.0	0.0	100.0	50.0
	인천	6	0.0	33.3	16.7	50.0	0.0	100.0	54.2
	대전	14	0.0	7.1	21.4	42.9	28.6	100.0	73.2
	광주	31	6.5	3.2	6.5	67.7	16.1	100.0	71.0
	울산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경기	10	0.0	0.0	10.0	70.0	20.0	100.0	77.5
	강원	18	0.0	11.1	27.8	50.0	11.1	100.0	65.3
	충북	6	0.0	0.0	33.3	66.7	0.0	100.0	66.7
	충남	8	0.0	0.0	25.0	50.0	25.0	100.0	75.0
	전북	3	0.0	66.7	0.0	33.3	0.0	100.0	41.7
	전남	17	0.0	11.8	11.8	47.1	29.4	100.0	73.5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제주	3	0.0	0.0	0.0	100.0	0.0	100.0	75.0	

2. 8)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변호사 업무 전문성 약화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2.4	15.1	43.9	31.1	7.5	100.0	56.6
소속	변호사	141	1.4	13.5	45.4	31.9	7.8	100.0	57.8
	대학원생	71	4.2	18.3	40.8	29.6	7.0	100.0	54.2
성별	남성	134	2.2	15.7	42.5	30.6	9.0	100.0	57.1
	여성	78	2.6	14.1	46.2	32.1	5.1	100.0	55.8
나이	20대	58	1.7	20.7	36.2	31.0	10.3	100.0	56.9
	30대	94	4.3	18.1	40.4	31.9	5.3	100.0	54.0
	40대	48	0.0	6.3	60.4	25.0	8.3	100.0	58.9
	50대 이상	12	0.0	0.0	41.7	50.0	8.3	100.0	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3.2	19.4	38.7	30.1	8.6	100.0	55.4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16.7	50.0	26.7	3.3	100.0	52.5
	5년 이상~10년 미만	47	2.1	17.0	42.6	31.9	6.4	100.0	55.9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51.6	35.5	9.7	100.0	62.9
	20년 이상	11	0.0	0.0	54.5	36.4	9.1	100.0	63.6
지역	서울	79	0.0	15.2	41.8	32.9	10.1	100.0	59.5
	부산	4	0.0	0.0	75.0	25.0	0.0	100.0	56.3
	대구	5	20.0	20.0	60.0	0.0	0.0	100.0	35.0
	인천	6	0.0	16.7	50.0	33.3	0.0	100.0	54.2
	대전	14	0.0	21.4	35.7	28.6	14.3	100.0	58.9
	광주	31	6.5	16.1	38.7	32.3	6.5	100.0	54.0
	울산	3	0.0	33.3	0.0	66.7	0.0	100.0	58.3
	경기	10	0.0	20.0	60.0	20.0	0.0	100.0	50.0
	강원	18	5.6	5.6	61.1	22.2	5.6	100.0	54.2
	충북	6	0.0	0.0	66.7	33.3	0.0	100.0	58.3
	충남	8	0.0	12.5	62.5	12.5	12.5	100.0	56.3
	전북	3	33.3	0.0	0.0	66.7	0.0	100.0	50.0
	전남	17	0.0	23.5	41.2	29.4	5.9	100.0	54.4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2. 9)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4.7	25.9	58.0	11.3	100.0	69.0
소속	변호사	141	0.0	6.4	33.3	49.6	10.6	100.0	66.1
	대학원생	71	0.0	1.4	11.3	74.6	12.7	100.0	74.6
성별	남성	134	0.0	4.5	28.4	56.7	10.4	100.0	68.3
	여성	78	0.0	5.1	21.8	60.3	12.8	100.0	70.2
나이	20대	58	0.0	1.7	13.8	72.4	12.1	100.0	73.7
	30대	94	0.0	7.4	25.5	53.2	13.8	100.0	68.4
	40대	48	0.0	2.1	37.5	54.2	6.3	100.0	66.1
	50대 이상	12	0.0	8.3	41.7	41.7	8.3	100.0	62.5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1.1	16.1	67.7	15.1	100.0	74.2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10.0	33.3	46.7	10.0	100.0	6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8.5	29.8	51.1	10.6	100.0	66.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35.5	58.1	3.2	100.0	65.3
	20년 이상	11	0.0	9.1	45.5	36.4	9.1	100.0	61.4
지역	서울	79	0.0	6.3	35.4	48.1	10.1	100.0	65.5
	부산	4	0.0	0.0	25.0	50.0	25.0	100.0	75.0
	대구	5	0.0	0.0	40.0	40.0	20.0	100.0	70.0
	인천	6	0.0	16.7	50.0	16.7	16.7	100.0	58.3
	대전	14	0.0	0.0	14.3	71.4	14.3	100.0	75.0
	광주	31	0.0	0.0	9.7	77.4	12.9	100.0	75.8
	울산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경기	10	0.0	10.0	40.0	30.0	20.0	100.0	65.0
	강원	18	0.0	0.0	11.1	83.3	5.6	100.0	73.6
	충북	6	0.0	16.7	16.7	66.7	0.0	100.0	62.5
	충남	8	0.0	0.0	25.0	75.0	0.0	100.0	68.8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5.9	17.6	58.8	17.6	100.0	72.1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2. 10)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 정도- 특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응답자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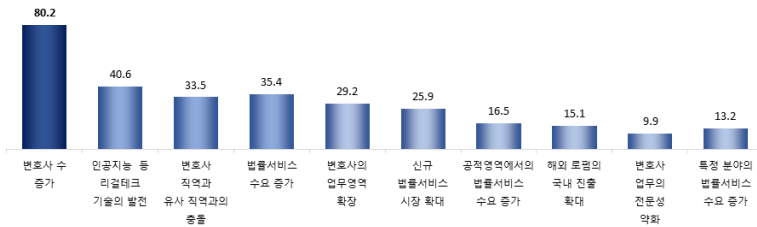
		사례 수 (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3.3	25.0	59.9	11.3	100.0	69.6
소속	변호사	141	0.7	3.5	31.2	54.6	9.9	100.0	67.4
	대학원생	71	0.0	2.8	12.7	70.4	14.1	100.0	73.9
성별	남성	134	0.7	3.7	27.6	56.0	11.9	100.0	68.7
	여성	78	0.0	2.6	20.5	66.7	10.3	100.0	71.2
나이	20대	58	0.0	3.4	13.8	65.5	17.2	100.0	74.1
	30대	94	1.1	4.3	23.4	60.6	10.6	100.0	68.9
	40대	48	0.0	0.0	39.6	56.3	4.2	100.0	66.1
	50대 이상	12	0.0	8.3	33.3	41.7	16.7	100.0	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3.2	16.1	64.5	16.1	100.0	73.4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26.7	60.0	6.7	100.0	66.7
	5년 이상~10년 미만	47	2.1	2.1	23.4	66.0	6.4	100.0	68.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51.6	41.9	6.5	100.0	63.7
	20년 이상	11	0.0	9.1	27.3	45.5	18.2	100.0	68.2
지역	서울	79	1.3	5.1	25.3	58.2	10.1	100.0	67.7
	부산	4	0.0	0.0	0.0	100.0	0.0	100.0	75.0
	대구	5	0.0	0.0	20.0	60.0	20.0	100.0	75.0
	인천	6	0.0	0.0	66.7	16.7	16.7	100.0	62.5
	대전	14	0.0	0.0	7.1	78.6	14.3	100.0	76.8
	광주	31	0.0	3.2	12.9	67.7	16.1	100.0	74.2
	울산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경기	10	0.0	10.0	50.0	30.0	10.0	100.0	60.0
	강원	18	0.0	0.0	11.1	77.8	11.1	100.0	75.0
	충북	6	0.0	0.0	16.7	83.3	0.0	100.0	70.8
	충남	8	0.0	0.0	50.0	37.5	12.5	100.0	65.6
	전북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전남	17	0.0	0.0	29.4	58.8	11.8	100.0	70.6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2-1.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종합 순위 -

2-1. 아래 항목 중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선택하시오(우선순위 3개).

조사결과

- »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종합순위 (1+2+3순위) 기준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8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 (40.6%),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35.4%),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N=212 단위 : %)

응답자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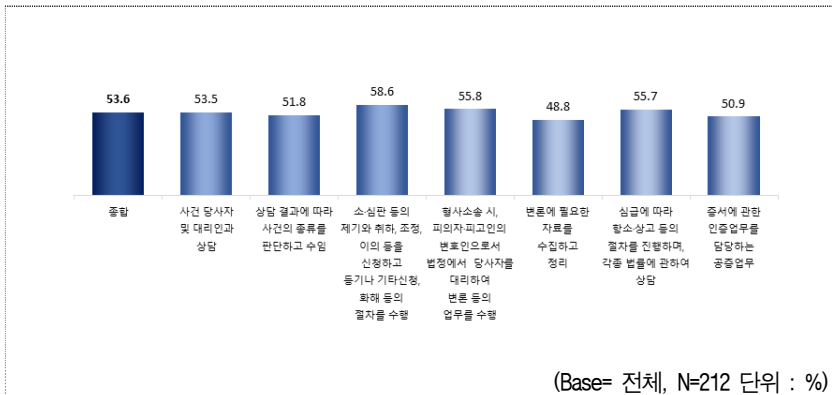
1+2+3순위 종합		사례 수 (명)	변호사 수 증가	인공지능 등 리걸 테크 기술의 발전	변호사 직업과 유사 직업과의 충돌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해외법률의 국내 진출 확대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약화	특정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전체]		212	80.2	40.6	33.5	35.4	29.2	25.9	16.5	15.1	9.9	13.2
소속	변호사	141	84.4	46.1	36.9	27.7	24.8	24.1	17.7	14.9	12.1	10.6
	대학원생	71	71.8	29.6	26.8	50.7	38.0	29.6	14.1	15.5	5.6	18.3
성별	남성	134	76.1	44.8	34.3	32.8	26.9	26.1	17.9	15.7	11.9	12.7
	여성	78	87.2	33.3	32.1	39.7	33.3	25.6	14.1	14.1	6.4	14.1
나이	20대	58	70.7	37.9	29.3	46.6	32.8	31.0	8.6	19.0	3.4	20.7
	30대	94	79.8	37.2	34.0	36.2	30.9	29.8	17.0	10.6	12.8	10.6
	40대	48	91.7	43.8	37.5	25.0	27.1	18.8	20.8	14.6	10.4	10.4
	50대 이상	12	83.3	66.7	33.3	16.7	8.3	0.0	33.3	33.3	16.7	8.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69.9	34.4	31.2	47.3	34.4	28.0	14.0	18.3	4.3	18.3
	3년 이상~5년 미만	30	90.0	46.7	43.3	30.0	30.0	20.0	10.0	6.7	16.7	6.7
	5년 이상~10년 미만	47	83.0	40.4	29.8	25.5	25.5	36.2	23.4	14.9	10.6	8.5
	10년 이상~20년 미만	31	96.8	48.4	41.9	19.4	25.8	12.9	12.9	9.7	19.4	12.9
	20년 이상	11	81.8	54.5	18.2	36.4	9.1	18.2	36.4	27.3	9.1	9.1
지역	서울	79	83.5	35.4	38.0	34.2	32.9	26.6	12.7	15.2	12.7	7.6
	부산	4	100.0	75.0	50.0	25.0	25.0	0.0	25.0	0.0	0.0	0.0
	대구	5	80.0	40.0	20.0	40.0	20.0	40.0	20.0	20.0	0.0	20.0
	인천	6	100.0	50.0	33.3	0.0	16.7	50.0	16.7	0.0	33.3	0.0
	대전	14	64.3	50.0	28.6	35.7	14.3	42.9	14.3	21.4	14.3	14.3
	광주	31	64.5	38.7	25.8	51.6	38.7	12.9	29.0	16.1	3.2	19.4
	울산	3	100.0	33.3	33.3	0.0	0.0	33.3	33.3	33.3	0.0	33.3
	경기	10	90.0	50.0	30.0	40.0	20.0	0.0	20.0	50.0	0.0	0.0
	강원	18	61.1	33.3	38.9	44.4	38.9	33.3	11.1	11.1	11.1	16.7
	충북	6	100.0	66.7	50.0	33.3	0.0	16.7	16.7	0.0	0.0	16.7
	충남	8	87.5	50.0	12.5	37.5	12.5	37.5	12.5	0.0	12.5	37.5
	전북	3	66.7	33.3	33.3	0.0	33.3	33.3	33.3	33.3	33.3	0.0
	전남	17	88.2	35.3	29.4	35.3	29.4	35.3	11.8	11.8	0.0	23.5
	경북	2	100.0	100.0	50.0	50.0	0.0	0.0	0.0	0.0	0.0	0.0
	경남	3	100.0	0.0	33.3	0.0	66.7	33.3	0.0	0.0	33.3	33.3
제주	3	100.0	66.7	33.3	0.0	33.3	0.0	33.3	0.0	33.3	0.0	

3.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Q3. 향후 10년 이후 다음의 변호사 직무 분야는 각각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소·심판 등의 제기과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 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 이 5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55.8점),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5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48.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단위: 점)

	사례 수 (명)	종합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 과 상담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를 판단하고 수입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 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심급에 따라 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 담당하는 공증 업무	
[전체]	212	53.6	53.5	51.8	58.6	55.8	48.8	55.7	50.9	
소속	변호사	141	50.8	51.1	50.7	53.4	53.9	47.0	51.4	48.2
	대학원생	71	59.1	58.5	53.9	69.0	59.5	52.5	64.1	56.3
성별	남성	134	53.0	52.1	51.9	59.0	54.3	48.9	56.0	49.1
	여성	78	54.6	56.1	51.6	58.0	58.3	48.7	55.1	54.2
나이	20대	58	58.1	58.6	54.7	67.2	58.2	49.6	64.7	53.9
	30대	94	53.4	54.0	50.8	58.2	58.0	47.3	53.5	52.1
	40대	48	48.8	47.9	49.0	49.5	51.0	49.5	49.0	45.8
	50대 이상	12	52.1	47.9	56.3	56.3	45.8	54.2	56.3	47.9
법률경력	3년 미만	93	57.6	57.3	54.0	66.4	59.7	48.9	62.4	54.3
	3년 이상~5년 미만	30	50.6	52.5	45.8	56.7	55.0	43.3	50.0	5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52.3	51.6	54.3	53.2	54.8	51.1	51.6	49.5
	10년 이상~20년 미만	31	46.3	46.0	45.2	46.8	47.6	47.6	46.8	44.4
	20년 이상	11	54.2	54.5	56.8	54.5	52.3	56.8	56.8	47.7
지역	서울	79	50.3	48.7	49.1	54.4	53.5	45.3	52.5	48.4
	부산	4	54.5	43.8	56.3	75.0	50.0	50.0	43.8	62.5
	대구	5	50.7	45.0	50.0	55.0	60.0	45.0	55.0	45.0
	인천	6	53.0	50.0	58.3	54.2	62.5	50.0	45.8	50.0
	대전	14	52.8	53.6	46.4	64.3	53.6	41.1	58.9	51.8
	광주	31	60.6	60.5	57.3	66.9	62.9	54.0	65.3	57.3
	울산	3	47.6	58.3	41.7	41.7	50.0	50.0	50.0	41.7
	경기	10	52.5	52.5	52.5	50.0	62.5	55.0	52.5	42.5
	강원	18	56.9	59.7	55.6	59.7	56.9	52.8	61.1	52.8
	충북	6	45.8	50.0	45.8	37.5	54.2	37.5	45.8	50.0
	충남	8	58.5	68.8	62.5	71.9	62.5	53.1	50.0	40.6
	전북	3	42.9	50.0	41.7	50.0	33.3	50.0	41.7	33.3
	전남	17	59.7	58.8	51.5	72.1	54.4	55.9	63.2	61.8
	경북	2	50.0	50.0	50.0	50.0	50.0	37.5	50.0	62.5
	경남	3	46.4	41.7	66.7	33.3	41.7	50.0	50.0	41.7
	제주	3	54.8	58.3	41.7	58.3	50.0	58.3	58.3	58.3

3. 1)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2.4	21.7	39.2	33.0	3.8	100.0	53.5
소속	변호사	141	2.1	24.1	42.6	29.8	1.4	100.0	51.1
	대학원생	71	2.8	16.9	32.4	39.4	8.5	100.0	58.5
성별	남성	134	1.5	27.6	36.6	29.9	4.5	100.0	52.1
	여성	78	3.8	11.5	43.6	38.5	2.6	100.0	56.1
나이	20대	58	3.4	15.5	31.0	43.1	6.9	100.0	58.6
	30대	94	3.2	16.0	45.7	31.9	3.2	100.0	54.0
	40대	48	0.0	37.5	33.3	29.2	0.0	100.0	47.9
	50대 이상	12	0.0	33.3	50.0	8.3	8.3	100.0	47.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2	17.2	36.6	37.6	6.5	100.0	57.3
	3년 이상~5년 미만	30	6.7	13.3	46.7	30.0	3.3	100.0	52.5
	5년 이상~10년 미만	47	2.1	25.5	36.2	36.2	0.0	100.0	51.6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8.7	38.7	22.6	0.0	100.0	46.0
	20년 이상	11	0.0	18.2	54.5	18.2	9.1	100.0	54.5
지역	서울	79	3.8	24.1	46.8	24.1	1.3	100.0	48.7
	부산	4	0.0	50.0	25.0	25.0	0.0	100.0	43.8
	대구	5	0.0	40.0	40.0	20.0	0.0	100.0	45.0
	인천	6	0.0	33.3	33.3	33.3	0.0	100.0	50.0
	대전	14	0.0	28.6	28.6	42.9	0.0	100.0	53.6
	광주	31	3.2	16.1	25.8	45.2	9.7	100.0	60.5
	울산	3	0.0	0.0	66.7	33.3	0.0	100.0	58.3
	경기	10	0.0	30.0	30.0	40.0	0.0	100.0	52.5
	강원	18	0.0	11.1	55.6	16.7	16.7	100.0	59.7
	충북	6	16.7	0.0	50.0	33.3	0.0	100.0	50.0
	충남	8	0.0	0.0	37.5	50.0	12.5	100.0	68.8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0.0	23.5	17.6	58.8	0.0	100.0	58.8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66.7	0.0	33.3	0.0	100.0	41.7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3. 2)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를 판단하고 수입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4.2	18.9	46.2	26.9	3.8	100.0	51.8
소속	변호사	141	3.5	22.0	46.1	24.8	3.5	100.0	50.7
	대학원생	71	5.6	12.7	46.5	31.0	4.2	100.0	53.9
성별	남성	134	3.0	21.6	44.8	26.1	4.5	100.0	51.9
	여성	78	6.4	14.1	48.7	28.2	2.6	100.0	51.6
나이	20대	58	6.9	8.6	46.6	34.5	3.4	100.0	54.7
	30대	94	3.2	20.2	48.9	25.5	2.1	100.0	50.8
	40대	48	4.2	29.2	39.6	20.8	6.3	100.0	49.0
	50대 이상	12	0.0	16.7	50.0	25.0	8.3	100.0	56.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4.3	12.9	49.5	29.0	4.3	100.0	54.0
	3년 이상~5년 미만	30	6.7	20.0	56.7	16.7	0.0	100.0	4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19.1	36.2	36.2	4.3	100.0	54.3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35.5	41.9	16.1	3.2	100.0	45.2
	20년 이상	11	0.0	18.2	45.5	27.3	9.1	100.0	56.8
지역	서울	79	5.1	22.8	46.8	21.5	3.8	100.0	49.1
	부산	4	0.0	25.0	25.0	50.0	0.0	100.0	56.3
	대구	5	0.0	20.0	60.0	20.0	0.0	100.0	50.0
	인천	6	0.0	16.7	33.3	50.0	0.0	100.0	58.3
	대전	14	7.1	14.3	64.3	14.3	0.0	100.0	46.4
	광주	31	3.2	9.7	48.4	32.3	6.5	100.0	57.3
	울산	3	0.0	33.3	66.7	0.0	0.0	100.0	41.7
	경기	10	0.0	30.0	30.0	40.0	0.0	100.0	52.5
	강원	18	0.0	16.7	50.0	27.8	5.6	100.0	55.6
	충북	6	16.7	0.0	66.7	16.7	0.0	100.0	45.8
	충남	8	0.0	12.5	37.5	37.5	12.5	100.0	62.5
	전북	3	33.3	0.0	33.3	33.3	0.0	100.0	41.7
	전남	17	5.9	23.5	29.4	41.2	0.0	100.0	51.5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33.3	66.7	0.0	0.0	100.0	41.7

3. 3)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 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2.4	12.7	38.2	41.5	5.2	100.0	58.6
소속	변호사	141	3.5	15.6	48.2	29.1	3.5	100.0	53.4
	대학원생	71	0.0	7.0	18.3	66.2	8.5	100.0	69.0
성별	남성	134	2.2	14.2	35.1	42.5	6.0	100.0	59.0
	여성	78	2.6	10.3	43.6	39.7	3.8	100.0	58.0
나이	20대	58	0.0	6.9	27.6	55.2	10.3	100.0	67.2
	30대	94	2.1	10.6	42.6	41.5	3.2	100.0	58.2
	40대	48	6.3	25.0	35.4	31.3	2.1	100.0	49.5
	50대 이상	12	0.0	8.3	66.7	16.7	8.3	100.0	56.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7.5	29.0	53.8	9.7	100.0	66.4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3.3	56.7	36.7	0.0	100.0	56.7
	5년 이상~10년 미만	47	2.1	23.4	36.2	36.2	2.1	100.0	53.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9.7	22.6	38.7	29.0	0.0	100.0	46.8
	20년 이상	11	0.0	9.1	72.7	9.1	9.1	100.0	54.5
지역	서울	79	5.1	13.9	44.3	31.6	5.1	100.0	54.4
	부산	4	0.0	0.0	25.0	50.0	25.0	100.0	75.0
	대구	5	0.0	20.0	40.0	40.0	0.0	100.0	55.0
	인천	6	0.0	16.7	50.0	33.3	0.0	100.0	54.2
	대전	14	0.0	0.0	50.0	42.9	7.1	100.0	64.3
	광주	31	0.0	6.5	25.8	61.3	6.5	100.0	66.9
	울산	3	0.0	33.3	66.7	0.0	0.0	100.0	41.7
	경기	10	0.0	30.0	40.0	30.0	0.0	100.0	50.0
	강원	18	0.0	16.7	27.8	55.6	0.0	100.0	59.7
	충북	6	0.0	50.0	50.0	0.0	0.0	100.0	37.5
	충남	8	0.0	0.0	25.0	62.5	12.5	100.0	71.9
	전북	3	0.0	0.0	100.0	0.0	0.0	100.0	50.0
	전남	17	0.0	5.9	11.8	70.6	11.8	100.0	72.1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33.3	33.3	0.0	33.3	0.0	100.0	33.3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3. 4)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9.9	57.1	29.2	2.8	100.0	55.8
소속	변호사	141	1.4	9.9	63.1	22.7	2.8	100.0	53.9
	대학원생	71	0.0	9.9	45.1	42.3	2.8	100.0	59.5
성별	남성	134	0.7	13.4	57.5	24.6	3.7	100.0	54.3
	여성	78	1.3	3.8	56.4	37.2	1.3	100.0	58.3
나이	20대	58	0.0	8.6	53.4	34.5	3.4	100.0	58.2
	30대	94	1.1	4.3	58.5	34.0	2.1	100.0	58.0
	40대	48	0.0	20.8	56.3	20.8	2.1	100.0	51.0
	50대 이상	12	8.3	16.7	66.7	0.0	8.3	100.0	45.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7.5	49.5	39.8	3.2	100.0	59.7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3.3	66.7	23.3	3.3	100.0	55.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2.8	57.4	27.7	2.1	100.0	54.8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22.6	64.5	12.9	0.0	100.0	47.6
	20년 이상	11	9.1	0.0	72.7	9.1	9.1	100.0	52.3
지역	서울	79	2.5	7.6	65.8	21.5	2.5	100.0	53.5
	부산	4	0.0	25.0	50.0	25.0	0.0	100.0	50.0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16.7	33.3	33.3	16.7	100.0	62.5
	대전	14	0.0	21.4	42.9	35.7	0.0	100.0	53.6
	광주	31	0.0	3.2	48.4	41.9	6.5	100.0	62.9
	울산	3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기	10	0.0	10.0	30.0	60.0	0.0	100.0	62.5
	강원	18	0.0	5.6	61.1	33.3	0.0	100.0	56.9
	충북	6	0.0	0.0	83.3	16.7	0.0	100.0	54.2
	충남	8	0.0	0.0	50.0	50.0	0.0	100.0	62.5
	전북	3	0.0	66.7	33.3	0.0	0.0	100.0	33.3
	전남	17	0.0	23.5	41.2	29.4	5.9	100.0	54.4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33.3	66.7	0.0	0.0	100.0	41.7
제주	3	0.0	0.0	100.0	0.0	0.0	100.0	50.0	

3. 5)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2.8	28.3	41.5	25.5	1.9	100.0	48.8
소속	변호사	141	2.8	27.7	48.9	19.9	0.7	100.0	47.0
	대학원생	71	2.8	29.6	26.8	36.6	4.2	100.0	52.5
성별	남성	134	3.0	30.6	37.3	26.1	3.0	100.0	48.9
	여성	78	2.6	24.4	48.7	24.4	0.0	100.0	48.7
나이	20대	58	1.7	36.2	27.6	31.0	3.4	100.0	49.6
	30대	94	5.3	26.6	42.6	24.5	1.1	100.0	47.3
	40대	48	0.0	25.0	52.1	22.9	0.0	100.0	49.5
	50대 이상	12	0.0	16.7	58.3	16.7	8.3	100.0	54.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3.2	34.4	29.0	30.1	3.2	100.0	48.9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30.0	56.7	10.0	0.0	100.0	43.3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19.1	44.7	31.9	0.0	100.0	51.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25.8	58.1	16.1	0.0	100.0	47.6
	20년 이상	11	0.0	18.2	45.5	27.3	9.1	100.0	56.8
지역	서울	79	5.1	30.4	43.0	21.5	0.0	100.0	45.3
	부산	4	0.0	0.0	100.0	0.0	0.0	100.0	50.0
	대구	5	0.0	40.0	40.0	20.0	0.0	100.0	45.0
	인천	6	0.0	16.7	66.7	16.7	0.0	100.0	50.0
	대전	14	0.0	50.0	35.7	14.3	0.0	100.0	41.1
	광주	31	3.2	25.8	29.0	35.5	6.5	100.0	54.0
	울산	3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기	10	0.0	20.0	40.0	40.0	0.0	100.0	55.0
	강원	18	0.0	33.3	22.2	44.4	0.0	100.0	52.8
	충북	6	0.0	50.0	50.0	0.0	0.0	100.0	37.5
	충남	8	0.0	25.0	37.5	37.5	0.0	100.0	53.1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5.9	17.6	35.3	29.4	11.8	100.0	55.9
	경북	2	0.0	50.0	50.0	0.0	0.0	100.0	37.5
	경남	3	0.0	0.0	100.0	0.0	0.0	100.0	50.0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3. 6)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심급에 따라 향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1.4	8.5	58.0	30.2	1.9	100.0	55.7
소속	변호사	141	2.1	10.6	67.4	19.1	0.7	100.0	51.4
	대학원생	71	0.0	4.2	39.4	52.1	4.2	100.0	64.1
성별	남성	134	0.7	9.0	58.2	29.9	2.2	100.0	56.0
	여성	78	2.6	7.7	57.7	30.8	1.3	100.0	55.1
나이	20대	58	0.0	5.2	36.2	53.4	5.2	100.0	64.7
	30대	94	2.1	7.4	64.9	25.5	0.0	100.0	53.5
	40대	48	2.1	14.6	68.8	14.6	0.0	100.0	49.0
	50대 이상	12	0.0	8.3	66.7	16.7	8.3	100.0	56.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4.3	45.2	47.3	3.2	100.0	62.4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10.0	70.0	16.7	0.0	100.0	5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2.1	10.6	66.0	21.3	0.0	100.0	51.6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16.1	71.0	9.7	0.0	100.0	46.8
	20년 이상	11	0.0	9.1	63.6	18.2	9.1	100.0	56.8
지역	서울	79	3.8	5.1	68.4	22.8	0.0	100.0	52.5
	부산	4	0.0	25.0	75.0	0.0	0.0	100.0	43.8
	대구	5	0.0	0.0	80.0	20.0	0.0	100.0	55.0
	인천	6	0.0	33.3	50.0	16.7	0.0	100.0	45.8
	대전	14	0.0	7.1	57.1	28.6	7.1	100.0	58.9
	광주	31	0.0	3.2	38.7	51.6	6.5	100.0	65.3
	울산	3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기	10	0.0	20.0	50.0	30.0	0.0	100.0	52.5
	강원	18	0.0	5.6	44.4	50.0	0.0	100.0	61.1
	충북	6	0.0	16.7	83.3	0.0	0.0	100.0	45.8
	충남	8	0.0	25.0	50.0	25.0	0.0	100.0	50.0
	전북	3	0.0	33.3	66.7	0.0	0.0	100.0	41.7
	전남	17	0.0	5.9	41.2	47.1	5.9	100.0	63.2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3. 7) 10년 뒤 변호사 직무 분야 증서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 업무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5.2	24.1	37.3	28.8	4.7	100.0	50.9
소속	변호사	141	6.4	22.7	44.7	24.1	2.1	100.0	48.2
	대학원생	71	2.8	26.8	22.5	38.0	9.9	100.0	56.3
성별	남성	134	4.5	27.6	39.6	23.9	4.5	100.0	49.1
	여성	78	6.4	17.9	33.3	37.2	5.1	100.0	54.2
나이	20대	58	3.4	29.3	25.9	31.0	10.3	100.0	53.9
	30대	94	5.3	20.2	39.4	30.9	4.3	100.0	52.1
	40대	48	8.3	25.0	41.7	25.0	0.0	100.0	45.8
	50대 이상	12	0.0	25.0	58.3	16.7	0.0	100.0	47.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3.2	26.9	29.0	31.2	9.7	100.0	54.3
	3년 이상~5년 미만	30	6.7	13.3	50.0	30.0	0.0	100.0	5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8.5	23.4	31.9	34.0	2.1	100.0	49.5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32.3	48.4	16.1	0.0	100.0	44.4
	20년 이상	11	9.1	9.1	63.6	18.2	0.0	100.0	47.7
지역	서울	79	8.9	19.0	45.6	22.8	3.8	100.0	48.4
	부산	4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구	5	20.0	20.0	20.0	40.0	0.0	100.0	45.0
	인천	6	0.0	33.3	33.3	33.3	0.0	100.0	50.0
	대전	14	0.0	28.6	42.9	21.4	7.1	100.0	51.8
	광주	31	3.2	25.8	22.6	35.5	12.9	100.0	57.3
	울산	3	0.0	33.3	66.7	0.0	0.0	100.0	41.7
	경기	10	10.0	30.0	40.0	20.0	0.0	100.0	42.5
	강원	18	5.6	22.2	27.8	44.4	0.0	100.0	52.8
	충북	6	0.0	50.0	0.0	50.0	0.0	100.0	50.0
	충남	8	0.0	50.0	37.5	12.5	0.0	100.0	40.6
	전북	3	0.0	66.7	33.3	0.0	0.0	100.0	33.3
	전남	17	0.0	17.6	29.4	41.2	11.8	100.0	61.8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66.7	0.0	0.0	100.0	41.7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3-1.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

3-1. 위 Q3에서 제시된 직무 이외에 향후 10년 이후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들을 생각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 » 10년 뒤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해 ‘부동산’ 이라는 응답이 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공지능’ 과 ‘일반 법률 자문’ (각각 7건), ‘계약서 자문’ 과 ‘기업체 자문’ (각각 5건), ‘공공/민간 소속’ 과 ‘교육’, ‘후견’ (각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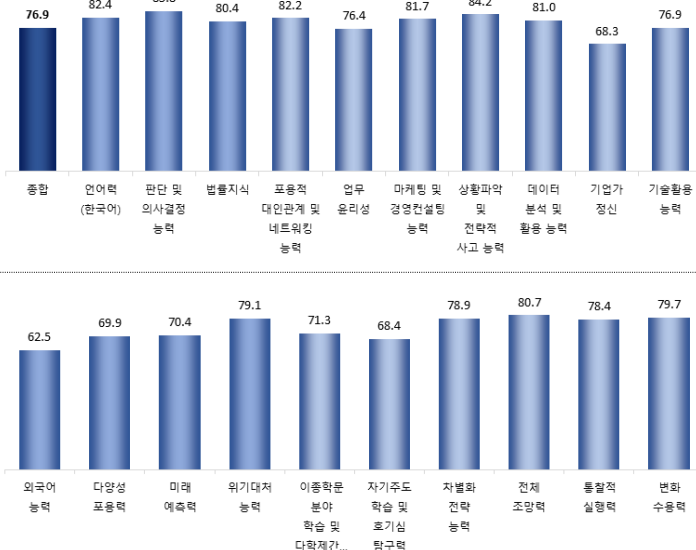
의견	개수	의견	개수
부동산	9	노년층 대상	1
인공지능	7	벤처캐피털	1
일반 법률 자문	7	보험	1
계약서 자문	5	상담(콘텐츠 크리에이터)	1
기업체 자문	5	서비스(유사사건 맞춤)	1
공공/민간 소속	4	세무	1
교육	4	소셜미디어	1
후견	4	소속	1
개인 대상	3	소송(집단/공동)	1
소송 전 단계 자문	3	스포츠	1
대리업무	2	신탁	1
로비	2	예방법학	1
상담	2	유사 업무 수행	1
상속	2	은행	1
스타트업	2	의뢰인과 관계 유지	1
신기술	2	의료	1
심리	2	자문(컴플라이언스)	1
영업	2	자산관리	1
일상생활	2	전자 시스템과 접목	1
입법	2	조력	1
지역 공동체	2	준법감시	1
창업	2	채권추심	1
경영	1	책임	1
계약서	1	탐정업	1
공적 상담	1	해양	1
국제	1	없음/무응답	127

4-1.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필요 정도 - 종합

Q4. 향후 10년 이후 미래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역량의 미래 필요 정도와 나의 준비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이 8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84.2점), '언어력 (한국어)' (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8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능력' (62.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Base= 전체, N=212 단위 : %)

응답자 특성

(단위: 점)

각 역량의 미래 필요 정도		사례 수 (명)	종합	언어 능력 (한국어)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법률 지식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업무 윤리성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기업가 정신	기술 활용 능력
[전체]		212	76.9	82.4	85.8	80.4	82.2	76.4	81.7	84.2	81.0	68.3	76.9
소속	변호사	141	75.9	81.0	85.5	78.9	80.1	75.5	82.3	82.8	79.6	71.3	76.6
	대학원생	71	79.0	85.2	86.6	83.5	86.3	78.2	80.6	87.0	83.8	62.3	77.5
성별	남성	134	76.1	81.2	84.7	78.7	81.5	74.4	82.8	84.0	81.3	67.9	75.9
	여성	78	78.4	84.6	87.8	83.3	83.3	79.8	79.8	84.6	80.4	68.9	78.5
나이	20대	58	78.1	82.8	84.5	82.8	84.1	76.7	79.7	84.5	83.6	59.9	77.2
	30대	94	77.3	82.2	86.4	76.6	81.6	72.6	84.0	85.1	81.1	75.5	77.1
	40대	48	75.2	83.3	88.5	84.9	83.3	82.3	80.2	81.8	77.1	65.6	75.5
	50대 이상	12	75.9	79.2	77.1	81.3	72.9	81.3	79.2	85.4	83.3	62.5	79.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78.1	83.9	86.3	80.9	83.9	75.8	81.2	86.3	83.3	64.8	77.7
	3년 이상~5년 미만	30	77.6	85.8	88.3	78.3	80.8	70.8	81.7	85.8	84.2	73.3	8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77.3	78.2	85.1	79.3	84.6	78.2	86.7	81.9	78.2	77.1	77.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72.9	82.3	85.5	83.1	78.2	78.2	79.0	79.8	75.8	63.7	71.0
	20년 이상	11	74.8	79.5	79.5	79.5	72.7	84.1	72.7	84.1	79.5	59.1	75.0
지역	서울	79	76.7	79.7	84.2	76.9	81.6	75.0	82.3	83.5	78.5	71.8	74.7
	부산	4	76.6	81.3	93.8	93.8	87.5	81.3	81.3	81.3	68.8	75.0	87.5
	대구	5	74.5	75.0	85.0	85.0	80.0	70.0	100.0	85.0	95.0	80.0	75.0
	인천	6	74.2	75.0	75.0	83.3	79.2	70.8	83.3	70.8	75.0	75.0	75.0
	대전	14	75.3	73.2	82.1	73.2	85.7	66.1	82.1	80.4	83.9	64.3	82.1
	광주	31	81.6	88.7	90.3	83.9	85.5	83.9	77.4	88.7	83.9	66.1	79.8
	울산	3	67.5	66.7	75.0	83.3	75.0	66.7	83.3	75.0	58.3	66.7	66.7
	경기	10	82.4	90.0	97.5	90.0	85.0	82.5	87.5	92.5	87.5	77.5	87.5
	강원	18	73.4	84.7	83.3	79.2	73.6	75.0	77.8	84.7	80.6	58.3	69.4
	충북	6	79.4	91.7	87.5	83.3	91.7	79.2	83.3	91.7	100.0	79.2	91.7
	충남	8	72.2	87.5	84.4	81.3	81.3	81.3	71.9	78.1	84.4	65.6	75.0
	전북	3	71.7	83.3	91.7	75.0	66.7	91.7	100.0	75.0	75.0	50.0	58.3
	전남	17	79.8	91.2	91.2	86.8	88.2	79.4	82.4	88.2	85.3	58.8	79.4
	경북	2	68.8	87.5	87.5	87.5	75.0	62.5	75.0	75.0	75.0	50.0	75.0
	경남	3	67.1	58.3	83.3	75.0	75.0	58.3	83.3	75.0	50.0	75.0	66.7
제주	3	77.5	75.0	66.7	75.0	75.0	75.0	83.3	83.3	83.3	66.7	83.3	

(단위: 점)

각 역량의 미래 필요 정도		사례 수 (명)	외국어 능력	다양성 포용력	미래 예측력	위기 대처 능력	이종 학문 분야 학습 및 다학제간 지식 융합력	자기 주도 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차별화 전략 능력	전체 조망력	통합적 실행력	변화 수용력
[전체]		212	62.5	69.9	70.4	79.1	71.3	68.4	78.9	80.7	78.4	79.7
소속	변호사	141	62.6	68.4	70.6	76.8	69.5	66.3	76.6	78.9	77.0	77.8
	대학원생	71	62.3	72.9	70.1	83.8	75.0	72.5	83.5	84.2	81.3	83.5
성별	남성	134	61.0	68.8	69.0	76.5	71.1	67.2	77.6	79.9	78.2	79.5
	여성	78	65.1	71.8	72.8	83.7	71.8	70.5	81.1	82.1	78.8	80.1
나이	20대	58	64.7	72.4	71.1	83.2	75.9	70.3	82.8	83.6	80.6	81.5
	30대	94	63.6	68.6	71.3	79.0	71.0	70.2	80.1	81.4	78.2	79.5
	40대	48	55.7	69.3	67.2	75.5	64.6	61.5	73.4	76.6	77.6	79.7
	50대 이상	12	70.8	70.8	72.9	75.0	79.2	72.9	72.9	77.1	72.9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62.1	71.5	71.0	82.5	73.9	70.4	82.3	82.8	80.1	81.7
	3년 이상~5년 미만	30	68.3	69.2	71.7	77.5	74.2	70.8	75.0	81.7	77.5	7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62.8	69.7	70.7	77.1	70.2	68.6	80.3	80.3	78.7	81.4
	10년 이상~20년 미만	31	54.8	66.1	67.7	75.0	60.5	59.7	71.8	75.0	75.8	75.0
	20년 이상	11	70.5	70.5	68.2	75.0	77.3	68.2	75.0	77.3	72.7	75.0
지역	서울	79	65.5	70.3	70.6	79.1	73.1	68.4	80.4	80.1	78.8	80.1
	부산	4	68.8	68.8	75.0	75.0	62.5	68.8	68.8	68.8	68.8	75.0
	대구	5	55.0	70.0	65.0	80.0	65.0	60.0	65.0	70.0	65.0	65.0
	인천	6	62.5	70.8	70.8	75.0	70.8	75.0	75.0	75.0	75.0	70.8
	대전	14	67.9	71.4	71.4	75.0	78.6	62.5	73.2	78.6	73.2	80.4
	광주	31	71.0	74.2	72.6	87.9	76.6	75.0	85.5	87.9	85.5	87.1
	울산	3	50.0	50.0	66.7	66.7	50.0	58.3	66.7	75.0	75.0	75.0
	경기	10	60.0	67.5	82.5	85.0	72.5	75.0	82.5	85.0	82.5	77.5
	강원	18	48.6	69.4	68.1	75.0	69.4	66.7	75.0	79.2	73.6	76.4
	충북	6	54.2	54.2	66.7	87.5	66.7	62.5	79.2	75.0	79.2	83.3
	충남	8	43.8	62.5	50.0	68.8	56.3	62.5	71.9	78.1	81.3	78.1
	전북	3	66.7	58.3	66.7	66.7	41.7	58.3	83.3	83.3	75.0	66.7
	전남	17	55.9	76.5	73.5	80.9	75.0	69.1	82.4	85.3	80.9	85.3
	경북	2	50.0	75.0	62.5	62.5	50.0	62.5	62.5	75.0	62.5	62.5
	경남	3	58.3	66.7	75.0	66.7	50.0	58.3	66.7	66.7	66.7	66.7
	제주	3	91.7	66.7	66.7	75.0	83.3	75.0	83.3	83.3	83.3	75.0

4-1. 1) 언어력(한국어)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1.4	14.2	35.8	48.1	100.0	82.4
소속	변호사	141	0.0	2.1	15.6	38.3	44.0	100.0	81.0
	대학원생	71	1.4	0.0	11.3	31.0	56.3	100.0	85.2
성별	남성	134	0.7	1.5	15.7	36.6	45.5	100.0	81.2
	여성	78	0.0	1.3	11.5	34.6	52.6	100.0	84.6
나이	20대	58	1.7	0.0	12.1	37.9	48.3	100.0	82.8
	30대	94	0.0	3.2	12.8	36.2	47.9	100.0	82.2
	40대	48	0.0	0.0	16.7	33.3	50.0	100.0	83.3
	50대 이상	12	0.0	0.0	25.0	33.3	41.7	100.0	79.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1	9.7	37.6	50.5	100.0	83.9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13.3	30.0	56.7	100.0	8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4.3	19.1	36.2	40.4	100.0	78.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16.1	38.7	45.2	100.0	82.3
	20년 이상	11	0.0	0.0	27.3	27.3	45.5	100.0	79.5
지역	서울	79	0.0	1.3	17.7	41.8	39.2	100.0	79.7
	부산	4	0.0	0.0	0.0	75.0	25.0	100.0	81.3
	대구	5	0.0	0.0	20.0	60.0	20.0	100.0	75.0
	인천	6	0.0	16.7	16.7	16.7	50.0	100.0	75.0
	대전	14	0.0	7.1	21.4	42.9	28.6	100.0	73.2
	광주	31	0.0	0.0	6.5	32.3	61.3	100.0	88.7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0.0	40.0	60.0	100.0	90.0
	강원	18	5.6	0.0	11.1	16.7	66.7	100.0	84.7
	충북	6	0.0	0.0	16.7	0.0	83.3	100.0	91.7
	충남	8	0.0	0.0	12.5	25.0	62.5	100.0	87.5
	전북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전남	17	0.0	0.0	5.9	23.5	70.6	100.0	91.2
	경북	2	0.0	0.0	0.0	50.0	50.0	100.0	87.5
	경남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4-1. 2)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0.0	9.4	35.8	54.2	100.0	85.8
소속	변호사	141	0.0	0.0	11.3	35.5	53.2	100.0	85.5
	대학원생	71	1.4	0.0	5.6	36.6	56.3	100.0	86.6
성별	남성	134	0.7	0.0	9.7	38.8	50.7	100.0	84.7
	여성	78	0.0	0.0	9.0	30.8	60.3	100.0	87.8
나이	20대	58	1.7	0.0	6.9	41.4	50.0	100.0	84.5
	30대	94	0.0	0.0	10.6	33.0	56.4	100.0	86.4
	40대	48	0.0	0.0	6.3	33.3	60.4	100.0	88.5
	50대 이상	12	0.0	0.0	25.0	41.7	33.3	100.0	77.1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0.0	6.5	37.6	54.8	100.0	86.3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10.0	26.7	63.3	100.0	88.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12.8	34.0	53.2	100.0	85.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6.5	45.2	48.4	100.0	85.5
	20년 이상	11	0.0	0.0	27.3	27.3	45.5	100.0	79.5
지역	서울	79	0.0	0.0	11.4	40.5	48.1	100.0	84.2
	부산	4	0.0	0.0	0.0	25.0	75.0	100.0	93.8
	대구	5	0.0	0.0	0.0	60.0	40.0	100.0	85.0
	인천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대전	14	0.0	0.0	21.4	28.6	50.0	100.0	82.1
	광주	31	0.0	0.0	0.0	38.7	61.3	100.0	90.3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0.0	10.0	90.0	100.0	97.5
	강원	18	5.6	0.0	11.1	22.2	61.1	100.0	83.3
	충북	6	0.0	0.0	16.7	16.7	66.7	100.0	87.5
	충남	8	0.0	0.0	12.5	37.5	50.0	100.0	84.4
	전북	3	0.0	0.0	0.0	33.3	66.7	100.0	91.7
	전남	17	0.0	0.0	5.9	23.5	70.6	100.0	91.2
	경북	2	0.0	0.0	0.0	50.0	50.0	100.0	87.5
	경남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4-1. 3) 법률 지식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2.4	15.6	40.1	42.0	100.0	80.4
소속	변호사	141	0.0	2.8	16.3	43.3	37.6	100.0	78.9
	대학원생	71	0.0	1.4	14.1	33.8	50.7	100.0	83.5
성별	남성	134	0.0	2.2	17.9	42.5	37.3	100.0	78.7
	여성	78	0.0	2.6	11.5	35.9	50.0	100.0	83.3
나이	20대	58	0.0	1.7	12.1	39.7	46.6	100.0	82.8
	30대	94	0.0	4.3	19.1	42.6	34.0	100.0	76.6
	40대	48	0.0	0.0	12.5	35.4	52.1	100.0	84.9
	50대 이상	12	0.0	0.0	16.7	41.7	41.7	100.0	81.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3.2	15.1	36.6	45.2	100.0	80.9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16.7	43.3	36.7	100.0	78.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14.9	46.8	36.2	100.0	79.3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16.1	35.5	48.4	100.0	83.1
	20년 이상	11	0.0	0.0	18.2	45.5	36.4	100.0	79.5
지역	서울	79	0.0	2.5	21.5	41.8	34.2	100.0	76.9
	부산	4	0.0	0.0	0.0	25.0	75.0	100.0	93.8
	대구	5	0.0	0.0	0.0	60.0	40.0	100.0	85.0
	인천	6	0.0	0.0	16.7	33.3	50.0	100.0	83.3
	대전	14	0.0	7.1	21.4	42.9	28.6	100.0	73.2
	광주	31	0.0	0.0	12.9	38.7	48.4	100.0	83.9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0.0	0.0	40.0	60.0	100.0	90.0
	강원	18	0.0	5.6	16.7	33.3	44.4	100.0	79.2
	충북	6	0.0	0.0	16.7	33.3	50.0	100.0	83.3
	충남	8	0.0	0.0	12.5	50.0	37.5	100.0	81.3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5.9	5.9	23.5	64.7	100.0	86.8
	경북	2	0.0	0.0	0.0	50.0	50.0	100.0	87.5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4-1. 4)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1.4	14.6	37.7	46.2	100.0	82.2
소속	변호사	141	0.0	1.4	18.4	38.3	41.8	100.0	80.1
	대학원생	71	0.0	1.4	7.0	36.6	54.9	100.0	86.3
성별	남성	134	0.0	2.2	14.9	37.3	45.5	100.0	81.5
	여성	78	0.0	0.0	14.1	38.5	47.4	100.0	83.3
나이	20대	58	0.0	1.7	10.3	37.9	50.0	100.0	84.1
	30대	94	0.0	1.1	17.0	36.2	45.7	100.0	81.6
	40대	48	0.0	0.0	12.5	41.7	45.8	100.0	83.3
	50대 이상	12	0.0	8.3	25.0	33.3	33.3	100.0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2.2	10.8	36.6	50.5	100.0	83.9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23.3	30.0	46.7	100.0	8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12.8	36.2	51.1	100.0	84.6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19.4	48.4	32.3	100.0	78.2
	20년 이상	11	0.0	9.1	18.2	45.5	27.3	100.0	72.7
지역	서울	79	0.0	1.3	16.5	36.7	45.6	100.0	81.6
	부산	4	0.0	0.0	0.0	50.0	50.0	100.0	87.5
	대구	5	0.0	0.0	20.0	40.0	40.0	100.0	80.0
	인천	6	0.0	0.0	16.7	50.0	33.3	100.0	79.2
	대전	14	0.0	0.0	21.4	14.3	64.3	100.0	85.7
	광주	31	0.0	0.0	6.5	45.2	48.4	100.0	85.5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10.0	40.0	50.0	100.0	85.0
	강원	18	0.0	11.1	16.7	38.9	33.3	100.0	73.6
	충북	6	0.0	0.0	16.7	0.0	83.3	100.0	91.7
	충남	8	0.0	0.0	12.5	50.0	37.5	100.0	81.3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0.0	11.8	23.5	64.7	100.0	88.2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4-1. 5) 업무 윤리성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4.2	24.1	31.6	39.6	100.0	76.4
소속	변호사	141	0.0	1.4	31.9	29.8	36.9	100.0	75.5
	대학원생	71	1.4	9.9	8.5	35.2	45.1	100.0	78.2
성별	남성	134	0.7	6.0	22.4	36.6	34.3	100.0	74.4
	여성	78	0.0	1.3	26.9	23.1	48.7	100.0	79.8
나이	20대	58	1.7	10.3	10.3	34.5	43.1	100.0	76.7
	30대	94	0.0	3.2	36.2	27.7	33.0	100.0	72.6
	40대	48	0.0	0.0	18.8	33.3	47.9	100.0	82.3
	50대 이상	12	0.0	0.0	16.7	41.7	41.7	100.0	81.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7.5	20.4	29.0	41.9	100.0	75.8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40.0	26.7	30.0	100.0	7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21.3	38.3	38.3	100.0	78.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25.8	35.5	38.7	100.0	78.2
	20년 이상	11	0.0	0.0	18.2	27.3	54.5	100.0	84.1
지역	서울	79	1.3	1.3	34.2	22.8	40.5	100.0	75.0
	부산	4	0.0	0.0	25.0	25.0	50.0	100.0	81.3
	대구	5	0.0	0.0	20.0	80.0	0.0	100.0	70.0
	인천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대전	14	0.0	14.3	35.7	21.4	28.6	100.0	66.1
	광주	31	0.0	6.5	3.2	38.7	51.6	100.0	83.9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20.0	30.0	50.0	100.0	82.5
	강원	18	0.0	11.1	16.7	33.3	38.9	100.0	75.0
	충북	6	0.0	0.0	33.3	16.7	50.0	100.0	79.2
	충남	8	0.0	0.0	12.5	50.0	37.5	100.0	81.3
	전북	3	0.0	0.0	0.0	33.3	66.7	100.0	91.7
	전남	17	0.0	11.8	5.9	35.3	47.1	100.0	79.4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4-1. 6)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1.9	13.7	40.1	44.3	100.0	81.7
소속	변호사	141	0.0	1.4	11.3	44.0	43.3	100.0	82.3
	대학원생	71	0.0	2.8	18.3	32.4	46.5	100.0	80.6
성별	남성	134	0.0	2.2	10.4	41.0	46.3	100.0	82.8
	여성	78	0.0	1.3	19.2	38.5	41.0	100.0	79.8
나이	20대	58	0.0	1.7	20.7	34.5	43.1	100.0	79.7
	30대	94	0.0	2.1	10.6	36.2	51.1	100.0	84.0
	40대	48	0.0	0.0	12.5	54.2	33.3	100.0	80.2
	50대 이상	12	0.0	8.3	8.3	41.7	41.7	100.0	79.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2.2	18.3	32.3	47.3	100.0	81.2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10.0	53.3	36.7	100.0	81.7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6.4	34.0	57.4	100.0	86.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16.1	51.6	32.3	100.0	79.0
	20년 이상	11	0.0	9.1	9.1	63.6	18.2	100.0	72.7
지역	서울	79	0.0	1.3	11.4	44.3	43.0	100.0	82.3
	부산	4	0.0	0.0	0.0	75.0	25.0	100.0	81.3
	대구	5	0.0	0.0	0.0	0.0	100.0	100.0	100.0
	인천	6	0.0	0.0	16.7	33.3	50.0	100.0	83.3
	대전	14	0.0	0.0	14.3	42.9	42.9	100.0	82.1
	광주	31	0.0	3.2	22.6	35.5	38.7	100.0	77.4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0.0	10.0	30.0	60.0	100.0	87.5
	강원	18	0.0	11.1	16.7	22.2	50.0	100.0	77.8
	충북	6	0.0	0.0	16.7	33.3	50.0	100.0	83.3
	충남	8	0.0	0.0	25.0	62.5	12.5	100.0	71.9
	전북	3	0.0	0.0	0.0	0.0	100.0	100.0	100.0
	전남	17	0.0	0.0	11.8	47.1	41.2	100.0	82.4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0.0	66.7	100.0	83.3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4-1. 7)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1.4	10.8	37.3	50.5	100.0	84.2
소속	변호사	141	0.0	1.4	12.1	40.4	46.1	100.0	82.8
	대학원생	71	0.0	1.4	8.5	31.0	59.2	100.0	87.0
성별	남성	134	0.0	1.5	11.2	37.3	50.0	100.0	84.0
	여성	78	0.0	1.3	10.3	37.2	51.3	100.0	84.6
나이	20대	58	0.0	1.7	10.3	36.2	51.7	100.0	84.5
	30대	94	0.0	2.1	8.5	36.2	53.2	100.0	85.1
	40대	48	0.0	0.0	16.7	39.6	43.8	100.0	81.8
	50대 이상	12	0.0	0.0	8.3	41.7	50.0	100.0	85.4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2.2	7.5	33.3	57.0	100.0	86.3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6.7	43.3	50.0	100.0	8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14.9	36.2	46.8	100.0	81.9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19.4	41.9	38.7	100.0	79.8
	20년 이상	11	0.0	0.0	9.1	45.5	45.5	100.0	84.1
지역	서울	79	0.0	0.0	15.2	35.4	49.4	100.0	83.5
	부산	4	0.0	0.0	0.0	75.0	25.0	100.0	81.3
	대구	5	0.0	0.0	0.0	60.0	40.0	100.0	85.0
	인천	6	0.0	16.7	16.7	33.3	33.3	100.0	70.8
	대전	14	0.0	7.1	14.3	28.6	50.0	100.0	80.4
	광주	31	0.0	0.0	3.2	38.7	58.1	100.0	88.7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0.0	30.0	70.0	100.0	92.5
	강원	18	0.0	5.6	11.1	22.2	61.1	100.0	84.7
	충북	6	0.0	0.0	0.0	33.3	66.7	100.0	91.7
	충남	8	0.0	0.0	12.5	62.5	25.0	100.0	78.1
	전북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전남	17	0.0	0.0	5.9	35.3	58.8	100.0	88.2
	경북	2	0.0	0.0	50.0	0.0	5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4-1. 8)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2.8	14.6	36.3	45.8	100.0	81.0
소속	변호사	141	0.0	4.3	16.3	36.2	43.3	100.0	79.6
	대학원생	71	1.4	0.0	11.3	36.6	50.7	100.0	83.8
성별	남성	134	0.0	3.0	14.2	37.3	45.5	100.0	81.3
	여성	78	1.3	2.6	15.4	34.6	46.2	100.0	80.4
나이	20대	58	0.0	0.0	13.8	37.9	48.3	100.0	83.6
	30대	94	1.1	4.3	13.8	30.9	50.0	100.0	81.1
	40대	48	0.0	4.2	18.8	41.7	35.4	100.0	77.1
	50대 이상	12	0.0	0.0	8.3	50.0	41.7	100.0	83.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1	11.8	35.5	50.5	100.0	83.3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10.0	33.3	53.3	100.0	8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4.3	21.3	31.9	42.6	100.0	78.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16.1	45.2	32.3	100.0	75.8
	20년 이상	11	0.0	0.0	18.2	45.5	36.4	100.0	79.5
지역	서울	79	0.0	5.1	16.5	38.0	40.5	100.0	78.5
	부산	4	0.0	0.0	50.0	25.0	25.0	100.0	68.8
	대구	5	0.0	0.0	0.0	20.0	80.0	100.0	95.0
	인천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대전	14	0.0	0.0	21.4	21.4	57.1	100.0	83.9
	광주	31	3.2	0.0	6.5	38.7	51.6	100.0	83.9
	울산	3	0.0	33.3	0.0	66.7	0.0	100.0	58.3
	경기	10	0.0	0.0	10.0	30.0	60.0	100.0	87.5
	강원	18	0.0	0.0	22.2	33.3	44.4	100.0	80.6
	충북	6	0.0	0.0	0.0	0.0	100.0	100.0	100.0
	충남	8	0.0	0.0	12.5	37.5	50.0	100.0	84.4
	전북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전남	17	0.0	0.0	5.9	47.1	47.1	100.0	85.3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4-1. 9) 기업가 정신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1.4	7.5	33.5	31.6	25.9	100.0	68.3
소속	변호사	141	0.7	4.3	34.0	31.2	29.8	100.0	71.3
	대학원생	71	2.8	14.1	32.4	32.4	18.3	100.0	62.3
성별	남성	134	2.2	9.0	32.1	28.4	28.4	100.0	67.9
	여성	78	0.0	5.1	35.9	37.2	21.8	100.0	68.9
나이	20대	58	3.4	13.8	37.9	29.3	15.5	100.0	59.9
	30대	94	1.1	5.3	21.3	35.1	37.2	100.0	75.5
	40대	48	0.0	4.2	47.9	29.2	18.8	100.0	65.6
	50대 이상	12	0.0	8.3	50.0	25.0	16.7	100.0	62.5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3.2	11.8	31.2	30.1	23.7	100.0	64.8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30.0	26.7	36.7	100.0	73.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25.5	40.4	34.0	100.0	77.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48.4	29.0	16.1	100.0	63.7
	20년 이상	11	0.0	9.1	54.5	27.3	9.1	100.0	59.1
지역	서울	79	0.0	3.8	35.4	30.4	30.4	100.0	71.8
	부산	4	0.0	0.0	25.0	50.0	25.0	100.0	75.0
	대구	5	0.0	0.0	20.0	40.0	40.0	100.0	80.0
	인천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대전	14	0.0	7.1	42.9	35.7	14.3	100.0	64.3
	광주	31	3.2	12.9	25.8	32.3	25.8	100.0	66.1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30.0	30.0	40.0	100.0	77.5
	강원	18	0.0	27.8	27.8	27.8	16.7	100.0	58.3
	충북	6	0.0	0.0	33.3	16.7	50.0	100.0	79.2
	충남	8	0.0	0.0	62.5	12.5	25.0	100.0	65.6
	전북	3	33.3	0.0	0.0	66.7	0.0	100.0	50.0
	전남	17	5.9	17.6	29.4	29.4	17.6	100.0	58.8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4-1. 10) 기술 활용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2.8	18.9	46.2	32.1	100.0	76.9
소속	변호사	141	0.0	2.1	20.6	46.1	31.2	100.0	76.6
	대학원생	71	0.0	4.2	15.5	46.5	33.8	100.0	77.5
성별	남성	134	0.0	3.0	20.9	45.5	30.6	100.0	75.9
	여성	78	0.0	2.6	15.4	47.4	34.6	100.0	78.5
나이	20대	58	0.0	3.4	19.0	43.1	34.5	100.0	77.2
	30대	94	0.0	4.3	14.9	48.9	31.9	100.0	77.1
	40대	48	0.0	0.0	27.1	43.8	29.2	100.0	75.5
	50대 이상	12	0.0	0.0	16.7	50.0	33.3	100.0	79.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3.2	17.2	45.2	34.4	100.0	77.7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10.0	50.0	36.7	100.0	8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4.3	17.0	42.6	36.2	100.0	77.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32.3	51.6	16.1	100.0	71.0
	20년 이상	11	0.0	0.0	27.3	45.5	27.3	100.0	75.0
지역	서울	79	0.0	1.3	24.1	49.4	25.3	100.0	74.7
	부산	4	0.0	0.0	0.0	50.0	50.0	100.0	87.5
	대구	5	0.0	0.0	20.0	60.0	20.0	100.0	75.0
	인천	6	0.0	0.0	16.7	66.7	16.7	100.0	75.0
	대전	14	0.0	0.0	21.4	28.6	50.0	100.0	82.1
	광주	31	0.0	3.2	12.9	45.2	38.7	100.0	79.8
	울산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경기	10	0.0	0.0	10.0	30.0	60.0	100.0	87.5
	강원	18	0.0	5.6	27.8	50.0	16.7	100.0	69.4
	충북	6	0.0	0.0	0.0	33.3	66.7	100.0	91.7
	충남	8	0.0	0.0	25.0	50.0	25.0	100.0	75.0
	전북	3	0.0	33.3	33.3	0.0	33.3	100.0	58.3
	전남	17	0.0	5.9	11.8	41.2	41.2	100.0	79.4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4-1. 11) 외국어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13.7	32.5	42.0	11.3	100.0	62.5
소속	변호사	141	0.7	12.8	31.2	46.1	9.2	100.0	62.6
	대학원생	71	0.0	15.5	35.2	33.8	15.5	100.0	62.3
성별	남성	134	0.7	18.7	27.6	41.8	11.2	100.0	61.0
	여성	78	0.0	5.1	41.0	42.3	11.5	100.0	65.1
나이	20대	58	0.0	10.3	41.4	27.6	20.7	100.0	64.7
	30대	94	1.1	13.8	25.5	48.9	10.6	100.0	63.6
	40대	48	0.0	20.8	35.4	43.8	0.0	100.0	55.7
	50대 이상	12	0.0	0.0	33.3	50.0	16.7	100.0	70.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5.1	34.4	33.3	16.1	100.0	62.1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26.7	53.3	13.3	100.0	68.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0.6	34.0	48.9	6.4	100.0	62.8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25.8	29.0	45.2	0.0	100.0	54.8
	20년 이상	11	0.0	0.0	36.4	45.5	18.2	100.0	70.5
지역	서울	79	1.3	7.6	30.4	49.4	11.4	100.0	65.5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20.0	40.0	40.0	0.0	100.0	55.0
	인천	6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전	14	0.0	14.3	28.6	28.6	28.6	100.0	67.9
	광주	31	0.0	6.5	22.6	51.6	19.4	100.0	71.0
	울산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경기	10	0.0	20.0	30.0	40.0	10.0	100.0	60.0
	강원	18	0.0	33.3	38.9	27.8	0.0	100.0	48.6
	충북	6	0.0	16.7	50.0	33.3	0.0	100.0	54.2
	충남	8	0.0	37.5	50.0	12.5	0.0	100.0	43.8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17.6	52.9	17.6	11.8	100.0	55.9
	경북	2	0.0	50.0	0.0	50.0	0.0	100.0	50.0
	경남	3	0.0	33.3	0.0	66.7	0.0	100.0	58.3
제주	3	0.0	0.0	0.0	33.3	66.7	100.0	91.7	

4-1. 12) 다양성 포용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3.3	30.7	49.1	17.0	100.0	69.9
소속	변호사	141	0.0	4.3	32.6	48.2	14.9	100.0	68.4
	대학원생	71	0.0	1.4	26.8	50.7	21.1	100.0	72.9
성별	남성	134	0.0	3.0	35.1	45.5	16.4	100.0	68.8
	여성	78	0.0	3.8	23.1	55.1	17.9	100.0	71.8
나이	20대	58	0.0	1.7	25.9	53.4	19.0	100.0	72.4
	30대	94	0.0	4.3	31.9	48.9	14.9	100.0	68.6
	40대	48	0.0	4.2	31.3	47.9	16.7	100.0	69.3
	50대 이상	12	0.0	0.0	41.7	33.3	25.0	100.0	70.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3.2	28.0	48.4	20.4	100.0	71.5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26.7	50.0	16.7	100.0	69.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31.9	57.4	10.6	100.0	69.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35.5	45.2	12.9	100.0	66.1
	20년 이상	11	0.0	0.0	45.5	27.3	27.3	100.0	70.5
지역	서울	79	0.0	2.5	29.1	53.2	15.2	100.0	70.3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0.0	20.0	80.0	0.0	100.0	70.0
	인천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대전	14	0.0	7.1	28.6	35.7	28.6	100.0	71.4
	광주	31	0.0	0.0	25.8	51.6	22.6	100.0	74.2
	울산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경기	10	0.0	0.0	40.0	50.0	10.0	100.0	67.5
	강원	18	0.0	11.1	27.8	33.3	27.8	100.0	69.4
	충북	6	0.0	16.7	50.0	33.3	0.0	100.0	54.2
	충남	8	0.0	0.0	50.0	50.0	0.0	100.0	62.5
	전북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전남	17	0.0	0.0	23.5	47.1	29.4	100.0	76.5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66.7	0.0	33.3	100.0	66.7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4-1. 13) 미래 예측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3.3	32.1	44.3	20.3	100.0	70.4
소속	변호사	141	0.0	2.1	31.9	47.5	18.4	100.0	70.6
	대학원생	71	0.0	5.6	32.4	38.0	23.9	100.0	70.1
성별	남성	134	0.0	3.7	35.1	42.5	18.7	100.0	69.0
	여성	78	0.0	2.6	26.9	47.4	23.1	100.0	72.8
나이	20대	58	0.0	5.2	31.0	37.9	25.9	100.0	71.1
	30대	94	0.0	2.1	28.7	51.1	18.1	100.0	71.3
	40대	48	0.0	4.2	39.6	39.6	16.7	100.0	67.2
	50대 이상	12	0.0	0.0	33.3	41.7	25.0	100.0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5.4	30.1	39.8	24.7	100.0	71.0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36.7	40.0	23.3	100.0	71.7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23.4	63.8	10.6	100.0	70.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41.9	35.5	19.4	100.0	67.7
	20년 이상	11	0.0	0.0	45.5	36.4	18.2	100.0	68.2
지역	서울	79	0.0	2.5	32.9	44.3	20.3	100.0	70.6
	부산	4	0.0	0.0	0.0	100.0	0.0	100.0	75.0
	대구	5	0.0	20.0	0.0	80.0	0.0	100.0	65.0
	인천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대전	14	0.0	7.1	28.6	35.7	28.6	100.0	71.4
	광주	31	0.0	0.0	35.5	38.7	25.8	100.0	72.6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10.0	50.0	40.0	100.0	82.5
	강원	18	0.0	5.6	27.8	55.6	11.1	100.0	68.1
	충북	6	0.0	0.0	50.0	33.3	16.7	100.0	66.7
	충남	8	0.0	25.0	62.5	0.0	12.5	100.0	50.0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0.0	35.3	35.3	29.4	100.0	73.5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4-1. 14) 위기 대처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0.5	17.0	48.1	34.4	100.0	79.1
소속	변호사	141	0.0	0.0	21.3	50.4	28.4	100.0	76.8
	대학원생	71	0.0	1.4	8.5	43.7	46.5	100.0	83.8
성별	남성	134	0.0	0.7	20.9	50.0	28.4	100.0	76.5
	여성	78	0.0	0.0	10.3	44.9	44.9	100.0	83.7
나이	20대	58	0.0	1.7	12.1	37.9	48.3	100.0	83.2
	30대	94	0.0	0.0	13.8	56.4	29.8	100.0	79.0
	40대	48	0.0	0.0	27.1	43.8	29.2	100.0	75.5
	50대 이상	12	0.0	0.0	25.0	50.0	25.0	100.0	75.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1.1	11.8	43.0	44.1	100.0	82.5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23.3	43.3	33.3	100.0	7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12.8	66.0	21.3	100.0	77.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29.0	41.9	29.0	100.0	75.0
	20년 이상	11	0.0	0.0	27.3	45.5	27.3	100.0	75.0
지역	서울	79	0.0	0.0	17.7	48.1	34.2	100.0	79.1
	부산	4	0.0	0.0	0.0	100.0	0.0	100.0	75.0
	대구	5	0.0	0.0	0.0	80.0	20.0	100.0	80.0
	인천	6	0.0	0.0	16.7	66.7	16.7	100.0	75.0
	대전	14	0.0	0.0	28.6	42.9	28.6	100.0	75.0
	광주	31	0.0	0.0	3.2	41.9	54.8	100.0	87.9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10.0	40.0	50.0	100.0	85.0
	강원	18	0.0	5.6	22.2	38.9	33.3	100.0	75.0
	충북	6	0.0	0.0	16.7	16.7	66.7	100.0	87.5
	충남	8	0.0	0.0	37.5	50.0	12.5	100.0	68.8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0.0	17.6	41.2	41.2	100.0	80.9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0.0	100.0	0.0	100.0	75.0	

4-1. 15) 이종 학문 분야 학습 및 다학제 간 지식 융합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5.2	23.1	50.9	20.3	100.0	71.3
소속	변호사	141	0.0	5.7	27.0	51.1	16.3	100.0	69.5
	대학원생	71	1.4	4.2	15.5	50.7	28.2	100.0	75.0
성별	남성	134	0.7	4.5	24.6	50.0	20.1	100.0	71.1
	여성	78	0.0	6.4	20.5	52.6	20.5	100.0	71.8
나이	20대	58	1.7	1.7	15.5	53.4	27.6	100.0	75.9
	30대	94	0.0	7.4	22.3	48.9	21.3	100.0	71.0
	40대	48	0.0	6.3	35.4	52.1	6.3	100.0	64.6
	50대 이상	12	0.0	0.0	16.7	50.0	33.3	100.0	79.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6.5	16.1	48.4	28.0	100.0	73.9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16.7	60.0	20.0	100.0	7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29.8	53.2	14.9	100.0	70.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9.7	41.9	45.2	3.2	100.0	60.5
	20년 이상	11	0.0	0.0	18.2	54.5	27.3	100.0	77.3
지역	서울	79	0.0	1.3	24.1	55.7	19.0	100.0	73.1
	부산	4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구	5	0.0	20.0	20.0	40.0	20.0	100.0	65.0
	인천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대전	14	0.0	0.0	14.3	57.1	28.6	100.0	78.6
	광주	31	0.0	6.5	12.9	48.4	32.3	100.0	76.6
	울산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경기	10	0.0	0.0	30.0	50.0	20.0	100.0	72.5
	강원	18	0.0	11.1	22.2	44.4	22.2	100.0	69.4
	충북	6	0.0	0.0	33.3	66.7	0.0	100.0	66.7
	충남	8	0.0	0.0	75.0	25.0	0.0	100.0	56.3
	전북	3	0.0	66.7	0.0	33.3	0.0	100.0	41.7
	전남	17	5.9	0.0	11.8	52.9	29.4	100.0	75.0
	경북	2	0.0	50.0	0.0	50.0	0.0	100.0	50.0
	경남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4-1. 16) 자기주도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5.2	32.5	45.8	16.5	100.0	68.4
소속	변호사	141	0.0	6.4	35.5	44.7	13.5	100.0	66.3
	대학원생	71	0.0	2.8	26.8	47.9	22.5	100.0	72.5
성별	남성	134	0.0	6.7	31.3	48.5	13.4	100.0	67.2
	여성	78	0.0	2.6	34.6	41.0	21.8	100.0	70.5
나이	20대	58	0.0	5.2	31.0	41.4	22.4	100.0	70.3
	30대	94	0.0	3.2	29.8	50.0	17.0	100.0	70.2
	40대	48	0.0	10.4	43.8	35.4	10.4	100.0	61.5
	50대 이상	12	0.0	0.0	16.7	75.0	8.3	100.0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4.3	30.1	45.2	20.4	100.0	70.4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33.3	40.0	23.3	100.0	7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6.4	27.7	51.1	14.9	100.0	68.6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9.7	48.4	35.5	6.5	100.0	59.7
	20년 이상	11	0.0	0.0	27.3	72.7	0.0	100.0	68.2
지역	서울	79	0.0	3.8	38.0	39.2	19.0	100.0	68.4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0.0	16.7	66.7	16.7	100.0	75.0
	대전	14	0.0	7.1	42.9	42.9	7.1	100.0	62.5
	광주	31	0.0	6.5	12.9	54.8	25.8	100.0	75.0
	울산	3	0.0	33.3	0.0	66.7	0.0	100.0	58.3
	경기	10	0.0	0.0	30.0	40.0	30.0	100.0	75.0
	강원	18	0.0	11.1	27.8	44.4	16.7	100.0	66.7
	충북	6	0.0	16.7	33.3	33.3	16.7	100.0	62.5
	충남	8	0.0	0.0	50.0	50.0	0.0	100.0	62.5
	전북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전남	17	0.0	0.0	41.2	41.2	17.6	100.0	69.1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66.7	0.0	100.0	58.3
제주	3	0.0	0.0	0.0	100.0	0.0	100.0	75.0	

4-1. 17) 차별화 전략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0.9	17.5	46.7	34.9	100.0	78.9
소속	변호사	141	0.0	0.7	22.7	46.1	30.5	100.0	76.6
	대학원생	71	0.0	1.4	7.0	47.9	43.7	100.0	83.5
성별	남성	134	0.0	1.5	20.1	44.8	33.6	100.0	77.6
	여성	78	0.0	0.0	12.8	50.0	37.2	100.0	81.1
나이	20대	58	0.0	1.7	12.1	39.7	46.6	100.0	82.8
	30대	94	0.0	0.0	14.9	50.0	35.1	100.0	80.1
	40대	48	0.0	2.1	27.1	45.8	25.0	100.0	73.4
	50대 이상	12	0.0	0.0	25.0	58.3	16.7	100.0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1.1	10.8	46.2	41.9	100.0	82.3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26.7	46.7	26.7	100.0	75.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14.9	48.9	36.2	100.0	80.3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32.3	38.7	25.8	100.0	71.8
	20년 이상	11	0.0	0.0	18.2	63.6	18.2	100.0	75.0
지역	서울	79	0.0	0.0	15.2	48.1	36.7	100.0	80.4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0.0	60.0	20.0	20.0	100.0	65.0
	인천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대전	14	0.0	0.0	28.6	50.0	21.4	100.0	73.2
	광주	31	0.0	0.0	6.5	45.2	48.4	100.0	85.5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20.0	30.0	50.0	100.0	82.5
	강원	18	0.0	5.6	16.7	50.0	27.8	100.0	75.0
	충북	6	0.0	0.0	16.7	50.0	33.3	100.0	79.2
	충남	8	0.0	0.0	37.5	37.5	25.0	100.0	71.9
	전북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전남	17	0.0	0.0	11.8	47.1	41.2	100.0	82.4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4-1. 18) 전체 조망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1.4	12.7	47.6	38.2	100.0	80.7
소속	변호사	141	0.0	1.4	15.6	48.9	34.0	100.0	78.9
	대학원생	71	0.0	1.4	7.0	45.1	46.5	100.0	84.2
성별	남성	134	0.0	2.2	13.4	47.0	37.3	100.0	79.9
	여성	78	0.0	0.0	11.5	48.7	39.7	100.0	82.1
나이	20대	58	0.0	1.7	8.6	43.1	46.6	100.0	83.6
	30대	94	0.0	0.0	14.9	44.7	40.4	100.0	81.4
	40대	48	0.0	4.2	12.5	56.3	27.1	100.0	76.6
	50대 이상	12	0.0	0.0	16.7	58.3	25.0	100.0	77.1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1.1	10.8	44.1	44.1	100.0	82.8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16.7	40.0	43.3	100.0	81.7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14.9	48.9	36.2	100.0	80.3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9.7	61.3	22.6	100.0	75.0
	20년 이상	11	0.0	0.0	18.2	54.5	27.3	100.0	77.3
지역	서울	79	0.0	1.3	12.7	50.6	35.4	100.0	80.1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0.0	40.0	40.0	20.0	100.0	70.0
	인천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대전	14	0.0	0.0	21.4	42.9	35.7	100.0	78.6
	광주	31	0.0	0.0	3.2	41.9	54.8	100.0	87.9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10.0	40.0	50.0	100.0	85.0
	강원	18	0.0	5.6	11.1	44.4	38.9	100.0	79.2
	충북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충남	8	0.0	0.0	12.5	62.5	25.0	100.0	78.1
	전북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전남	17	0.0	0.0	11.8	35.3	52.9	100.0	85.3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4-1. 19) 통찰적 실행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0.9	18.4	46.7	34.0	100.0	78.4
소속	변호사	141	0.0	0.7	21.3	47.5	30.5	100.0	77.0
	대학원생	71	0.0	1.4	12.7	45.1	40.8	100.0	81.3
성별	남성	134	0.0	1.5	19.4	44.0	35.1	100.0	78.2
	여성	78	0.0	0.0	16.7	51.3	32.1	100.0	78.8
나이	20대	58	0.0	1.7	17.2	37.9	43.1	100.0	80.6
	30대	94	0.0	0.0	18.1	51.1	30.9	100.0	78.2
	40대	48	0.0	2.1	18.8	45.8	33.3	100.0	77.6
	50대 이상	12	0.0	0.0	25.0	58.3	16.7	100.0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1.1	16.1	44.1	38.7	100.0	80.1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20.0	50.0	30.0	100.0	7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19.1	46.8	34.0	100.0	78.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19.4	48.4	29.0	100.0	75.8
	20년 이상	11	0.0	0.0	27.3	54.5	18.2	100.0	72.7
지역	서울	79	0.0	0.0	17.7	49.4	32.9	100.0	78.8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0.0	40.0	60.0	0.0	100.0	65.0
	인천	6	0.0	0.0	33.3	33.3	33.3	100.0	75.0
	대전	14	0.0	0.0	28.6	50.0	21.4	100.0	73.2
	광주	31	0.0	0.0	6.5	45.2	48.4	100.0	85.5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20.0	30.0	50.0	100.0	82.5
	강원	18	0.0	5.6	22.2	44.4	27.8	100.0	73.6
	충북	6	0.0	0.0	16.7	50.0	33.3	100.0	79.2
	충남	8	0.0	0.0	12.5	50.0	37.5	100.0	81.3
	전북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전남	17	0.0	0.0	23.5	29.4	47.1	100.0	80.9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4-1. 20) 변화 수용력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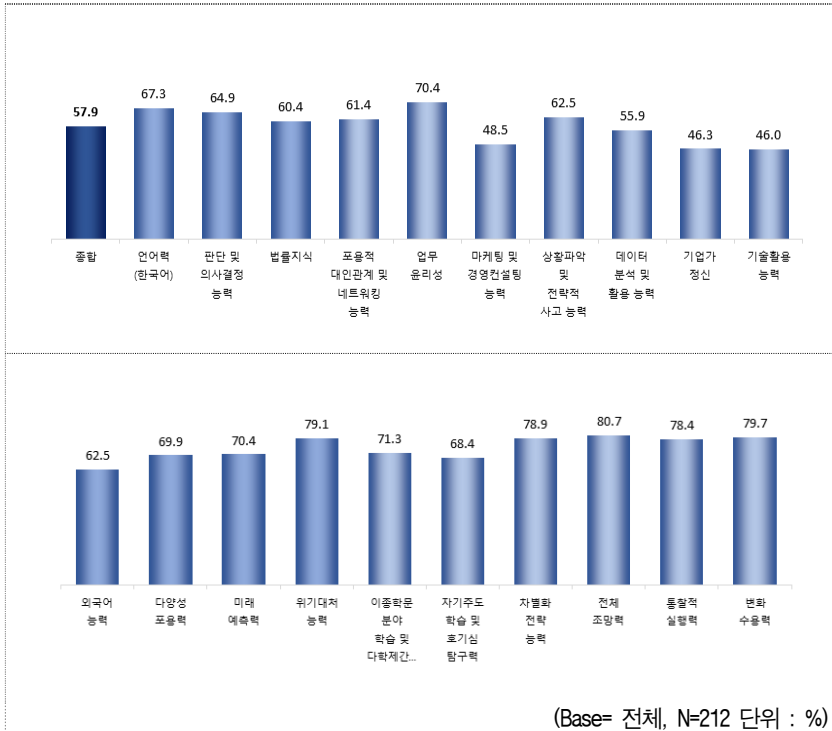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0.9	18.4	41.5	39.2	100.0	79.7
소속	변호사	141	0.0	1.4	19.1	46.1	33.3	100.0	77.8
	대학원생	71	0.0	0.0	16.9	32.4	50.7	100.0	83.5
성별	남성	134	0.0	0.7	17.9	44.0	37.3	100.0	79.5
	여성	78	0.0	1.3	19.2	37.2	42.3	100.0	80.1
나이	20대	58	0.0	0.0	20.7	32.8	46.6	100.0	81.5
	30대	94	0.0	1.1	17.0	44.7	37.2	100.0	79.5
	40대	48	0.0	2.1	16.7	41.7	39.6	100.0	79.7
	50대 이상	12	0.0	0.0	25.0	58.3	16.7	100.0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1.1	19.4	31.2	48.4	100.0	81.7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16.7	56.7	26.7	100.0	7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12.8	48.9	38.3	100.0	81.4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25.8	38.7	32.3	100.0	75.0
	20년 이상	11	0.0	0.0	18.2	63.6	18.2	100.0	75.0
지역	서울	79	0.0	0.0	17.7	44.3	38.0	100.0	80.1
	부산	4	0.0	0.0	0.0	100.0	0.0	100.0	75.0
	대구	5	0.0	20.0	20.0	40.0	20.0	100.0	65.0
	인천	6	0.0	0.0	50.0	16.7	33.3	100.0	70.8
	대전	14	0.0	0.0	21.4	35.7	42.9	100.0	80.4
	광주	31	0.0	0.0	3.2	45.2	51.6	100.0	87.1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30.0	30.0	40.0	100.0	77.5
	강원	18	0.0	0.0	33.3	27.8	38.9	100.0	76.4
	충북	6	0.0	0.0	16.7	33.3	50.0	100.0	83.3
	충남	8	0.0	0.0	25.0	37.5	37.5	100.0	78.1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0.0	17.6	23.5	58.8	100.0	85.3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0.0	0.0	100.0	0.0	100.0	75.0	

4-2.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준비 정도- 종합

조사결과

- » 10년 뒤 법률시장 변호사 역량_ 준비 정도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업무 윤리성’ 이 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어력(한국어)’ (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64.9점), ‘다양성 포용력’ (6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활용 능력’ (46.0점), ‘기업가 정신’ (46.3점),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48.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단위: 점)

각 역량 나의 준비 정도	사례 수 (명)	종합	언어 역량 (한국어)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	법률 지식	포용 적 대인 관계 및 네트 워킹 능력	업무 효율 성	마케 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상황 파악 및 전략 적 사고 능력	데이 터 분석 및 활용 능력	기업 가 정신	기술 활용 능력
[전체]	212	57.9	67.3	64.9	60.4	61.4	70.4	48.5	62.5	55.9	46.3	46.0
소속	변호사	141	57.5	67.9	64.9	65.8	60.6	70.0	47.5	61.0	54.4	47.0
	대학원생	71	58.7	66.2	64.8	49.6	63.0	71.1	50.4	65.5	58.8	45.1
성별	남성	134	57.0	64.9	64.2	59.0	61.0	68.7	51.1	62.1	55.8	48.3
	여성	78	59.4	71.5	66.0	62.8	62.2	73.4	43.9	63.1	56.1	42.9
나이	20대	58	56.8	65.5	61.2	47.4	62.5	71.1	48.3	62.5	54.7	44.0
	30대	94	58.6	68.1	65.4	62.5	60.1	68.9	48.9	62.5	58.8	47.9
	40대	48	57.7	69.3	67.7	70.8	64.1	72.4	46.9	62.0	52.1	45.3
	50대 이상	12	57.9	62.5	66.7	64.6	56.3	70.8	52.1	64.6	54.2	50.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58.8	65.9	62.6	52.4	61.8	71.5	49.2	63.2	58.9	46.5
	3년 이상~ 5년 미만	30	54.4	71.7	65.0	63.3	58.3	63.3	39.2	57.5	50.8	42.5
	5년 이상~ 10년 미만	47	57.8	68.1	66.5	65.4	62.2	70.7	52.1	63.8	55.3	48.9
	10년 이상~ 20년 미만	31	58.2	66.1	68.5	71.8	63.7	72.6	49.2	61.3	54.8	44.4
	20년 이상	11	59.0	68.2	65.9	65.9	56.8	72.7	50.0	68.2	50.0	50.0
지역	서울	79	57.6	66.5	62.3	61.7	58.2	69.6	45.9	60.4	55.1	47.2
	부산	4	52.2	62.5	68.8	62.5	62.5	75.0	50.0	50.0	43.8	43.8
	대구	5	59.5	65.0	70.0	65.0	50.0	70.0	60.0	70.0	60.0	50.0
	인천	6	48.5	62.5	62.5	66.7	54.2	66.7	33.3	54.2	50.0	37.5
	대전	14	58.5	67.9	64.3	64.3	64.3	53.6	58.9	60.7	51.8	51.8
	광주	31	61.8	66.1	66.1	54.0	63.7	75.8	50.0	69.4	62.9	50.0
	울산	3	62.1	75.0	75.0	75.0	75.0	75.0	58.3	66.7	58.3	58.3
	경기	10	59.6	70.0	72.5	77.5	65.0	72.5	47.5	67.5	57.5	42.5
	강원	18	54.4	72.2	68.1	51.4	56.9	68.1	43.1	56.9	54.2	36.1
	충북	6	57.3	83.3	70.8	66.7	58.3	83.3	54.2	62.5	50.0	41.7
	충남	8	54.2	65.6	68.8	59.4	65.6	68.8	43.8	62.5	59.4	37.5
	전북	3	61.3	75.0	66.7	66.7	83.3	83.3	66.7	58.3	41.7	75.0
	전남	17	57.9	64.7	60.3	48.5	69.1	73.5	45.6	66.2	52.9	44.1
	경북	2	55.0	62.5	62.5	75.0	75.0	62.5	50.0	62.5	50.0	37.5
	경남	3	62.1	66.7	75.0	83.3	66.7	66.7	75.0	75.0	66.7	58.3
제주	3	61.7	58.3	50.0	50.0	58.3	75.0	58.3	58.3	75.0	50.0	

(단위: 점)

각 역량의 미래 필요 정도		사례 수 (명)	외국어 능력	다양성 포용력	미래 예측력	위기 대처 능력	이종 학문 분야 학습 및 다학제간 지식 융합력	자기 주도 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차별화 전략 능력	전체 조망력	통찰적 실행력	변화 수용력
[전체]		212	50.6	64.6	52.5	59.2	50.4	58.8	53.1	61.7	60.4	62.7
소속	변호사	141	51.1	63.5	52.1	56.9	49.8	57.8	51.6	61.2	59.6	61.7
	대학원생	71	49.6	66.9	53.2	63.7	51.4	60.9	56.0	62.7	62.0	64.8
성별	남성	134	45.9	62.5	52.4	58.4	50.6	55.6	52.4	60.3	59.0	60.1
	여성	78	58.7	68.3	52.6	60.6	50.0	64.4	54.2	64.1	62.8	67.3
나이	20대	58	52.6	66.4	52.2	59.9	48.3	60.8	51.7	57.3	58.6	64.7
	30대	94	49.2	63.8	52.7	61.4	51.1	59.6	54.3	63.8	61.4	65.7
	40대	48	50.0	65.1	52.6	54.7	51.0	55.2	52.1	62.0	59.9	55.2
	50대 이상	12	54.2	60.4	52.1	56.3	52.1	58.3	54.2	64.6	62.5	60.4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51.9	67.2	54.0	62.9	52.4	61.3	55.1	62.6	61.6	67.2
	3년 이상~5년 미만	30	48.3	65.8	45.0	54.2	44.2	55.8	45.0	60.8	55.0	6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48.9	61.2	53.2	58.0	48.9	56.9	52.7	57.4	60.1	60.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50.0	62.1	54.0	55.6	50.8	58.1	54.0	62.9	60.5	55.6
	20년 이상	11	54.5	61.4	52.3	56.8	54.5	56.8	56.8	70.5	65.9	61.4
지역	서울	79	52.8	65.8	51.3	58.5	50.6	60.4	51.6	62.0	60.4	63.6
	부산	4	50.0	50.0	43.8	37.5	50.0	56.3	43.8	43.8	43.8	56.3
	대구	5	55.0	60.0	50.0	60.0	55.0	55.0	60.0	60.0	60.0	65.0
	인천	6	33.3	62.5	50.0	54.2	29.2	50.0	33.3	41.7	45.8	41.7
	대전	14	51.8	67.9	55.4	58.9	51.8	58.9	53.6	60.7	58.9	66.1
	광주	31	50.0	64.5	57.3	66.9	51.6	66.9	60.5	69.4	67.7	72.6
	울산	3	50.0	66.7	58.3	58.3	41.7	58.3	58.3	66.7	66.7	75.0
	경기	10	47.5	67.5	55.0	57.5	42.5	62.5	60.0	67.5	65.0	57.5
	강원	18	43.1	62.5	47.2	58.3	52.8	52.8	48.6	58.3	58.3	56.9
	충북	6	41.7	62.5	50.0	62.5	50.0	54.2	45.8	54.2	50.0	54.2
	충남	8	43.8	53.1	46.9	53.1	46.9	43.8	53.1	62.5	56.3	50.0
	전북	3	50.0	58.3	66.7	58.3	33.3	50.0	66.7	66.7	66.7	66.7
	전남	17	61.8	72.1	50.0	58.8	57.4	58.8	51.5	60.3	57.4	61.8
	경북	2	50.0	75.0	50.0	37.5	37.5	50.0	50.0	62.5	62.5	50.0
	경남	3	33.3	50.0	75.0	66.7	50.0	50.0	50.0	58.3	66.7	58.3
	제주	3	66.7	58.3	58.3	66.7	75.0	58.3	66.7	58.3	66.7	75.0

4-2. 1) 언어력(한국어)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3.3	35.8	47.2	13.2	100.0	67.3
소속	변호사	141	0.0	2.8	35.5	48.9	12.8	100.0	67.9
	대학원생	71	1.4	4.2	36.6	43.7	14.1	100.0	66.2
성별	남성	134	0.7	3.7	41.8	42.5	11.2	100.0	64.9
	여성	78	0.0	2.6	25.6	55.1	16.7	100.0	71.5
나이	20대	58	1.7	3.4	34.5	51.7	8.6	100.0	65.5
	30대	94	0.0	3.2	36.2	45.7	14.9	100.0	68.1
	40대	48	0.0	2.1	33.3	50.0	14.6	100.0	69.3
	50대 이상	12	0.0	8.3	50.0	25.0	16.7	100.0	62.5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5.4	34.4	47.3	11.8	100.0	65.9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36.7	40.0	23.3	100.0	71.7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31.9	57.4	8.5	100.0	68.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38.7	48.4	9.7	100.0	66.1
	20년 이상	11	0.0	0.0	54.5	18.2	27.3	100.0	68.2
지역	서울	79	0.0	5.1	38.0	43.0	13.9	100.0	66.5
	부산	4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구	5	0.0	0.0	40.0	60.0	0.0	100.0	65.0
	인천	6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전	14	0.0	0.0	42.9	42.9	14.3	100.0	67.9
	광주	31	3.2	3.2	41.9	29.0	22.6	100.0	66.1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30.0	60.0	10.0	100.0	70.0
	강원	18	0.0	5.6	27.8	38.9	27.8	100.0	72.2
	충북	6	0.0	0.0	0.0	66.7	33.3	100.0	83.3
	충남	8	0.0	0.0	37.5	62.5	0.0	100.0	65.6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5.9	29.4	64.7	0.0	100.0	64.7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4-2. 2)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4.7	40.6	45.3	9.4	100.0	64.9
소속	변호사	141	0.0	4.3	39.7	48.2	7.8	100.0	64.9
	대학원생	71	0.0	5.6	42.3	39.4	12.7	100.0	64.8
성별	남성	134	0.0	4.5	44.0	41.8	9.7	100.0	64.2
	여성	78	0.0	5.1	34.6	51.3	9.0	100.0	66.0
나이	20대	58	0.0	6.9	46.6	41.4	5.2	100.0	61.2
	30대	94	0.0	4.3	41.5	42.6	11.7	100.0	65.4
	40대	48	0.0	4.2	29.2	58.3	8.3	100.0	67.7
	50대 이상	12	0.0	0.0	50.0	33.3	16.7	100.0	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7.5	44.1	38.7	9.7	100.0	62.6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50.0	30.0	16.7	100.0	65.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29.8	68.1	0.0	100.0	66.5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38.7	48.4	12.9	100.0	68.5
	20년 이상	11	0.0	9.1	36.4	36.4	18.2	100.0	65.9
지역	서울	79	0.0	6.3	43.0	45.6	5.1	100.0	62.3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0.0	20.0	80.0	0.0	100.0	70.0
	인천	6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전	14	0.0	7.1	42.9	35.7	14.3	100.0	64.3
	광주	31	0.0	9.7	35.5	35.5	19.4	100.0	66.1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30.0	50.0	20.0	100.0	72.5
	강원	18	0.0	0.0	50.0	27.8	22.2	100.0	68.1
	충북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충남	8	0.0	0.0	37.5	50.0	12.5	100.0	68.8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5.9	47.1	47.1	0.0	100.0	60.3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제주	3	0.0	0.0	100.0	0.0	0.0	100.0	50.0	

4-2. 3) 법률 지식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9.0	44.8	40.1	5.7	100.0	60.4
소속	변호사	141	0.0	1.4	41.1	50.4	7.1	100.0	65.8
	대학원생	71	1.4	23.9	52.1	19.7	2.8	100.0	49.6
성별	남성	134	0.7	11.2	44.0	39.6	4.5	100.0	59.0
	여성	78	0.0	5.1	46.2	41.0	7.7	100.0	62.8
나이	20대	58	0.0	27.6	56.9	13.8	1.7	100.0	47.4
	30대	94	1.1	2.1	47.9	43.6	5.3	100.0	62.5
	40대	48	0.0	2.1	25.0	60.4	12.5	100.0	70.8
	50대 이상	12	0.0	0.0	41.7	58.3	0.0	100.0	64.6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8.3	53.8	23.7	3.2	100.0	52.4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50.0	36.7	10.0	100.0	63.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38.3	61.7	0.0	100.0	65.4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29.0	54.8	16.1	100.0	71.8
	20년 이상	11	0.0	9.1	27.3	54.5	9.1	100.0	65.9
지역	서울	79	0.0	5.1	48.1	41.8	5.1	100.0	61.7
	부산	4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구	5	0.0	0.0	40.0	60.0	0.0	100.0	65.0
	인천	6	0.0	0.0	33.3	66.7	0.0	100.0	66.7
	대전	14	0.0	0.0	57.1	28.6	14.3	100.0	64.3
	광주	31	0.0	29.0	32.3	32.3	6.5	100.0	54.0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10.0	70.0	20.0	100.0	77.5
	강원	18	5.6	11.1	61.1	16.7	5.6	100.0	51.4
	충북	6	0.0	0.0	33.3	66.7	0.0	100.0	66.7
	충남	8	0.0	12.5	37.5	50.0	0.0	100.0	59.4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17.6	70.6	11.8	0.0	100.0	48.5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제주	3	0.0	0.0	100.0	0.0	0.0	100.0	50.0	

4-2. 4)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10.4	42.5	34.4	11.8	100.0	61.4
소속	변호사	141	0.7	10.6	44.0	34.8	9.9	100.0	60.6
	대학원생	71	1.4	9.9	39.4	33.8	15.5	100.0	63.0
성별	남성	134	0.7	11.2	42.5	34.3	11.2	100.0	61.0
	여성	78	1.3	9.0	42.3	34.6	12.8	100.0	62.2
나이	20대	58	1.7	6.9	44.8	32.8	13.8	100.0	62.5
	30대	94	1.1	12.8	43.6	29.8	12.8	100.0	60.1
	40대	48	0.0	10.4	33.3	45.8	10.4	100.0	64.1
	50대 이상	12	0.0	8.3	58.3	33.3	0.0	100.0	56.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1.8	41.9	29.0	16.1	100.0	61.8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10.0	53.3	16.7	16.7	100.0	58.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0.6	36.2	46.8	6.4	100.0	62.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38.7	48.4	6.5	100.0	63.7
	20년 이상	11	0.0	9.1	54.5	36.4	0.0	100.0	56.8
지역	서울	79	1.3	15.2	43.0	30.4	10.1	100.0	58.2
	부산	4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구	5	0.0	20.0	60.0	20.0	0.0	100.0	50.0
	인천	6	0.0	16.7	50.0	33.3	0.0	100.0	54.2
	대전	14	0.0	7.1	50.0	21.4	21.4	100.0	64.3
	광주	31	3.2	6.5	35.5	41.9	12.9	100.0	63.7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50.0	40.0	10.0	100.0	65.0
	강원	18	0.0	22.2	38.9	27.8	11.1	100.0	56.9
	충북	6	0.0	16.7	33.3	50.0	0.0	100.0	58.3
	충남	8	0.0	0.0	62.5	12.5	25.0	100.0	65.6
	전북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전남	17	0.0	0.0	47.1	29.4	23.5	100.0	69.1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4-2. 5) 업무 윤리성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1.9	33.0	42.9	21.2	100.0	70.4
소속	변호사	141	0.7	1.4	33.3	46.1	18.4	100.0	70.0
	대학원생	71	1.4	2.8	32.4	36.6	26.8	100.0	71.1
성별	남성	134	0.7	1.5	38.1	41.8	17.9	100.0	68.7
	여성	78	1.3	2.6	24.4	44.9	26.9	100.0	73.4
나이	20대	58	1.7	1.7	31.0	41.4	24.1	100.0	71.1
	30대	94	1.1	2.1	39.4	35.1	22.3	100.0	68.9
	40대	48	0.0	2.1	22.9	58.3	16.7	100.0	72.4
	50대 이상	12	0.0	0.0	33.3	50.0	16.7	100.0	70.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2	1.1	31.2	39.8	25.8	100.0	71.5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46.7	33.3	13.3	100.0	63.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31.9	46.8	19.1	100.0	70.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25.8	58.1	16.1	100.0	72.6
	20년 이상	11	0.0	0.0	36.4	36.4	27.3	100.0	72.7
지역	서울	79	0.0	2.5	38.0	38.0	21.5	100.0	69.6
	부산	4	0.0	0.0	25.0	50.0	25.0	100.0	75.0
	대구	5	0.0	0.0	20.0	80.0	0.0	100.0	70.0
	인천	6	0.0	0.0	50.0	33.3	16.7	100.0	66.7
	대전	14	7.1	7.1	64.3	7.1	14.3	100.0	53.6
	광주	31	3.2	3.2	12.9	48.4	32.3	100.0	75.8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20.0	70.0	10.0	100.0	72.5
	강원	18	0.0	0.0	44.4	38.9	16.7	100.0	68.1
	충북	6	0.0	0.0	0.0	66.7	33.3	100.0	83.3
	충남	8	0.0	0.0	37.5	50.0	12.5	100.0	68.8
	전북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전남	17	0.0	0.0	35.3	35.3	29.4	100.0	73.5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4-2. 6)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2.8	26.4	49.5	16.5	4.7	100.0	48.5
소속	변호사	141	2.8	28.4	49.6	14.2	5.0	100.0	47.5
	대학원생	71	2.8	22.5	49.3	21.1	4.2	100.0	50.4
성별	남성	134	0.7	25.4	48.5	19.4	6.0	100.0	51.1
	여성	78	6.4	28.2	51.3	11.5	2.6	100.0	43.9
나이	20대	58	1.7	25.9	51.7	19.0	1.7	100.0	48.3
	30대	94	5.3	27.7	41.5	17.0	8.5	100.0	48.9
	40대	48	0.0	31.3	52.1	14.6	2.1	100.0	46.9
	50대 이상	12	0.0	0.0	91.7	8.3	0.0	100.0	52.1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3.2	23.7	50.5	18.3	4.3	100.0	49.2
	3년 이상~5년 미만	30	10.0	36.7	43.3	6.7	3.3	100.0	39.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9.8	40.4	21.3	8.5	100.0	52.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25.8	54.8	16.1	3.2	100.0	49.2
	20년 이상	11	0.0	9.1	81.8	9.1	0.0	100.0	50.0
지역	서울	79	3.8	30.4	48.1	13.9	3.8	100.0	45.9
	부산	4	0.0	50.0	25.0	0.0	25.0	100.0	50.0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66.7	33.3	0.0	0.0	100.0	33.3
	대전	14	0.0	14.3	50.0	21.4	14.3	100.0	58.9
	광주	31	3.2	19.4	54.8	19.4	3.2	100.0	50.0
	울산	3	0.0	0.0	66.7	33.3	0.0	100.0	58.3
	경기	10	0.0	40.0	40.0	10.0	10.0	100.0	47.5
	강원	18	5.6	33.3	44.4	16.7	0.0	100.0	43.1
	충북	6	0.0	16.7	50.0	33.3	0.0	100.0	54.2
	충남	8	0.0	37.5	50.0	12.5	0.0	100.0	43.8
	전북	3	0.0	0.0	66.7	0.0	33.3	100.0	66.7
	전남	17	5.9	23.5	52.9	17.6	0.0	100.0	45.6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4-2. 7)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5.7	45.8	39.6	8.5	100.0	62.5
소속	변호사	141	0.7	6.4	46.8	40.4	5.7	100.0	61.0
	대학원생	71	0.0	4.2	43.7	38.0	14.1	100.0	65.5
성별	남성	134	0.0	6.0	47.8	38.1	8.2	100.0	62.1
	여성	78	1.3	5.1	42.3	42.3	9.0	100.0	63.1
나이	20대	58	0.0	1.7	55.2	34.5	8.6	100.0	62.5
	30대	94	1.1	9.6	39.4	38.3	11.7	100.0	62.5
	40대	48	0.0	4.2	45.8	47.9	2.1	100.0	62.0
	50대 이상	12	0.0	0.0	50.0	41.7	8.3	100.0	64.6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5.4	48.4	34.4	11.8	100.0	63.2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10.0	46.7	33.3	6.7	100.0	5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4.3	42.6	46.8	6.4	100.0	63.8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45.2	45.2	3.2	100.0	61.3
	20년 이상	11	0.0	0.0	36.4	54.5	9.1	100.0	68.2
지역	서울	79	1.3	7.6	46.8	36.7	7.6	100.0	60.4
	부산	4	0.0	25.0	50.0	25.0	0.0	100.0	50.0
	대구	5	0.0	0.0	20.0	80.0	0.0	100.0	70.0
	인천	6	0.0	0.0	83.3	16.7	0.0	100.0	54.2
	대전	14	0.0	7.1	57.1	21.4	14.3	100.0	60.7
	광주	31	0.0	0.0	41.9	38.7	19.4	100.0	69.4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40.0	50.0	10.0	100.0	67.5
	강원	18	0.0	16.7	44.4	33.3	5.6	100.0	56.9
	충북	6	0.0	0.0	50.0	50.0	0.0	100.0	62.5
	충남	8	0.0	0.0	50.0	50.0	0.0	100.0	62.5
	전북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전남	17	0.0	5.9	29.4	58.8	5.9	100.0	66.2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4-2. 8)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17.5	47.6	28.8	6.1	100.0	55.9
소속	변호사	141	0.0	18.4	49.6	27.7	4.3	100.0	54.4
	대학원생	71	0.0	15.5	43.7	31.0	9.9	100.0	58.8
성별	남성	134	0.0	17.9	47.0	29.1	6.0	100.0	55.8
	여성	78	0.0	16.7	48.7	28.2	6.4	100.0	56.1
나이	20대	58	0.0	19.0	46.6	31.0	3.4	100.0	54.7
	30대	94	0.0	12.8	47.9	30.9	8.5	100.0	58.8
	40대	48	0.0	25.0	45.8	25.0	4.2	100.0	52.1
	50대 이상	12	0.0	16.7	58.3	16.7	8.3	100.0	54.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12.9	46.2	33.3	7.5	100.0	58.9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26.7	46.7	23.3	3.3	100.0	5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7.0	51.1	25.5	6.4	100.0	55.3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22.6	38.7	35.5	3.2	100.0	54.8
	20년 이상	11	0.0	18.2	72.7	0.0	9.1	100.0	50.0
지역	서울	79	0.0	16.5	51.9	26.6	5.1	100.0	55.1
	부산	4	0.0	25.0	75.0	0.0	0.0	100.0	43.8
	대구	5	0.0	20.0	20.0	60.0	0.0	100.0	60.0
	인천	6	0.0	16.7	66.7	16.7	0.0	100.0	50.0
	대전	14	0.0	21.4	50.0	28.6	0.0	100.0	51.8
	광주	31	0.0	12.9	38.7	32.3	16.1	100.0	62.9
	울산	3	0.0	33.3	0.0	66.7	0.0	100.0	58.3
	경기	10	0.0	10.0	60.0	20.0	10.0	100.0	57.5
	강원	18	0.0	27.8	38.9	22.2	11.1	100.0	54.2
	충북	6	0.0	33.3	33.3	33.3	0.0	100.0	50.0
	충남	8	0.0	12.5	37.5	50.0	0.0	100.0	59.4
	전북	3	0.0	33.3	66.7	0.0	0.0	100.0	41.7
	전남	17	0.0	17.6	52.9	29.4	0.0	100.0	52.9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4-2. 9) 기업가 정신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5.2	21.7	58.5	11.8	2.8	100.0	46.3
소속	변호사	141	3.5	20.6	61.7	12.8	1.4	100.0	47.0
	대학원생	71	8.5	23.9	52.1	9.9	5.6	100.0	45.1
성별	남성	134	4.5	20.9	56.0	14.2	4.5	100.0	48.3
	여성	78	6.4	23.1	62.8	7.7	0.0	100.0	42.9
나이	20대	58	6.9	25.9	55.2	8.6	3.4	100.0	44.0
	30대	94	6.4	19.1	55.3	14.9	4.3	100.0	47.9
	40대	48	2.1	25.0	62.5	10.4	0.0	100.0	45.3
	50대 이상	12	0.0	8.3	83.3	8.3	0.0	100.0	50.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6.5	24.7	50.5	12.9	5.4	100.0	46.5
	3년 이상~5년 미만	30	6.7	16.7	76.7	0.0	0.0	100.0	42.5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19.1	55.3	19.1	2.1	100.0	48.9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25.8	61.3	9.7	0.0	100.0	44.4
	20년 이상	11	0.0	9.1	81.8	9.1	0.0	100.0	50.0
지역	서울	79	3.8	20.3	60.8	13.9	1.3	100.0	47.2
	부산	4	0.0	50.0	25.0	25.0	0.0	100.0	43.8
	대구	5	0.0	20.0	60.0	20.0	0.0	100.0	50.0
	인천	6	16.7	16.7	66.7	0.0	0.0	100.0	37.5
	대전	14	0.0	14.3	64.3	21.4	0.0	100.0	51.8
	광주	31	6.5	22.6	48.4	9.7	12.9	100.0	50.0
	울산	3	0.0	0.0	66.7	33.3	0.0	100.0	58.3
	경기	10	10.0	20.0	60.0	10.0	0.0	100.0	42.5
	강원	18	5.6	44.4	50.0	0.0	0.0	100.0	36.1
	충북	6	0.0	33.3	66.7	0.0	0.0	100.0	41.7
	충남	8	12.5	25.0	62.5	0.0	0.0	100.0	37.5
	전북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전남	17	11.8	11.8	64.7	11.8	0.0	100.0	44.1
	경북	2	0.0	50.0	50.0	0.0	0.0	100.0	37.5
	경남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제주	3	0.0	0.0	100.0	0.0	0.0	100.0	50.0	

4-2. 10) 기술 활용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4.2	27.8	50.5	14.6	2.8	100.0	46.0
소속	변호사	141	5.0	24.8	56.7	12.1	1.4	100.0	45.0
	대학원생	71	2.8	33.8	38.0	19.7	5.6	100.0	47.9
성별	남성	134	3.7	23.9	53.7	17.2	1.5	100.0	47.2
	여성	78	5.1	34.6	44.9	10.3	5.1	100.0	43.9
나이	20대	58	1.7	39.7	36.2	17.2	5.2	100.0	46.1
	30대	94	8.5	19.1	53.2	16.0	3.2	100.0	46.5
	40대	48	0.0	27.1	62.5	10.4	0.0	100.0	45.8
	50대 이상	12	0.0	41.7	50.0	8.3	0.0	100.0	41.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4.3	30.1	43.0	17.2	5.4	100.0	47.3
	3년 이상~5년 미만	30	10.0	30.0	43.3	16.7	0.0	100.0	41.7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27.7	51.1	14.9	2.1	100.0	45.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12.9	80.6	6.5	0.0	100.0	48.4
	20년 이상	11	0.0	45.5	45.5	9.1	0.0	100.0	40.9
지역	서울	79	3.8	22.8	57.0	13.9	2.5	100.0	47.2
	부산	4	0.0	25.0	50.0	25.0	0.0	100.0	50.0
	대구	5	0.0	40.0	20.0	40.0	0.0	100.0	50.0
	인천	6	0.0	33.3	66.7	0.0	0.0	100.0	41.7
	대전	14	0.0	28.6	57.1	7.1	7.1	100.0	48.2
	광주	31	0.0	32.3	38.7	22.6	6.5	100.0	50.8
	울산	3	66.7	0.0	0.0	33.3	0.0	100.0	25.0
	경기	10	0.0	50.0	50.0	0.0	0.0	100.0	37.5
	강원	18	5.6	33.3	44.4	16.7	0.0	100.0	43.1
	충북	6	0.0	33.3	33.3	33.3	0.0	100.0	50.0
	충남	8	12.5	12.5	62.5	12.5	0.0	100.0	43.8
	전북	3	33.3	33.3	33.3	0.0	0.0	100.0	25.0
	전남	17	5.9	35.3	41.2	11.8	5.9	100.0	44.1
	경북	2	0.0	50.0	50.0	0.0	0.0	100.0	37.5
	경남	3	0.0	0.0	100.0	0.0	0.0	100.0	50.0
제주	3	0.0	0.0	100.0	0.0	0.0	100.0	50.0	

4-2. 11) 외국어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5.7	19.3	47.2	22.6	5.2	100.0	50.6
소속	변호사	141	4.3	20.6	46.8	23.4	5.0	100.0	51.1
	대학원생	71	8.5	16.9	47.9	21.1	5.6	100.0	49.6
성별	남성	134	7.5	22.4	53.0	13.4	3.7	100.0	45.9
	여성	78	2.6	14.1	37.2	38.5	7.7	100.0	58.7
나이	20대	58	5.2	15.5	46.6	29.3	3.4	100.0	52.6
	30대	94	8.5	20.2	45.7	17.0	8.5	100.0	49.2
	40대	48	2.1	25.0	45.8	25.0	2.1	100.0	50.0
	50대 이상	12	0.0	8.3	66.7	25.0	0.0	100.0	54.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6.5	16.1	47.3	23.7	6.5	100.0	51.9
	3년 이상~5년 미만	30	10.0	16.7	50.0	16.7	6.7	100.0	48.3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27.7	40.4	23.4	4.3	100.0	48.9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19.4	54.8	19.4	3.2	100.0	50.0
	20년 이상	11	0.0	18.2	45.5	36.4	0.0	100.0	54.5
지역	서울	79	5.1	19.0	43.0	25.3	7.6	100.0	52.8
	부산	4	0.0	25.0	50.0	25.0	0.0	100.0	50.0
	대구	5	0.0	0.0	80.0	20.0	0.0	100.0	55.0
	인천	6	16.7	33.3	50.0	0.0	0.0	100.0	33.3
	대전	14	0.0	21.4	57.1	14.3	7.1	100.0	51.8
	광주	31	9.7	16.1	45.2	22.6	6.5	100.0	50.0
	울산	3	33.3	0.0	0.0	66.7	0.0	100.0	50.0
	경기	10	0.0	30.0	50.0	20.0	0.0	100.0	47.5
	강원	18	5.6	22.2	66.7	5.6	0.0	100.0	43.1
	충북	6	0.0	50.0	33.3	16.7	0.0	100.0	41.7
	충남	8	12.5	0.0	87.5	0.0	0.0	100.0	43.8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5.9	0.0	41.2	47.1	5.9	100.0	61.8
	경북	2	0.0	50.0	0.0	50.0	0.0	100.0	50.0
	경남	3	0.0	66.7	33.3	0.0	0.0	100.0	33.3
제주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4-2. 12) 다양성 포용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2.4	44.8	41.0	10.8	100.0	64.6
소속	변호사	141	0.7	1.4	48.2	42.6	7.1	100.0	63.5
	대학원생	71	1.4	4.2	38.0	38.0	18.3	100.0	66.9
성별	남성	134	0.7	3.0	49.3	39.6	7.5	100.0	62.5
	여성	78	1.3	1.3	37.2	43.6	16.7	100.0	68.3
나이	20대	58	1.7	5.2	34.5	43.1	15.5	100.0	66.4
	30대	94	1.1	0.0	51.1	38.3	9.6	100.0	63.8
	40대	48	0.0	4.2	41.7	43.8	10.4	100.0	65.1
	50대 이상	12	0.0	0.0	58.3	41.7	0.0	100.0	60.4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3.2	37.6	41.9	16.1	100.0	67.2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0.0	43.3	36.7	16.7	100.0	6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57.4	40.4	2.1	100.0	61.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41.9	48.4	3.2	100.0	62.1
	20년 이상	11	0.0	0.0	63.6	27.3	9.1	100.0	61.4
지역	서울	79	1.3	0.0	44.3	43.0	11.4	100.0	65.8
	부산	4	0.0	25.0	50.0	25.0	0.0	100.0	50.0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전	14	0.0	0.0	42.9	42.9	14.3	100.0	67.9
	광주	31	3.2	6.5	29.0	51.6	9.7	100.0	64.5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40.0	50.0	10.0	100.0	67.5
	강원	18	0.0	5.6	50.0	33.3	11.1	100.0	62.5
	충북	6	0.0	0.0	50.0	50.0	0.0	100.0	62.5
	충남	8	0.0	0.0	87.5	12.5	0.0	100.0	53.1
	전북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전남	17	0.0	0.0	47.1	17.6	35.3	100.0	72.1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4-2. 13) 미래 예측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13.2	63.7	19.3	2.8	100.0	52.5
소속	변호사	141	0.7	13.5	64.5	19.1	2.1	100.0	52.1
	대학원생	71	1.4	12.7	62.0	19.7	4.2	100.0	53.2
성별	남성	134	0.7	11.9	65.7	20.1	1.5	100.0	52.4
	여성	78	1.3	15.4	60.3	17.9	5.1	100.0	52.6
나이	20대	58	0.0	13.8	67.2	15.5	3.4	100.0	52.2
	30대	94	2.1	14.9	57.4	21.3	4.3	100.0	52.7
	40대	48	0.0	12.5	64.6	22.9	0.0	100.0	52.6
	50대 이상	12	0.0	0.0	91.7	8.3	0.0	100.0	52.1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1.8	62.4	19.4	5.4	100.0	54.0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20.0	70.0	6.7	0.0	100.0	45.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4.9	59.6	23.4	2.1	100.0	53.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12.9	58.1	29.0	0.0	100.0	54.0
	20년 이상	11	0.0	0.0	90.9	9.1	0.0	100.0	52.3
지역	서울	79	1.3	15.2	62.0	20.3	1.3	100.0	51.3
	부산	4	0.0	25.0	75.0	0.0	0.0	100.0	43.8
	대구	5	0.0	0.0	100.0	0.0	0.0	100.0	50.0
	인천	6	0.0	16.7	66.7	16.7	0.0	100.0	50.0
	대전	14	0.0	14.3	64.3	7.1	14.3	100.0	55.4
	광주	31	0.0	6.5	61.3	29.0	3.2	100.0	57.3
	울산	3	0.0	33.3	0.0	66.7	0.0	100.0	58.3
	경기	10	0.0	0.0	80.0	20.0	0.0	100.0	55.0
	강원	18	5.6	16.7	61.1	16.7	0.0	100.0	47.2
	충북	6	0.0	16.7	66.7	16.7	0.0	100.0	50.0
	충남	8	0.0	25.0	62.5	12.5	0.0	100.0	46.9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17.6	70.6	5.9	5.9	100.0	50.0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4-2. 14) 위기 대처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6.6	53.8	32.1	6.6	100.0	59.2
소속	변호사	141	0.7	9.2	57.4	27.0	5.7	100.0	56.9
	대학원생	71	1.4	1.4	46.5	42.3	8.5	100.0	63.7
성별	남성	134	0.7	5.2	59.0	29.9	5.2	100.0	58.4
	여성	78	1.3	9.0	44.9	35.9	9.0	100.0	60.6
나이	20대	58	1.7	3.4	51.7	39.7	3.4	100.0	59.9
	30대	94	1.1	7.4	46.8	34.0	10.6	100.0	61.4
	40대	48	0.0	10.4	62.5	25.0	2.1	100.0	54.7
	50대 이상	12	0.0	0.0	83.3	8.3	8.3	100.0	56.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2.2	49.5	38.7	8.6	100.0	62.9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10.0	60.0	20.0	6.7	100.0	5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2.8	46.8	36.2	4.3	100.0	58.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9.7	61.3	25.8	3.2	100.0	55.6
	20년 이상	11	0.0	0.0	81.8	9.1	9.1	100.0	56.8
지역	서울	79	1.3	6.3	55.7	30.4	6.3	100.0	58.5
	부산	4	0.0	50.0	50.0	0.0	0.0	100.0	37.5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16.7	50.0	33.3	0.0	100.0	54.2
	대전	14	0.0	0.0	71.4	21.4	7.1	100.0	58.9
	광주	31	3.2	0.0	35.5	48.4	12.9	100.0	66.9
	울산	3	0.0	33.3	0.0	66.7	0.0	100.0	58.3
	경기	10	0.0	0.0	80.0	10.0	10.0	100.0	57.5
	강원	18	0.0	0.0	72.2	22.2	5.6	100.0	58.3
	충북	6	0.0	16.7	33.3	33.3	16.7	100.0	62.5
	충남	8	0.0	12.5	62.5	25.0	0.0	100.0	53.1
	전북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전남	17	0.0	11.8	47.1	35.3	5.9	100.0	58.8
	경북	2	0.0	50.0	50.0	0.0	0.0	100.0	37.5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4-2. 15) 이중 학문 분야 학습 및 다학제 간 지식 융합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3.8	19.3	53.3	18.9	4.7	100.0	50.4
소속	변호사	141	3.5	19.9	52.5	22.0	2.1	100.0	49.8
	대학원생	71	4.2	18.3	54.9	12.7	9.9	100.0	51.4
성별	남성	134	2.2	18.7	57.5	17.9	3.7	100.0	50.6
	여성	78	6.4	20.5	46.2	20.5	6.4	100.0	50.0
나이	20대	58	5.2	19.0	58.6	12.1	5.2	100.0	48.3
	30대	94	5.3	17.0	51.1	21.3	5.3	100.0	51.1
	40대	48	0.0	20.8	56.3	20.8	2.1	100.0	51.0
	50대 이상	12	0.0	33.3	33.3	25.0	8.3	100.0	52.1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3.2	17.2	54.8	16.1	8.6	100.0	52.4
	3년 이상~5년 미만	30	10.0	23.3	46.7	20.0	0.0	100.0	4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17.0	57.4	21.3	0.0	100.0	48.9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22.6	54.8	19.4	3.2	100.0	50.8
	20년 이상	11	0.0	27.3	36.4	27.3	9.1	100.0	54.5
지역	서울	79	2.5	20.3	51.9	22.8	2.5	100.0	50.6
	부산	4	0.0	25.0	50.0	25.0	0.0	100.0	50.0
	대구	5	0.0	0.0	80.0	20.0	0.0	100.0	55.0
	인천	6	16.7	50.0	33.3	0.0	0.0	100.0	29.2
	대전	14	7.1	0.0	71.4	21.4	0.0	100.0	51.8
	광주	31	3.2	22.6	51.6	9.7	12.9	100.0	51.6
	울산	3	33.3	0.0	33.3	33.3	0.0	100.0	41.7
	경기	10	0.0	50.0	30.0	20.0	0.0	100.0	42.5
	강원	18	0.0	16.7	61.1	16.7	5.6	100.0	52.8
	충북	6	0.0	16.7	66.7	16.7	0.0	100.0	50.0
	충남	8	0.0	12.5	87.5	0.0	0.0	100.0	46.9
	전북	3	33.3	33.3	0.0	33.3	0.0	100.0	33.3
	전남	17	5.9	11.8	41.2	29.4	11.8	100.0	57.4
	경북	2	0.0	50.0	50.0	0.0	0.0	100.0	37.5
	경남	3	0.0	0.0	100.0	0.0	0.0	100.0	50.0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4-2. 16) 자기주도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8.5	52.4	30.7	7.5	100.0	58.8
소속	변호사	141	0.0	9.2	54.6	31.9	4.3	100.0	57.8
	대학원생	71	2.8	7.0	47.9	28.2	14.1	100.0	60.9
성별	남성	134	1.5	6.7	62.7	26.1	3.0	100.0	55.6
	여성	78	0.0	11.5	34.6	38.5	15.4	100.0	64.4
나이	20대	58	1.7	8.6	48.3	27.6	13.8	100.0	60.8
	30대	94	1.1	7.4	51.1	33.0	7.4	100.0	59.6
	40대	48	0.0	10.4	60.4	27.1	2.1	100.0	55.2
	50대 이상	12	0.0	8.3	50.0	41.7	0.0	100.0	58.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2	6.5	46.2	34.4	10.8	100.0	61.3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20.0	46.7	23.3	10.0	100.0	5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4.3	68.1	23.4	4.3	100.0	56.9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58.1	32.3	3.2	100.0	58.1
	20년 이상	11	0.0	18.2	36.4	45.5	0.0	100.0	56.8
지역	서울	79	0.0	11.4	44.3	35.4	8.9	100.0	60.4
	부산	4	0.0	0.0	75.0	25.0	0.0	100.0	56.3
	대구	5	0.0	0.0	80.0	20.0	0.0	100.0	55.0
	인천	6	0.0	0.0	100.0	0.0	0.0	100.0	50.0
	대전	14	0.0	0.0	64.3	35.7	0.0	100.0	58.9
	광주	31	0.0	6.5	38.7	35.5	19.4	100.0	66.9
	울산	3	0.0	33.3	0.0	66.7	0.0	100.0	58.3
	경기	10	0.0	0.0	50.0	50.0	0.0	100.0	62.5
	강원	18	5.6	0.0	72.2	22.2	0.0	100.0	52.8
	충북	6	0.0	16.7	66.7	0.0	16.7	100.0	54.2
	충남	8	0.0	25.0	75.0	0.0	0.0	100.0	43.8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5.9	11.8	35.3	35.3	11.8	100.0	58.8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100.0	0.0	0.0	100.0	50.0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4-2. 17) 차별화 전략 능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1.9	17.5	51.4	25.0	4.2	100.0	53.1
소속	변호사	141	1.4	18.4	54.6	23.4	2.1	100.0	51.6
	대학원생	71	2.8	15.5	45.1	28.2	8.5	100.0	56.0
성별	남성	134	1.5	18.7	50.7	26.9	2.2	100.0	52.4
	여성	78	2.6	15.4	52.6	21.8	7.7	100.0	54.2
나이	20대	58	1.7	20.7	51.7	20.7	5.2	100.0	51.7
	30대	94	3.2	18.1	42.6	30.9	5.3	100.0	54.3
	40대	48	0.0	12.5	68.8	16.7	2.1	100.0	52.1
	50대 이상	12	0.0	16.7	50.0	33.3	0.0	100.0	54.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2	17.2	46.2	26.9	7.5	100.0	55.1
	3년 이상~5년 미만	30	6.7	23.3	53.3	16.7	0.0	100.0	45.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3.4	44.7	29.8	2.1	100.0	52.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74.2	16.1	3.2	100.0	54.0
	20년 이상	11	0.0	9.1	54.5	36.4	0.0	100.0	56.8
지역	서울	79	2.5	19.0	50.6	25.3	2.5	100.0	51.6
	부산	4	0.0	50.0	25.0	25.0	0.0	100.0	43.8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66.7	33.3	0.0	0.0	100.0	33.3
	대전	14	0.0	21.4	42.9	35.7	0.0	100.0	53.6
	광주	31	0.0	12.9	48.4	22.6	16.1	100.0	60.5
	울산	3	0.0	0.0	66.7	33.3	0.0	100.0	58.3
	경기	10	0.0	0.0	70.0	20.0	10.0	100.0	60.0
	강원	18	5.6	16.7	55.6	22.2	0.0	100.0	48.6
	충북	6	0.0	16.7	83.3	0.0	0.0	100.0	45.8
	충남	8	0.0	12.5	62.5	25.0	0.0	100.0	53.1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5.9	23.5	35.3	29.4	5.9	100.0	51.5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100.0	0.0	0.0	100.0	50.0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4-2. 18) 전체 조망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7.1	46.7	36.8	9.0	100.0	61.7
소속	변호사	141	0.7	5.7	49.6	36.2	7.8	100.0	61.2
	대학원생	71	0.0	9.9	40.8	38.0	11.3	100.0	62.7
성별	남성	134	0.0	8.2	49.3	35.8	6.7	100.0	60.3
	여성	78	1.3	5.1	42.3	38.5	12.8	100.0	64.1
나이	20대	58	0.0	12.1	51.7	31.0	5.2	100.0	57.3
	30대	94	1.1	5.3	44.7	35.1	13.8	100.0	63.8
	40대	48	0.0	6.3	43.8	45.8	4.2	100.0	62.0
	50대 이상	12	0.0	0.0	50.0	41.7	8.3	100.0	64.6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8.6	45.2	33.3	12.9	100.0	62.6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3.3	50.0	33.3	10.0	100.0	6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0.6	51.1	36.2	2.1	100.0	57.4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48.4	41.9	6.5	100.0	62.9
	20년 이상	11	0.0	0.0	27.3	63.6	9.1	100.0	70.5
지역	서울	79	1.3	8.9	40.5	39.2	10.1	100.0	62.0
	부산	4	0.0	25.0	75.0	0.0	0.0	100.0	43.8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33.3	66.7	0.0	0.0	100.0	41.7
	대전	14	0.0	0.0	64.3	28.6	7.1	100.0	60.7
	광주	31	0.0	6.5	29.0	45.2	19.4	100.0	69.4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40.0	50.0	10.0	100.0	67.5
	강원	18	0.0	11.1	55.6	22.2	11.1	100.0	58.3
	충북	6	0.0	0.0	83.3	16.7	0.0	100.0	54.2
	충남	8	0.0	0.0	50.0	50.0	0.0	100.0	62.5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5.9	52.9	35.3	5.9	100.0	60.3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4-2. 19) 통찰적 실행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6.6	51.9	31.1	9.4	100.0	60.4
소속	변호사	141	1.4	6.4	53.2	30.5	8.5	100.0	59.6
	대학원생	71	0.0	7.0	49.3	32.4	11.3	100.0	62.0
성별	남성	134	0.0	6.7	57.5	29.1	6.7	100.0	59.0
	여성	78	2.6	6.4	42.3	34.6	14.1	100.0	62.8
나이	20대	58	0.0	8.6	55.2	29.3	6.9	100.0	58.6
	30대	94	2.1	6.4	46.8	33.0	11.7	100.0	61.4
	40대	48	0.0	6.3	56.3	29.2	8.3	100.0	59.9
	50대 이상	12	0.0	0.0	58.3	33.3	8.3	100.0	62.5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6.5	52.7	29.0	11.8	100.0	61.6
	3년 이상~5년 미만	30	6.7	6.7	53.3	26.7	6.7	100.0	55.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0.6	44.7	38.3	6.4	100.0	60.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61.3	25.8	9.7	100.0	60.5
	20년 이상	11	0.0	0.0	45.5	45.5	9.1	100.0	65.9
지역	서울	79	2.5	5.1	51.9	29.1	11.4	100.0	60.4
	부산	4	0.0	25.0	75.0	0.0	0.0	100.0	43.8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33.3	50.0	16.7	0.0	100.0	45.8
	대전	14	0.0	7.1	57.1	28.6	7.1	100.0	58.9
	광주	31	0.0	6.5	32.3	45.2	16.1	100.0	67.7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50.0	40.0	10.0	100.0	65.0
	강원	18	0.0	0.0	72.2	22.2	5.6	100.0	58.3
	충북	6	0.0	16.7	66.7	16.7	0.0	100.0	50.0
	충남	8	0.0	0.0	75.0	25.0	0.0	100.0	56.3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17.6	47.1	23.5	11.8	100.0	57.4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66.7	0.0	33.3	100.0	66.7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4-2. 20) 변화 수용력

응답자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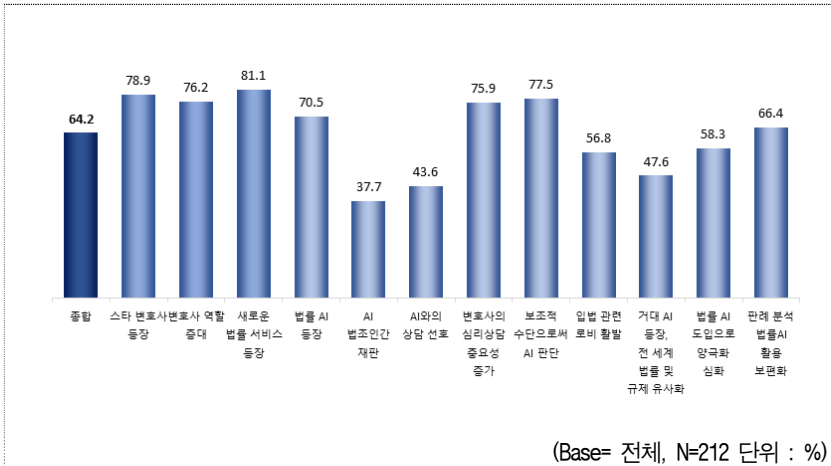
		사례 수 (명)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됨	매우 준비 잘 됨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6.6	47.2	34.9	11.3	100.0	62.7
소속	변호사	141	0.0	4.3	52.5	35.5	7.8	100.0	61.7
	대학원생	71	0.0	11.3	36.6	33.8	18.3	100.0	64.8
성별	남성	134	0.0	9.0	50.7	31.3	9.0	100.0	60.1
	여성	78	0.0	2.6	41.0	41.0	15.4	100.0	67.3
나이	20대	58	0.0	10.3	34.5	41.4	13.8	100.0	64.7
	30대	94	0.0	5.3	41.5	38.3	14.9	100.0	65.7
	40대	48	0.0	6.3	68.8	22.9	2.1	100.0	55.2
	50대 이상	12	0.0	0.0	66.7	25.0	8.3	100.0	60.4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7.5	34.4	39.8	18.3	100.0	67.2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53.3	30.0	10.0	100.0	6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6.4	51.1	38.3	4.3	100.0	60.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67.7	22.6	3.2	100.0	55.6
	20년 이상	11	0.0	0.0	63.6	27.3	9.1	100.0	61.4
지역	서울	79	0.0	3.8	50.6	32.9	12.7	100.0	63.6
	부산	4	0.0	0.0	75.0	25.0	0.0	100.0	56.3
	대구	5	0.0	0.0	40.0	60.0	0.0	100.0	65.0
	인천	6	0.0	33.3	66.7	0.0	0.0	100.0	41.7
	대전	14	0.0	7.1	35.7	42.9	14.3	100.0	66.1
	광주	31	0.0	3.2	29.0	41.9	25.8	100.0	72.6
	울산	3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기	10	0.0	0.0	70.0	30.0	0.0	100.0	57.5
	강원	18	0.0	11.1	61.1	16.7	11.1	100.0	56.9
	충북	6	0.0	0.0	83.3	16.7	0.0	100.0	54.2
	충남	8	0.0	25.0	50.0	25.0	0.0	100.0	50.0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11.8	41.2	35.3	11.8	100.0	61.8
	경북	2	0.0	50.0	0.0	5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제주	3	0.0	0.0	0.0	100.0	0.0	100.0	75.0	

5-1.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가능성- 종합

Q5. 다음은 10년 뒤의 법률시장을 예측한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각 시나리오를 읽고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한다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의 수준을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 ▶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가능성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 이 8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타 변호사 등장’ (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 (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 법조인간 재판’ (37.7점), ‘AI와의 상담 선호’ (43.6점),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47.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단위: 점)

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사례 수 (명)	종합	스타 변호사 등장	변호사 역할 증대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	법률 AI 등장	AI 법조인간 재판	AI와의 상담 선호	변호사의 심리상담 요청 증가	보조적 수단으로써 판단	입법 관련 로비 활발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법률 AI 도입으로 양극화 심화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
[전체]		212	64.2	78.9	76.2	81.1	70.5	37.7	43.6	75.9	77.5	56.8	47.6	58.3	66.4
소속	변호사	141	64.4	77.3	74.6	79.8	69.9	40.2	45.4	75.4	76.2	58.9	49.8	58.7	66.5
	대학원생	71	63.9	82.0	79.2	83.8	71.8	32.7	40.1	77.1	79.9	52.8	43.3	57.4	66.2
성별	남성	134	64.2	77.2	75.2	81.5	71.3	38.2	45.7	75.2	76.9	56.7	48.9	58.8	65.3
	여성	78	64.2	81.7	77.9	80.4	69.2	36.9	40.1	77.2	78.5	57.1	45.5	57.4	68.3
나이	20대	58	64.3	79.7	78.4	82.3	71.6	34.9	38.8	75.4	81.9	55.2	48.3	59.9	65.5
	30대	94	62.6	81.6	75.0	80.9	66.8	34.0	40.7	76.6	77.7	55.1	42.3	55.3	64.9
	40대	48	66.7	75.0	76.0	81.8	76.0	44.3	52.1	77.1	73.4	60.4	53.6	59.9	70.3
	50대 이상	12	66.8	68.8	75.0	75.0	72.9	54.2	56.3	68.8	70.8	64.6	62.5	66.7	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65.0	83.6	80.1	82.8	71.8	35.2	41.7	77.2	81.7	55.9	46.0	57.5	66.4
	3년 이상~5년 미만	30	63.0	77.5	74.2	83.3	65.8	34.2	36.7	78.3	74.2	52.5	50.8	57.5	7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62.0	77.7	71.8	81.4	68.1	35.1	41.5	75.0	77.7	55.9	44.7	54.3	61.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65.9	72.6	72.6	77.4	75.0	47.6	55.6	73.4	70.2	62.9	50.0	65.3	68.5
	20년 이상	11	65.7	65.9	77.3	70.5	70.5	52.3	54.5	70.5	70.5	63.6	59.1	63.6	70.5
지역	서울	79	63.8	77.8	75.0	75.9	69.9	38.3	44.3	74.4	75.9	59.5	50.6	57.9	65.8
	부산	4	68.2	93.8	81.3	93.8	81.3	43.8	37.5	75.0	68.8	56.3	43.8	68.8	75.0
	대구	5	67.9	85.0	85.0	100.0	75.0	50.0	50.0	75.0	80.0	50.0	50.0	60.0	55.0
	인천	6	62.2	70.8	70.8	83.3	62.5	33.3	50.0	66.7	79.2	50.0	50.0	66.7	62.5
	대전	14	62.9	83.9	73.2	82.1	66.1	39.3	39.3	76.8	75.0	53.6	46.4	51.8	67.9
	광주	31	64.9	83.1	79.8	84.7	70.2	34.7	46.8	75.8	83.1	53.2	48.4	54.8	63.7
	울산	3	66.0	83.3	66.7	91.7	83.3	25.0	25.0	83.3	91.7	66.7	41.7	66.7	66.7
	경기	10	67.9	75.0	77.5	90.0	80.0	47.5	45.0	80.0	77.5	60.0	47.5	62.5	72.5
	강원	18	61.7	72.2	75.0	76.4	66.7	31.9	45.8	77.8	76.4	50.0	44.4	61.1	62.5
	충북	6	65.6	91.7	75.0	91.7	70.8	29.2	37.5	79.2	83.3	50.0	45.8	54.2	79.2
	충남	8	68.0	81.3	78.1	78.1	78.1	53.1	53.1	75.0	81.3	65.6	46.9	59.4	65.6
	전북	3	54.9	66.7	50.0	75.0	50.0	33.3	33.3	83.3	75.0	50.0	41.7	50.0	50.0
	전남	17	64.8	76.5	82.4	86.8	73.5	29.4	29.4	82.4	77.9	58.8	44.1	61.8	75.0
	경북	2	63.5	75.0	75.0	62.5	62.5	62.5	62.5	75.0	50.0	50.0	62.5	62.5	62.5
	경남	3	63.2	75.0	66.7	83.3	66.7	50.0	58.3	66.7	83.3	58.3	33.3	58.3	58.3
제주	3	63.2	75.0	83.3	83.3	75.0	41.7	50.0	66.7	58.3	75.0	25.0	50.0	75.0	

5-1. 1) 스타 변호사 등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4.7	15.1	40.1	40.1	100.0	78.9
소속	변호사	141	0.0	5.7	17.0	39.7	37.6	100.0	77.3
	대학원생	71	0.0	2.8	11.3	40.8	45.1	100.0	82.0
성별	남성	134	0.0	7.5	14.9	38.8	38.8	100.0	77.2
	여성	78	0.0	0.0	15.4	42.3	42.3	100.0	81.7
나이	20대	58	0.0	3.4	15.5	39.7	41.4	100.0	79.7
	30대	94	0.0	4.3	13.8	33.0	48.9	100.0	81.6
	40대	48	0.0	6.3	16.7	47.9	29.2	100.0	75.0
	50대 이상	12	0.0	8.3	16.7	66.7	8.3	100.0	68.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2.2	9.7	39.8	48.4	100.0	83.6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16.7	36.7	40.0	100.0	7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6.4	19.1	31.9	42.6	100.0	77.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19.4	51.6	22.6	100.0	72.6
	20년 이상	11	0.0	9.1	27.3	54.5	9.1	100.0	65.9
지역	서울	79	0.0	2.5	22.8	35.4	39.2	100.0	77.8
	부산	4	0.0	0.0	0.0	25.0	75.0	100.0	93.8
	대구	5	0.0	0.0	0.0	60.0	40.0	100.0	85.0
	인천	6	0.0	16.7	0.0	66.7	16.7	100.0	70.8
	대전	14	0.0	0.0	7.1	50.0	42.9	100.0	83.9
	광주	31	0.0	3.2	12.9	32.3	51.6	100.0	83.1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20.0	0.0	40.0	40.0	100.0	75.0
	강원	18	0.0	11.1	16.7	44.4	27.8	100.0	72.2
	충북	6	0.0	0.0	16.7	0.0	83.3	100.0	91.7
	충남	8	0.0	0.0	12.5	50.0	37.5	100.0	81.3
	전북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전남	17	0.0	5.9	11.8	52.9	29.4	100.0	76.5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5-1. 2) 변호사 역할 증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3.3	17.9	49.5	29.2	100.0	76.2
소속	변호사	141	0.0	2.8	21.3	50.4	25.5	100.0	74.6
	대학원생	71	0.0	4.2	11.3	47.9	36.6	100.0	79.2
성별	남성	134	0.0	3.0	19.4	51.5	26.1	100.0	75.2
	여성	78	0.0	3.8	15.4	46.2	34.6	100.0	77.9
나이	20대	58	0.0	6.9	10.3	44.8	37.9	100.0	78.4
	30대	94	0.0	2.1	23.4	46.8	27.7	100.0	75.0
	40대	48	0.0	2.1	18.8	52.1	27.1	100.0	76.0
	50대 이상	12	0.0	0.0	8.3	83.3	8.3	100.0	75.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5.4	9.7	44.1	40.9	100.0	80.1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23.3	56.7	20.0	100.0	7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31.9	42.6	23.4	100.0	71.8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19.4	61.3	16.1	100.0	72.6
	20년 이상	11	0.0	0.0	9.1	72.7	18.2	100.0	77.3
지역	서울	79	0.0	3.8	22.8	43.0	30.4	100.0	75.0
	부산	4	0.0	0.0	25.0	25.0	50.0	100.0	81.3
	대구	5	0.0	0.0	0.0	60.0	40.0	100.0	85.0
	인천	6	0.0	0.0	16.7	83.3	0.0	100.0	70.8
	대전	14	0.0	7.1	14.3	57.1	21.4	100.0	73.2
	광주	31	0.0	3.2	6.5	58.1	32.3	100.0	79.8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20.0	50.0	30.0	100.0	77.5
	강원	18	0.0	5.6	27.8	27.8	38.9	100.0	75.0
	충북	6	0.0	0.0	16.7	66.7	16.7	100.0	75.0
	충남	8	0.0	0.0	12.5	62.5	25.0	100.0	78.1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0.0	0.0	11.8	47.1	41.2	100.0	82.4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5-1. 3)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2.4	12.3	42.0	42.9	100.0	81.1
소속	변호사	141	0.7	1.4	14.9	44.0	39.0	100.0	79.8
	대학원생	71	0.0	4.2	7.0	38.0	50.7	100.0	83.8
성별	남성	134	0.0	0.7	12.7	46.3	40.3	100.0	81.5
	여성	78	1.3	5.1	11.5	34.6	47.4	100.0	80.4
나이	20대	58	1.7	5.2	6.9	34.5	51.7	100.0	82.3
	30대	94	0.0	2.1	14.9	40.4	42.6	100.0	80.9
	40대	48	0.0	0.0	10.4	52.1	37.5	100.0	81.8
	50대 이상	12	0.0	0.0	25.0	50.0	25.0	100.0	75.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3.2	8.6	37.6	49.5	100.0	82.8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10.0	36.7	50.0	100.0	83.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1	12.8	42.6	42.6	100.0	81.4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19.4	51.6	29.0	100.0	77.4
	20년 이상	11	0.0	0.0	27.3	63.6	9.1	100.0	70.5
지역	서울	79	1.3	3.8	15.2	49.4	30.4	100.0	75.9
	부산	4	0.0	0.0	0.0	25.0	75.0	100.0	93.8
	대구	5	0.0	0.0	0.0	0.0	100.0	100.0	100.0
	인천	6	0.0	0.0	16.7	33.3	50.0	100.0	83.3
	대전	14	0.0	0.0	14.3	42.9	42.9	100.0	82.1
	광주	31	0.0	0.0	9.7	41.9	48.4	100.0	84.7
	울산	3	0.0	0.0	0.0	33.3	66.7	100.0	91.7
	경기	10	0.0	0.0	0.0	40.0	60.0	100.0	90.0
	강원	18	0.0	5.6	22.2	33.3	38.9	100.0	76.4
	충북	6	0.0	0.0	0.0	33.3	66.7	100.0	91.7
	충남	8	0.0	0.0	25.0	37.5	37.5	100.0	78.1
	전북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전남	17	0.0	5.9	0.0	35.3	58.8	100.0	86.8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제주	3	0.0	0.0	0.0	66.7	33.3	100.0	83.3

5-1. 4) 법률 AI 등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9.0	19.3	48.6	22.2	100.0	70.5
소속	변호사	141	1.4	9.9	18.4	48.2	22.0	100.0	69.9
	대학원생	71	0.0	7.0	21.1	49.3	22.5	100.0	71.8
성별	남성	134	0.0	10.4	16.4	50.7	22.4	100.0	71.3
	여성	78	2.6	6.4	24.4	44.9	21.8	100.0	69.2
나이	20대	58	1.7	6.9	20.7	44.8	25.9	100.0	71.6
	30대	94	1.1	12.8	22.3	45.7	18.1	100.0	66.8
	40대	48	0.0	4.2	14.6	54.2	27.1	100.0	76.0
	50대 이상	12	0.0	8.3	8.3	66.7	16.7	100.0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2	6.5	19.4	46.2	25.8	100.0	71.8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16.7	23.3	40.0	20.0	100.0	6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2.8	19.1	51.1	17.0	100.0	68.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16.1	58.1	22.6	100.0	75.0
	20년 이상	11	0.0	9.1	18.2	54.5	18.2	100.0	70.5
지역	서울	79	1.3	8.9	22.8	43.0	24.1	100.0	69.9
	부산	4	0.0	0.0	0.0	75.0	25.0	100.0	81.3
	대구	5	0.0	0.0	0.0	100.0	0.0	100.0	75.0
	인천	6	0.0	33.3	0.0	50.0	16.7	100.0	62.5
	대전	14	7.1	14.3	14.3	35.7	28.6	100.0	66.1
	광주	31	0.0	9.7	22.6	45.2	22.6	100.0	70.2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10.0	0.0	50.0	40.0	100.0	80.0
	강원	18	0.0	11.1	22.2	55.6	11.1	100.0	66.7
	충북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충남	8	0.0	0.0	12.5	62.5	25.0	100.0	78.1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0.0	5.9	17.6	52.9	23.5	100.0	73.5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5-1. 5) AI 법조인간 재판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19.3	35.8	23.6	17.0	4.2	100.0	37.7
소속	변호사	141	16.3	34.0	27.0	17.7	5.0	100.0	40.2
	대학원생	71	25.4	39.4	16.9	15.5	2.8	100.0	32.7
성별	남성	134	20.9	31.3	27.6	14.2	6.0	100.0	38.2
	여성	78	16.7	43.6	16.7	21.8	1.3	100.0	36.9
나이	20대	58	19.0	46.6	15.5	13.8	5.2	100.0	34.9
	30대	94	26.6	33.0	20.2	18.1	2.1	100.0	34.0
	40대	48	8.3	33.3	39.6	10.4	8.3	100.0	44.3
	50대 이상	12	8.3	16.7	25.0	50.0	0.0	100.0	54.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1.5	43.0	12.9	18.3	4.3	100.0	35.2
	3년 이상~5년 미만	30	33.3	20.0	26.7	16.7	3.3	100.0	3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17.0	42.6	25.5	12.8	2.1	100.0	35.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6.5	25.8	48.4	9.7	9.7	100.0	47.6
	20년 이상	11	9.1	18.2	27.3	45.5	0.0	100.0	52.3
지역	서울	79	19.0	36.7	21.5	17.7	5.1	100.0	38.3
	부산	4	0.0	50.0	25.0	25.0	0.0	100.0	43.8
	대구	5	0.0	40.0	20.0	40.0	0.0	100.0	50.0
	인천	6	16.7	33.3	50.0	0.0	0.0	100.0	33.3
	대전	14	21.4	35.7	14.3	21.4	7.1	100.0	39.3
	광주	31	25.8	41.9	6.5	19.4	6.5	100.0	34.7
	울산	3	33.3	33.3	33.3	0.0	0.0	100.0	25.0
	경기	10	10.0	10.0	60.0	20.0	0.0	100.0	47.5
	강원	18	27.8	27.8	33.3	11.1	0.0	100.0	31.9
	충북	6	16.7	66.7	0.0	16.7	0.0	100.0	29.2
	충남	8	12.5	12.5	50.0	0.0	25.0	100.0	53.1
	전북	3	33.3	33.3	0.0	33.3	0.0	100.0	33.3
	전남	17	17.6	52.9	23.5	5.9	0.0	100.0	29.4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제주	3	33.3	0.0	33.3	33.3	0.0	100.0	41.7	

5-1. 6) AI와의 상담 선호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12.3	33.0	29.2	18.9	6.6	100.0	43.6
소속	변호사	141	12.1	27.7	33.3	20.6	6.4	100.0	45.4
	대학원생	71	12.7	43.7	21.1	15.5	7.0	100.0	40.1
성별	남성	134	11.2	31.3	28.4	21.6	7.5	100.0	45.7
	여성	78	14.1	35.9	30.8	14.1	5.1	100.0	40.1
나이	20대	58	12.1	46.6	22.4	12.1	6.9	100.0	38.8
	30대	94	18.1	33.0	24.5	17.0	7.4	100.0	40.7
	40대	48	2.1	20.8	47.9	25.0	4.2	100.0	52.1
	50대 이상	12	8.3	16.7	25.0	41.7	8.3	100.0	56.3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4.0	41.9	17.2	17.2	9.7	100.0	41.7
	3년 이상~5년 미만	30	26.7	20.0	36.7	13.3	3.3	100.0	36.7
	5년 이상~10년 미만	47	8.5	40.4	31.9	14.9	4.3	100.0	41.5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16.1	48.4	32.3	3.2	100.0	55.6
	20년 이상	11	9.1	9.1	45.5	27.3	9.1	100.0	54.5
지역	서울	79	12.7	31.6	29.1	19.0	7.6	100.0	44.3
	부산	4	0.0	50.0	50.0	0.0	0.0	100.0	37.5
	대구	5	0.0	20.0	60.0	20.0	0.0	100.0	50.0
	인천	6	16.7	0.0	50.0	33.3	0.0	100.0	50.0
	대전	14	21.4	42.9	7.1	14.3	14.3	100.0	39.3
	광주	31	12.9	32.3	25.8	12.9	16.1	100.0	46.8
	울산	3	33.3	33.3	33.3	0.0	0.0	100.0	25.0
	경기	10	10.0	20.0	50.0	20.0	0.0	100.0	45.0
	강원	18	5.6	33.3	33.3	27.8	0.0	100.0	45.8
	충북	6	16.7	33.3	33.3	16.7	0.0	100.0	37.5
	충남	8	0.0	37.5	25.0	25.0	12.5	100.0	53.1
	전북	3	33.3	33.3	0.0	33.3	0.0	100.0	33.3
	전남	17	17.6	52.9	23.5	5.9	0.0	100.0	29.4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66.7	0.0	100.0	58.3
제주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5-1. 7)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1.9	19.8	50.9	27.4	100.0	75.9
소속	변호사	141	0.0	1.4	20.6	53.2	24.8	100.0	75.4
	대학원생	71	0.0	2.8	18.3	46.5	32.4	100.0	77.1
성별	남성	134	0.0	3.0	17.9	54.5	24.6	100.0	75.2
	여성	78	0.0	0.0	23.1	44.9	32.1	100.0	77.2
나이	20대	58	0.0	3.4	20.7	46.6	29.3	100.0	75.4
	30대	94	0.0	2.1	19.1	48.9	29.8	100.0	76.6
	40대	48	0.0	0.0	16.7	58.3	25.0	100.0	77.1
	50대 이상	12	0.0	0.0	33.3	58.3	8.3	100.0	68.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4.3	15.1	48.4	32.3	100.0	77.2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23.3	40.0	36.7	100.0	78.3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0.0	21.3	57.4	21.3	100.0	75.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25.8	54.8	19.4	100.0	73.4
	20년 이상	11	0.0	0.0	27.3	63.6	9.1	100.0	70.5
지역	서울	79	0.0	2.5	24.1	46.8	26.6	100.0	74.4
	부산	4	0.0	0.0	0.0	100.0	0.0	100.0	75.0
	대구	5	0.0	0.0	0.0	100.0	0.0	100.0	75.0
	인천	6	0.0	0.0	50.0	33.3	16.7	100.0	66.7
	대전	14	0.0	0.0	14.3	64.3	21.4	100.0	76.8
	광주	31	0.0	3.2	22.6	41.9	32.3	100.0	75.8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0.0	0.0	80.0	20.0	100.0	80.0
	강원	18	0.0	5.6	11.1	50.0	33.3	100.0	77.8
	충북	6	0.0	0.0	16.7	50.0	33.3	100.0	79.2
	충남	8	0.0	0.0	25.0	50.0	25.0	100.0	75.0
	전북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전남	17	0.0	0.0	17.6	35.3	47.1	100.0	82.4
	경북	2	0.0	0.0	0.0	100.0	0.0	100.0	75.0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66.7	0.0	33.3	100.0	66.7	

5-1. 8)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3.8	14.6	47.6	33.5	100.0	77.5
소속	변호사	141	0.0	2.8	19.9	46.8	30.5	100.0	76.2
	대학원생	71	1.4	5.6	4.2	49.3	39.4	100.0	79.9
성별	남성	134	0.7	3.7	14.9	48.5	32.1	100.0	76.9
	여성	78	0.0	3.8	14.1	46.2	35.9	100.0	78.5
나이	20대	58	0.0	6.9	5.2	41.4	46.6	100.0	81.9
	30대	94	1.1	3.2	13.8	47.9	34.0	100.0	77.7
	40대	48	0.0	2.1	22.9	54.2	20.8	100.0	73.4
	50대 이상	12	0.0	0.0	33.3	50.0	16.7	100.0	70.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5.4	4.3	48.4	41.9	100.0	81.7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0.0	23.3	43.3	30.0	100.0	74.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4.3	17.0	42.6	36.2	100.0	77.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25.8	58.1	12.9	100.0	70.2
	20년 이상	11	0.0	0.0	36.4	45.5	18.2	100.0	70.5
지역	서울	79	0.0	1.3	24.1	44.3	30.4	100.0	75.9
	부산	4	0.0	25.0	0.0	50.0	25.0	100.0	68.8
	대구	5	0.0	0.0	0.0	80.0	20.0	100.0	80.0
	인천	6	0.0	0.0	16.7	50.0	33.3	100.0	79.2
	대전	14	0.0	7.1	21.4	35.7	35.7	100.0	75.0
	광주	31	0.0	3.2	0.0	58.1	38.7	100.0	83.1
	울산	3	0.0	0.0	0.0	33.3	66.7	100.0	91.7
	경기	10	0.0	0.0	10.0	70.0	20.0	100.0	77.5
	강원	18	5.6	5.6	5.6	44.4	38.9	100.0	76.4
	충북	6	0.0	0.0	16.7	33.3	50.0	100.0	83.3
	충남	8	0.0	0.0	12.5	50.0	37.5	100.0	81.3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11.8	5.9	41.2	41.2	100.0	77.9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제주	3	0.0	33.3	33.3	0.0	33.3	100.0	58.3	

5-1. 9) 입법 관련 로비 활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2.4	22.6	30.7	34.0	10.4	100.0	56.8
소속	변호사	141	1.4	19.9	33.3	32.6	12.8	100.0	58.9
	대학원생	71	4.2	28.2	25.4	36.6	5.6	100.0	52.8
성별	남성	134	1.5	23.9	32.8	29.9	11.9	100.0	56.7
	여성	78	3.8	20.5	26.9	41.0	7.7	100.0	57.1
나이	20대	58	3.4	27.6	24.1	34.5	10.3	100.0	55.2
	30대	94	3.2	24.5	33.0	27.7	11.7	100.0	55.1
	40대	48	0.0	16.7	33.3	41.7	8.3	100.0	60.4
	50대 이상	12	0.0	8.3	33.3	50.0	8.3	100.0	64.6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3.2	28.0	23.7	32.3	12.9	100.0	55.9
	3년 이상~5년 미만	30	6.7	23.3	30.0	33.3	6.7	100.0	52.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23.4	40.4	25.5	10.6	100.0	55.9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9.7	35.5	48.4	6.5	100.0	62.9
	20년 이상	11	0.0	9.1	36.4	45.5	9.1	100.0	63.6
지역	서울	79	2.5	20.3	29.1	32.9	15.2	100.0	59.5
	부산	4	0.0	25.0	25.0	50.0	0.0	100.0	56.3
	대구	5	0.0	20.0	60.0	20.0	0.0	100.0	50.0
	인천	6	0.0	33.3	33.3	33.3	0.0	100.0	50.0
	대전	14	0.0	35.7	21.4	35.7	7.1	100.0	53.6
	광주	31	6.5	25.8	25.8	32.3	9.7	100.0	53.2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60.0	40.0	0.0	100.0	60.0
	강원	18	0.0	27.8	44.4	27.8	0.0	100.0	50.0
	충북	6	16.7	16.7	33.3	16.7	16.7	100.0	50.0
	충남	8	0.0	12.5	25.0	50.0	12.5	100.0	65.6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0.0	29.4	17.6	41.2	11.8	100.0	58.8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33.3	0.0	66.7	0.0	100.0	58.3
제주	3	0.0	33.3	0.0	0.0	66.7	100.0	75.0	

5-1. 10)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14.2	23.6	28.8	24.5	9.0	100.0	47.6
소속	변호사	141	10.6	21.3	34.8	24.8	8.5	100.0	49.8
	대학원생	71	21.1	28.2	16.9	23.9	9.9	100.0	43.3
성별	남성	134	13.4	22.4	29.1	25.4	9.7	100.0	48.9
	여성	78	15.4	25.6	28.2	23.1	7.7	100.0	45.5
나이	20대	58	15.5	27.6	19.0	24.1	13.8	100.0	48.3
	30대	94	20.2	23.4	29.8	20.2	6.4	100.0	42.3
	40대	48	4.2	20.8	37.5	31.3	6.3	100.0	53.6
	50대 이상	12	0.0	16.7	33.3	33.3	16.7	100.0	62.5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7.2	26.9	21.5	23.7	10.8	100.0	46.0
	3년 이상~5년 미만	30	20.0	3.3	40.0	26.7	10.0	100.0	5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14.9	27.7	25.5	27.7	4.3	100.0	44.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25.8	45.2	19.4	6.5	100.0	50.0
	20년 이상	11	0.0	27.3	27.3	27.3	18.2	100.0	59.1
지역	서울	79	12.7	17.7	35.4	22.8	11.4	100.0	50.6
	부산	4	0.0	50.0	25.0	25.0	0.0	100.0	43.8
	대구	5	0.0	40.0	20.0	40.0	0.0	100.0	50.0
	인천	6	16.7	0.0	50.0	33.3	0.0	100.0	50.0
	대전	14	21.4	21.4	28.6	7.1	21.4	100.0	46.4
	광주	31	16.1	29.0	12.9	29.0	12.9	100.0	48.4
	울산	3	33.3	0.0	33.3	33.3	0.0	100.0	41.7
	경기	10	10.0	40.0	10.0	30.0	10.0	100.0	47.5
	강원	18	11.1	27.8	33.3	27.8	0.0	100.0	44.4
	충북	6	16.7	16.7	33.3	33.3	0.0	100.0	45.8
	충남	8	0.0	25.0	62.5	12.5	0.0	100.0	46.9
	전북	3	0.0	66.7	0.0	33.3	0.0	100.0	41.7
	전남	17	23.5	23.5	17.6	23.5	11.8	100.0	44.1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33.3	33.3	0.0	33.3	0.0	100.0	33.3
제주	3	33.3	33.3	33.3	0.0	0.0	100.0	25.0	

5-1. 11) 법률 AI 도입으로 양극화 심화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4.7	18.9	26.4	38.7	11.3	100.0	58.3
소속	변호사	141	3.5	18.4	30.5	34.8	12.8	100.0	58.7
	대학원생	71	7.0	19.7	18.3	46.5	8.5	100.0	57.4
성별	남성	134	4.5	17.2	27.6	40.3	10.4	100.0	58.8
	여성	78	5.1	21.8	24.4	35.9	12.8	100.0	57.4
나이	20대	58	5.2	19.0	19.0	44.8	12.1	100.0	59.9
	30대	94	6.4	23.4	26.6	29.8	13.8	100.0	55.3
	40대	48	0.0	14.6	35.4	45.8	4.2	100.0	59.9
	50대 이상	12	8.3	0.0	25.0	50.0	16.7	100.0	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6.5	21.5	19.4	40.9	11.8	100.0	57.5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20.0	33.3	30.0	13.3	100.0	5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25.5	31.9	25.5	12.8	100.0	54.3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32.3	54.8	6.5	100.0	65.3
	20년 이상	11	9.1	0.0	27.3	54.5	9.1	100.0	63.6
지역	서울	79	2.5	16.5	38.0	32.9	10.1	100.0	57.9
	부산	4	0.0	25.0	0.0	50.0	25.0	100.0	68.8
	대구	5	0.0	0.0	60.0	40.0	0.0	100.0	60.0
	인천	6	0.0	16.7	33.3	16.7	33.3	100.0	66.7
	대전	14	0.0	42.9	21.4	21.4	14.3	100.0	51.8
	광주	31	9.7	22.6	16.1	41.9	9.7	100.0	54.8
	울산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경기	10	10.0	10.0	20.0	40.0	20.0	100.0	62.5
	강원	18	5.6	11.1	22.2	55.6	5.6	100.0	61.1
	충북	6	0.0	33.3	16.7	50.0	0.0	100.0	54.2
	충남	8	0.0	12.5	37.5	50.0	0.0	100.0	59.4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11.8	17.6	0.0	52.9	17.6	100.0	61.8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66.7	0.0	100.0	58.3
제주	3	33.3	0.0	33.3	0.0	33.3	100.0	50.0	

5-1. 12)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

응답자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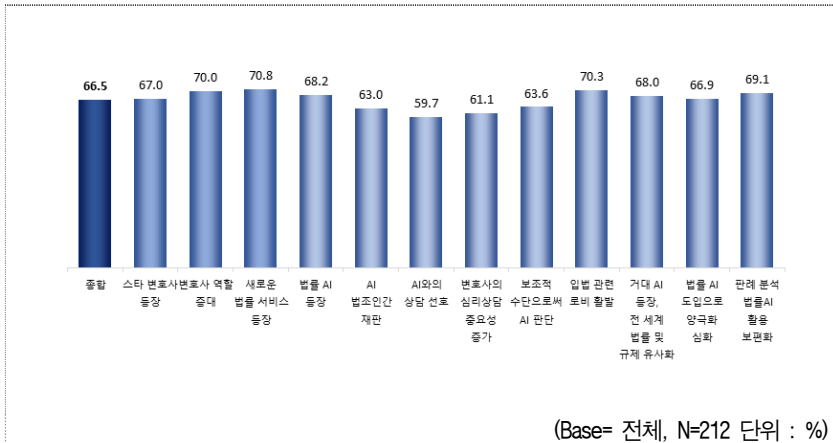
		사례 수 (명)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2.4	12.3	20.3	47.6	17.5	100.0	66.4
소속	변호사	141	2.1	12.1	22.7	44.0	19.1	100.0	66.5
	대학원생	71	2.8	12.7	15.5	54.9	14.1	100.0	66.2
성별	남성	134	2.2	13.4	21.6	46.3	16.4	100.0	65.3
	여성	78	2.6	10.3	17.9	50.0	19.2	100.0	68.3
나이	20대	58	1.7	19.0	15.5	43.1	20.7	100.0	65.5
	30대	94	3.2	11.7	23.4	45.7	16.0	100.0	64.9
	40대	48	0.0	8.3	20.8	52.1	18.8	100.0	70.3
	50대 이상	12	8.3	0.0	16.7	66.7	8.3	100.0	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2	15.1	14.0	52.7	16.1	100.0	66.4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3.3	26.7	40.0	26.7	100.0	7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2.1	19.1	29.8	29.8	19.1	100.0	61.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22.6	61.3	9.7	100.0	68.5
	20년 이상	11	9.1	0.0	9.1	63.6	18.2	100.0	70.5
지역	서울	79	1.3	12.7	24.1	45.6	16.5	100.0	65.8
	부산	4	0.0	25.0	0.0	25.0	50.0	100.0	75.0
	대구	5	0.0	20.0	40.0	40.0	0.0	100.0	55.0
	인천	6	0.0	16.7	33.3	33.3	16.7	100.0	62.5
	대전	14	0.0	14.3	28.6	28.6	28.6	100.0	67.9
	광주	31	6.5	12.9	16.1	48.4	16.1	100.0	63.7
	울산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경기	10	0.0	10.0	10.0	60.0	20.0	100.0	72.5
	강원	18	5.6	11.1	16.7	61.1	5.6	100.0	62.5
	충북	6	0.0	0.0	16.7	50.0	33.3	100.0	79.2
	충남	8	0.0	12.5	25.0	50.0	12.5	100.0	65.6
	전북	3	33.3	0.0	0.0	66.7	0.0	100.0	50.0
	전남	17	0.0	5.9	11.8	58.8	23.5	100.0	75.0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66.7	0.0	100.0	58.3
제주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5-2.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 종합

조사결과

»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_ 발생 시 사회 영향에 대해 100점 평균 기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이 7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입법 관련 로비 활발’ (70.3점), ‘변호사 역할 증대’ (70.0점),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 (6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와의 상담 선호’ (59.7점),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61.1점), ‘AI 법조인간 재판’ (63.0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63.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단위: 점)

각 사건이 발생 시 사회 영향		사례 수 (명)	종합	스타 변호사 등장	변호사 역할 증대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	법률 시 등장	AI 법조 인간 재판	시외 의상 선호	변호사 의심 상담 중요성 증가	보조적 수단으로써 시 판단	입법 관련 로비 활발	거대 시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법률 시 도입으로 양극화 심화	판례 분석 법률 시 활용 보편화
[전체]			212	66.567	070.070	868.263	059.761	163.670	368.066	969.1					
소속	변호사	141	67.168	370.071	169.563	761.063	564.969	567.266	869.5						
	대학원생	71	65.264	470.170	165.561	657.056	360.971	869.766	968.3						
성별	남성	134	65.565	769.669	668.862	760.360	362.366	867.766	065.7						
	여성	78	68.269	270.872	867.063	558.762	565.776	368.668	375.0						
나이	20대	58	65.962	970.368	166.865	160.355	260.873	773.366	868.1						
	30대	94	65.469	168.672	966.858	856.461	764.469	763.864	467.8						
	40대	48	68.466	772.471	472.465	663.065	665.167	268.868	873.4						
	50대 이상	12	70.070	870.864	668.875	068.866	764.670	872.979	2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66.667	570.771	568.060	558.659	165.171	870.266	969.6						
	3년 이상~5년 미만	30	63.165	070.870	865.857	551.759	257.570	063.359	26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66.366	567.072	370.264	960.161	761.269	766.067	068.6						
	10년 이상~20년 미만	31	67.466	969.466	967.768	564.563	765.367	766.970	271.0						
	20년 이상	11	72.570	577.368	268.275	075.072	772.768	275.077	370.5						
지역	서울	79	67.469	069.968	769.964	962.359	863.671	870.965	871.5						
	부산	4	63.575	068.862	568.856	368.862	556.362	562.556	362.5						
	대구	5	69.265	075.080	070.070	055.070	045.085	080.070	065.0						
	인천	6	64.658	370.866	762.554	254.266	775.066	758.375	066.7						
	대전	14	61.960	764.369	660.757	158.958	960.760	764.362	564.3						
	광주	31	68.165	372.672	668.562	961.359	768.571	878.271	065.3						
	울산	3	64.683	366.783	383.333	333.383	375.066	733.366	766.7						
	경기	10	75.877	575.080	082.577	570.077	572.570	075.075	077.5						
	강원	18	63.463	969.468	161.163	958.362	559.765	361.162	565.3						
	충북	6	64.658	362.570	870.870	858.350	058.379	258.370	866.7						
	충남	8	64.662	568.865	665.665	662.562	556.365	662.571	965.6						
	전북	3	68.875	075.091	766.758	366.775	075.058	350.058	375.0						
	전남	17	63.864	770.672	166.251	542.651	557.476	569.167	676.5						
	경북	2	62.562	562.550	062.575	062.562	562.550	075.062	562.5						
경남	3	70.175	066.783	366.775	075.075	091.766	733.366	766.7							
제주	3	59.066	775.075	058.358	350.050	050.075	041.750	058.3							

5-2. 1) 스타 변호사 등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7.5	30.2	49.1	13.2	100.0	67.0
소속	변호사	141	0.0	5.7	29.8	50.4	14.2	100.0	68.3
	대학원생	71	0.0	11.3	31.0	46.5	11.3	100.0	64.4
성별	남성	134	0.0	9.7	31.3	45.5	13.4	100.0	65.7
	여성	78	0.0	3.8	28.2	55.1	12.8	100.0	69.2
나이	20대	58	0.0	12.1	32.8	46.6	8.6	100.0	62.9
	30대	94	0.0	4.3	31.9	46.8	17.0	100.0	69.1
	40대	48	0.0	10.4	25.0	52.1	12.5	100.0	66.7
	50대 이상	12	0.0	0.0	25.0	66.7	8.3	100.0	70.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7.5	30.1	47.3	15.1	100.0	67.5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36.7	46.7	10.0	100.0	65.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0.6	27.7	46.8	14.9	100.0	66.5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29.0	54.8	9.7	100.0	66.9
	20년 이상	11	0.0	0.0	27.3	63.6	9.1	100.0	70.5
지역	서울	79	0.0	5.1	29.1	50.6	15.2	100.0	69.0
	부산	4	0.0	0.0	25.0	50.0	25.0	100.0	75.0
	대구	5	0.0	20.0	20.0	40.0	20.0	100.0	65.0
	인천	6	0.0	16.7	33.3	50.0	0.0	100.0	58.3
	대전	14	0.0	7.1	57.1	21.4	14.3	100.0	60.7
	광주	31	0.0	9.7	38.7	32.3	19.4	100.0	65.3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0.0	10.0	70.0	20.0	100.0	77.5
	강원	18	0.0	5.6	33.3	61.1	0.0	100.0	63.9
	충북	6	0.0	33.3	0.0	66.7	0.0	100.0	58.3
	충남	8	0.0	12.5	37.5	37.5	12.5	100.0	62.5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11.8	23.5	58.8	5.9	100.0	64.7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33.3	66.7	0.0	100.0	66.7	

5-2. 2) 변호사 역할 증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4.2	27.4	52.4	16.0	100.0	70.0
소속	변호사	141	0.0	5.0	27.0	51.1	17.0	100.0	70.0
	대학원생	71	0.0	2.8	28.2	54.9	14.1	100.0	70.1
성별	남성	134	0.0	3.7	29.1	52.2	14.9	100.0	69.6
	여성	78	0.0	5.1	24.4	52.6	17.9	100.0	70.8
나이	20대	58	0.0	5.2	25.9	51.7	17.2	100.0	70.3
	30대	94	0.0	4.3	30.9	51.1	13.8	100.0	68.6
	40대	48	0.0	4.2	22.9	52.1	20.8	100.0	72.4
	50대 이상	12	0.0	0.0	25.0	66.7	8.3	100.0	70.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4.3	26.9	50.5	18.3	100.0	70.7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0.0	30.0	56.7	13.3	100.0	7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8.5	25.5	55.3	10.6	100.0	67.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32.3	48.4	16.1	100.0	69.4
	20년 이상	11	0.0	0.0	18.2	54.5	27.3	100.0	77.3
지역	서울	79	0.0	6.3	27.8	45.6	20.3	100.0	69.9
	부산	4	0.0	0.0	50.0	25.0	25.0	100.0	68.8
	대구	5	0.0	0.0	20.0	60.0	20.0	100.0	75.0
	인천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대전	14	0.0	7.1	35.7	50.0	7.1	100.0	64.3
	광주	31	0.0	6.5	19.4	51.6	22.6	100.0	72.6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20.0	60.0	20.0	100.0	75.0
	강원	18	0.0	0.0	27.8	66.7	5.6	100.0	69.4
	충북	6	0.0	16.7	16.7	66.7	0.0	100.0	62.5
	충남	8	0.0	0.0	37.5	50.0	12.5	100.0	68.8
	전북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전남	17	0.0	0.0	29.4	58.8	11.8	100.0	70.6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0.0	100.0	0.0	100.0	75.0	

5-2. 3)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5	5.2	25.0	49.5	19.8	100.0	70.8
소속	변호사	141	0.7	3.5	26.2	49.6	19.9	100.0	71.1
	대학원생	71	0.0	8.5	22.5	49.3	19.7	100.0	70.1
성별	남성	134	0.0	6.0	27.6	48.5	17.9	100.0	69.6
	여성	78	1.3	3.8	20.5	51.3	23.1	100.0	72.8
나이	20대	58	1.7	10.3	22.4	44.8	20.7	100.0	68.1
	30대	94	0.0	3.2	22.3	54.3	20.2	100.0	72.9
	40대	48	0.0	2.1	29.2	50.0	18.8	100.0	71.4
	50대 이상	12	0.0	8.3	41.7	33.3	16.7	100.0	64.6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6.5	21.5	47.3	23.7	100.0	71.5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30.0	46.7	20.0	100.0	70.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4.3	19.1	59.6	17.0	100.0	72.3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3.2	38.7	45.2	12.9	100.0	66.9
	20년 이상	11	0.0	9.1	27.3	45.5	18.2	100.0	68.2
지역	서울	79	1.3	5.1	26.6	51.9	15.2	100.0	68.7
	부산	4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구	5	0.0	0.0	20.0	40.0	40.0	100.0	80.0
	인천	6	0.0	0.0	33.3	66.7	0.0	100.0	66.7
	대전	14	0.0	0.0	42.9	35.7	21.4	100.0	69.6
	광주	31	0.0	6.5	16.1	58.1	19.4	100.0	72.6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0.0	10.0	60.0	30.0	100.0	80.0
	강원	18	0.0	5.6	38.9	33.3	22.2	100.0	68.1
	충북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충남	8	0.0	12.5	37.5	25.0	25.0	100.0	65.6
	전북	3	0.0	0.0	0.0	33.3	66.7	100.0	91.7
	전남	17	0.0	17.6	5.9	47.1	29.4	100.0	72.1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0.0	0.0	66.7	33.3	100.0	83.3
제주	3	0.0	0.0	0.0	100.0	0.0	100.0	75.0	

5-2. 4) 법률 AI 등장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8.0	28.3	42.9	19.8	100.0	68.2
소속	변호사	141	0.7	7.1	26.2	45.4	20.6	100.0	69.5
	대학원생	71	1.4	9.9	32.4	38.0	18.3	100.0	65.5
성별	남성	134	0.0	8.2	26.9	46.3	18.7	100.0	68.8
	여성	78	2.6	7.7	30.8	37.2	21.8	100.0	67.0
나이	20대	58	3.4	5.2	31.0	41.4	19.0	100.0	66.8
	30대	94	0.0	11.7	27.7	42.6	18.1	100.0	66.8
	40대	48	0.0	4.2	25.0	47.9	22.9	100.0	72.4
	50대 이상	12	0.0	8.3	33.3	33.3	25.0	100.0	68.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2.2	8.6	26.9	39.8	22.6	100.0	68.0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13.3	30.0	36.7	20.0	100.0	6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4.3	27.7	51.1	17.0	100.0	70.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32.3	45.2	16.1	100.0	67.7
	20년 이상	11	0.0	9.1	27.3	45.5	18.2	100.0	68.2
지역	서울	79	1.3	7.6	24.1	44.3	22.8	100.0	69.9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20.0	0.0	60.0	20.0	100.0	70.0
	인천	6	0.0	16.7	16.7	66.7	0.0	100.0	62.5
	대전	14	7.1	7.1	35.7	35.7	14.3	100.0	60.7
	광주	31	0.0	9.7	25.8	45.2	19.4	100.0	68.5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0.0	20.0	30.0	50.0	100.0	82.5
	강원	18	0.0	16.7	27.8	50.0	5.6	100.0	61.1
	충북	6	0.0	0.0	33.3	50.0	16.7	100.0	70.8
	충남	8	0.0	12.5	50.0	0.0	37.5	100.0	65.6
	전북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전남	17	0.0	5.9	47.1	23.5	23.5	100.0	66.2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66.7	0.0	100.0	66.7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5-2. 5) AI 법조인간 재판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9.9	13.2	20.3	28.3	28.3	100.0	63.0
소속	변호사	141	7.1	15.6	21.3	27.7	28.4	100.0	63.7
	대학원생	71	15.5	8.5	18.3	29.6	28.2	100.0	61.6
성별	남성	134	9.0	14.2	21.6	27.6	27.6	100.0	62.7
	여성	78	11.5	11.5	17.9	29.5	29.5	100.0	63.5
나이	20대	58	13.8	5.2	20.7	27.6	32.8	100.0	65.1
	30대	94	12.8	18.1	13.8	31.9	23.4	100.0	58.8
	40대	48	2.1	16.7	29.2	20.8	31.3	100.0	65.6
	50대 이상	12	0.0	0.0	33.3	33.3	33.3	100.0	75.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4.0	14.0	16.1	28.0	28.0	100.0	60.5
	3년 이상~5년 미만	30	20.0	10.0	20.0	20.0	30.0	100.0	5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17.0	17.0	38.3	23.4	100.0	64.9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12.9	35.5	16.1	35.5	100.0	68.5
	20년 이상	11	0.0	0.0	27.3	45.5	27.3	100.0	75.0
지역	서울	79	6.3	13.9	20.3	32.9	26.6	100.0	64.9
	부산	4	0.0	25.0	25.0	50.0	0.0	100.0	56.3
	대구	5	0.0	20.0	0.0	60.0	20.0	100.0	70.0
	인천	6	16.7	16.7	16.7	33.3	16.7	100.0	54.2
	대전	14	14.3	7.1	35.7	21.4	21.4	100.0	57.1
	광주	31	9.7	16.1	16.1	29.0	29.0	100.0	62.9
	울산	3	33.3	33.3	0.0	33.3	0.0	100.0	33.3
	경기	10	0.0	0.0	40.0	10.0	50.0	100.0	77.5
	강원	18	11.1	5.6	22.2	38.9	22.2	100.0	63.9
	충북	6	16.7	16.7	0.0	0.0	66.7	100.0	70.8
	충남	8	12.5	0.0	37.5	12.5	37.5	100.0	65.6
	전북	3	0.0	33.3	0.0	66.7	0.0	100.0	58.3
	전남	17	29.4	11.8	11.8	17.6	29.4	100.0	51.5
	경북	2	0.0	0.0	50.0	0.0	50.0	100.0	75.0
	경남	3	0.0	33.3	0.0	0.0	66.7	100.0	75.0
제주	3	0.0	33.3	33.3	0.0	33.3	100.0	58.3	

5-2. 6) AI와의 상담 선호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6.6	19.3	22.2	32.5	19.3	100.0	59.7
소속	변호사	141	6.4	17.0	22.7	34.0	19.9	100.0	61.0
	대학원생	71	7.0	23.9	21.1	29.6	18.3	100.0	57.0
성별	남성	134	6.0	17.9	23.9	33.6	18.7	100.0	60.3
	여성	78	7.7	21.8	19.2	30.8	20.5	100.0	58.7
나이	20대	58	6.9	17.2	24.1	31.0	20.7	100.0	60.3
	30대	94	8.5	25.5	17.0	29.8	19.1	100.0	56.4
	40대	48	4.2	12.5	27.1	39.6	16.7	100.0	63.0
	50대 이상	12	0.0	8.3	33.3	33.3	25.0	100.0	68.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8.6	21.5	18.3	30.1	21.5	100.0	58.6
	3년 이상~5년 미만	30	10.0	30.0	20.0	23.3	16.7	100.0	51.7
	5년 이상~10년 미만	47	4.3	19.1	21.3	42.6	12.8	100.0	60.1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9.7	35.5	29.0	22.6	100.0	64.5
	20년 이상	11	0.0	0.0	27.3	45.5	27.3	100.0	75.0
지역	서울	79	6.3	15.2	22.8	34.2	21.5	100.0	62.3
	부산	4	0.0	0.0	25.0	75.0	0.0	100.0	68.8
	대구	5	0.0	40.0	0.0	60.0	0.0	100.0	55.0
	인천	6	16.7	0.0	33.3	50.0	0.0	100.0	54.2
	대전	14	14.3	14.3	21.4	21.4	28.6	100.0	58.9
	광주	31	3.2	29.0	12.9	29.0	25.8	100.0	61.3
	울산	3	33.3	33.3	0.0	33.3	0.0	100.0	33.3
	경기	10	0.0	10.0	30.0	30.0	30.0	100.0	70.0
	강원	18	0.0	16.7	44.4	27.8	11.1	100.0	58.3
	충북	6	16.7	16.7	0.0	50.0	16.7	100.0	58.3
	충남	8	12.5	0.0	37.5	25.0	25.0	100.0	62.5
	전북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전남	17	11.8	41.2	17.6	23.5	5.9	100.0	42.6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0.0	66.7	100.0	75.0
제주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5-2. 7)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9.4	43.9	35.8	9.9	100.0	61.1
소속	변호사	141	0.7	7.1	41.1	39.7	11.3	100.0	63.5
	대학원생	71	1.4	14.1	49.3	28.2	7.0	100.0	56.3
성별	남성	134	0.7	10.4	44.8	35.1	9.0	100.0	60.3
	여성	78	1.3	7.7	42.3	37.2	11.5	100.0	62.5
나이	20대	58	1.7	13.8	51.7	27.6	5.2	100.0	55.2
	30대	94	1.1	10.6	41.5	34.0	12.8	100.0	61.7
	40대	48	0.0	4.2	39.6	45.8	10.4	100.0	65.6
	50대 이상	12	0.0	0.0	41.7	50.0	8.3	100.0	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12.9	45.2	30.1	10.8	100.0	59.1
	3년 이상~5년 미만	30	3.3	10.0	43.3	33.3	10.0	100.0	59.2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0.6	40.4	40.4	8.5	100.0	61.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51.6	41.9	6.5	100.0	63.7
	20년 이상	11	0.0	0.0	27.3	54.5	18.2	100.0	72.7
지역	서울	79	1.3	13.9	40.5	32.9	11.4	100.0	59.8
	부산	4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구	5	0.0	0.0	20.0	80.0	0.0	100.0	70.0
	인천	6	0.0	0.0	50.0	33.3	16.7	100.0	66.7
	대전	14	0.0	7.1	57.1	28.6	7.1	100.0	58.9
	광주	31	3.2	6.5	48.4	32.3	9.7	100.0	59.7
	울산	3	0.0	0.0	0.0	66.7	33.3	100.0	83.3
	경기	10	0.0	0.0	10.0	70.0	20.0	100.0	77.5
	강원	18	0.0	0.0	61.1	27.8	11.1	100.0	62.5
	충북	6	0.0	33.3	33.3	33.3	0.0	100.0	50.0
	충남	8	0.0	0.0	50.0	50.0	0.0	100.0	62.5
	전북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전남	17	0.0	23.5	47.1	29.4	0.0	100.0	51.5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제주	3	0.0	0.0	100.0	0.0	0.0	100.0	50.0	

5-2. 8)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1.4	5.7	42.0	39.2	11.8	100.0	63.6
소속	변호사	141	0.7	5.0	40.4	41.8	12.1	100.0	64.9
	대학원생	71	2.8	7.0	45.1	33.8	11.3	100.0	60.9
성별	남성	134	1.5	6.7	43.3	38.1	10.4	100.0	62.3
	여성	78	1.3	3.8	39.7	41.0	14.1	100.0	65.7
나이	20대	58	1.7	5.2	51.7	31.0	10.3	100.0	60.8
	30대	94	2.1	8.5	34.0	40.4	14.9	100.0	64.4
	40대	48	0.0	0.0	47.9	43.8	8.3	100.0	65.1
	50대 이상	12	0.0	8.3	33.3	50.0	8.3	100.0	64.6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6.5	39.8	36.6	16.1	100.0	65.1
	3년 이상~5년 미만	30	6.7	3.3	50.0	33.3	6.7	100.0	57.5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0.6	42.6	38.3	8.5	100.0	61.2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45.2	48.4	6.5	100.0	65.3
	20년 이상	11	0.0	0.0	27.3	54.5	18.2	100.0	72.7
지역	서울	79	1.3	6.3	40.5	40.5	11.4	100.0	63.6
	부산	4	0.0	0.0	75.0	25.0	0.0	100.0	56.3
	대구	5	0.0	40.0	40.0	20.0	0.0	100.0	45.0
	인천	6	0.0	0.0	16.7	66.7	16.7	100.0	75.0
	대전	14	0.0	7.1	50.0	35.7	7.1	100.0	60.7
	광주	31	0.0	3.2	38.7	38.7	19.4	100.0	68.5
	울산	3	0.0	0.0	33.3	33.3	33.3	100.0	75.0
	경기	10	0.0	0.0	20.0	70.0	10.0	100.0	72.5
	강원	18	5.6	0.0	55.6	27.8	11.1	100.0	59.7
	충북	6	0.0	0.0	66.7	33.3	0.0	100.0	58.3
	충남	8	0.0	12.5	62.5	12.5	12.5	100.0	56.3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5.9	5.9	47.1	35.3	5.9	100.0	57.4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0.0	0.0	33.3	66.7	100.0	91.7
제주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5-2. 9) 입법 관련 로비 활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0	5.2	32.1	39.2	23.6	100.0	70.3
소속	변호사	141	0.0	5.0	32.6	41.8	20.6	100.0	69.5
	대학원생	71	0.0	5.6	31.0	33.8	29.6	100.0	71.8
성별	남성	134	0.0	7.5	36.6	37.3	18.7	100.0	66.8
	여성	78	0.0	1.3	24.4	42.3	32.1	100.0	76.3
나이	20대	58	0.0	3.4	31.0	32.8	32.8	100.0	73.7
	30대	94	0.0	7.4	29.8	39.4	23.4	100.0	69.7
	40대	48	0.0	4.2	35.4	47.9	12.5	100.0	67.2
	50대 이상	12	0.0	0.0	41.7	33.3	25.0	100.0	70.8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0.0	7.5	29.0	32.3	31.2	100.0	71.8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3.3	23.3	63.3	10.0	100.0	7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6.4	34.0	34.0	25.5	100.0	69.7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0.0	41.9	45.2	12.9	100.0	67.7
	20년 이상	11	0.0	0.0	45.5	36.4	18.2	100.0	68.2
지역	서울	79	0.0	3.8	29.1	43.0	24.1	100.0	71.8
	부산	4	0.0	25.0	25.0	25.0	25.0	100.0	62.5
	대구	5	0.0	0.0	0.0	60.0	40.0	100.0	85.0
	인천	6	0.0	0.0	50.0	33.3	16.7	100.0	66.7
	대전	14	0.0	7.1	42.9	50.0	0.0	100.0	60.7
	광주	31	0.0	6.5	32.3	29.0	32.3	100.0	71.8
	울산	3	0.0	0.0	33.3	66.7	0.0	100.0	66.7
	경기	10	0.0	0.0	40.0	40.0	20.0	100.0	70.0
	강원	18	0.0	11.1	38.9	27.8	22.2	100.0	65.3
	충북	6	0.0	0.0	0.0	83.3	16.7	100.0	79.2
	충남	8	0.0	0.0	62.5	12.5	25.0	100.0	65.6
	전북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전남	17	0.0	0.0	23.5	47.1	29.4	100.0	76.5
	경북	2	0.0	0.0	100.0	0.0	0.0	100.0	50.0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33.3	0.0	0.0	66.7	100.0	75.0	

5-2. 10)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 및 규제 유사화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6.1	7.5	24.5	31.6	30.2	100.0	68.0
소속	변호사	141	5.7	7.8	24.8	35.5	26.2	100.0	67.2
	대학원생	71	7.0	7.0	23.9	23.9	38.0	100.0	69.7
성별	남성	134	6.7	6.7	24.6	32.8	29.1	100.0	67.7
	여성	78	5.1	9.0	24.4	29.5	32.1	100.0	68.6
나이	20대	58	5.2	5.2	24.1	22.4	43.1	100.0	73.3
	30대	94	9.6	9.6	20.2	37.2	23.4	100.0	63.8
	40대	48	2.1	6.3	31.3	35.4	25.0	100.0	68.8
	50대 이상	12	0.0	8.3	33.3	16.7	41.7	100.0	72.9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5.4	8.6	23.7	24.7	37.6	100.0	70.2
	3년 이상~5년 미만	30	10.0	6.7	23.3	40.0	20.0	100.0	63.3
	5년 이상~10년 미만	47	8.5	6.4	21.3	40.4	23.4	100.0	66.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	6.5	32.3	35.5	22.6	100.0	66.9
	20년 이상	11	0.0	9.1	27.3	18.2	45.5	100.0	75.0
지역	서울	79	3.8	7.6	21.5	35.4	31.6	100.0	70.9
	부산	4	0.0	0.0	50.0	50.0	0.0	100.0	62.5
	대구	5	0.0	0.0	0.0	80.0	20.0	100.0	80.0
	인천	6	16.7	0.0	16.7	66.7	0.0	100.0	58.3
	대전	14	7.1	0.0	42.9	28.6	21.4	100.0	64.3
	광주	31	3.2	3.2	19.4	25.8	48.4	100.0	78.2
	울산	3	33.3	33.3	0.0	33.3	0.0	100.0	33.3
	경기	10	0.0	10.0	20.0	30.0	40.0	100.0	75.0
	강원	18	5.6	11.1	38.9	22.2	22.2	100.0	61.1
	충북	6	16.7	16.7	16.7	16.7	33.3	100.0	58.3
	충남	8	0.0	0.0	62.5	25.0	12.5	100.0	62.5
	전북	3	0.0	33.3	33.3	33.3	0.0	100.0	50.0
	전남	17	5.9	11.8	17.6	29.4	35.3	100.0	69.1
	경북	2	0.0	0.0	50.0	0.0	50.0	100.0	75.0
	경남	3	66.7	0.0	0.0	0.0	33.3	100.0	33.3
제주	3	33.3	33.3	0.0	0.0	33.3	100.0	41.7	

5-2. 11) 법률 AI 도입으로 양극화 심화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2.4	10.4	25.9	40.1	21.2	100.0	66.9
소속	변호사	141	2.1	10.6	26.2	39.7	21.3	100.0	66.8
	대학원생	71	2.8	9.9	25.4	40.8	21.1	100.0	66.9
성별	남성	134	2.2	11.9	24.6	41.8	19.4	100.0	66.0
	여성	78	2.6	7.7	28.2	37.2	24.4	100.0	68.3
나이	20대	58	3.4	6.9	31.0	36.2	22.4	100.0	66.8
	30대	94	3.2	13.8	24.5	39.4	19.1	100.0	64.4
	40대	48	0.0	10.4	22.9	47.9	18.8	100.0	68.8
	50대 이상	12	0.0	0.0	25.0	33.3	41.7	100.0	79.2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4.3	8.6	24.7	39.8	22.6	100.0	66.9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16.7	43.3	26.7	13.3	100.0	59.2
	5년 이상~10년 미만	47	2.1	14.9	19.1	40.4	23.4	100.0	67.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22.6	54.8	16.1	100.0	70.2
	20년 이상	11	0.0	0.0	27.3	36.4	36.4	100.0	77.3
지역	서울	79	2.5	10.1	25.3	45.6	16.5	100.0	65.8
	부산	4	0.0	25.0	25.0	50.0	0.0	100.0	56.3
	대구	5	0.0	0.0	20.0	80.0	0.0	100.0	70.0
	인천	6	0.0	16.7	16.7	16.7	50.0	100.0	75.0
	대전	14	0.0	14.3	42.9	21.4	21.4	100.0	62.5
	광주	31	3.2	6.5	22.6	38.7	29.0	100.0	71.0
	울산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경기	10	0.0	10.0	20.0	30.0	40.0	100.0	75.0
	강원	18	0.0	16.7	27.8	44.4	11.1	100.0	62.5
	충북	6	0.0	0.0	50.0	16.7	33.3	100.0	70.8
	충남	8	0.0	0.0	37.5	37.5	25.0	100.0	71.9
	전북	3	0.0	0.0	66.7	33.3	0.0	100.0	58.3
	전남	17	5.9	11.8	11.8	47.1	23.5	100.0	67.6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33.3	0.0	33.3	0.0	33.3	100.0	50.0	

5-2. 12) 판례 분석 법률 AI 활용 보편화

응답자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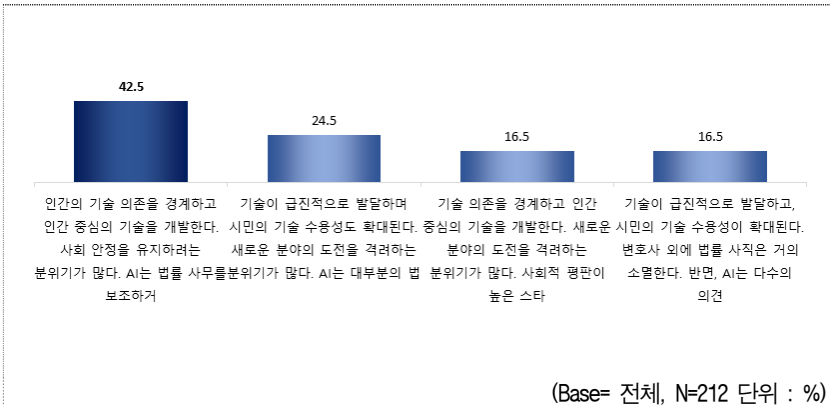
		사례 수 (명)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영향 매우 큼	계	100점 평균 (점)
[전체]		212	0.9	6.6	27.8	44.3	20.3	100.0	69.1
소속	변호사	141	0.7	8.5	26.2	41.1	23.4	100.0	69.5
	대학원생	71	1.4	2.8	31.0	50.7	14.1	100.0	68.3
성별	남성	134	1.5	6.0	34.3	44.8	13.4	100.0	65.7
	여성	78	0.0	7.7	16.7	43.6	32.1	100.0	75.0
나이	20대	58	1.7	3.4	34.5	41.4	19.0	100.0	68.1
	30대	94	0.0	9.6	26.6	46.8	17.0	100.0	67.8
	40대	48	0.0	6.3	22.9	41.7	29.2	100.0	73.4
	50대 이상	12	8.3	0.0	25.0	50.0	16.7	100.0	66.7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1.1	5.4	26.9	47.3	19.4	100.0	69.6
	3년 이상~5년 미만	30	0.0	6.7	43.3	30.0	20.0	100.0	65.8
	5년 이상~10년 미만	47	0.0	10.6	23.4	46.8	19.1	100.0	68.6
	10년 이상~20년 미만	31	0.0	6.5	25.8	45.2	22.6	100.0	71.0
	20년 이상	11	9.1	0.0	18.2	45.5	27.3	100.0	70.5
지역	서울	79	0.0	5.1	29.1	40.5	25.3	100.0	71.5
	부산	4	0.0	25.0	25.0	25.0	25.0	100.0	62.5
	대구	5	0.0	20.0	0.0	80.0	0.0	100.0	65.0
	인천	6	0.0	16.7	16.7	50.0	16.7	100.0	66.7
	대전	14	0.0	7.1	42.9	35.7	14.3	100.0	64.3
	광주	31	3.2	6.5	29.0	48.4	12.9	100.0	65.3
	울산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경기	10	0.0	10.0	10.0	40.0	40.0	100.0	77.5
	강원	18	5.6	0.0	27.8	61.1	5.6	100.0	65.3
	충북	6	0.0	0.0	50.0	33.3	16.7	100.0	66.7
	충남	8	0.0	12.5	37.5	25.0	25.0	100.0	65.6
	전북	3	0.0	0.0	0.0	100.0	0.0	100.0	75.0
	전남	17	0.0	0.0	23.5	47.1	29.4	100.0	76.5
	경북	2	0.0	0.0	50.0	50.0	0.0	100.0	62.5
	경남	3	0.0	33.3	0.0	33.3	33.3	100.0	66.7
제주	3	0.0	0.0	66.7	33.3	0.0	100.0	58.3	

6.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Q6. 다음의 네 가지 미래 사회상을 읽고, 10년 뒤 법률시장의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
(우리 사회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가장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하나 골라주세요.)

조사결과

- » 10년 뒤 법률시장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시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에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시를 활용하면서 변호 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 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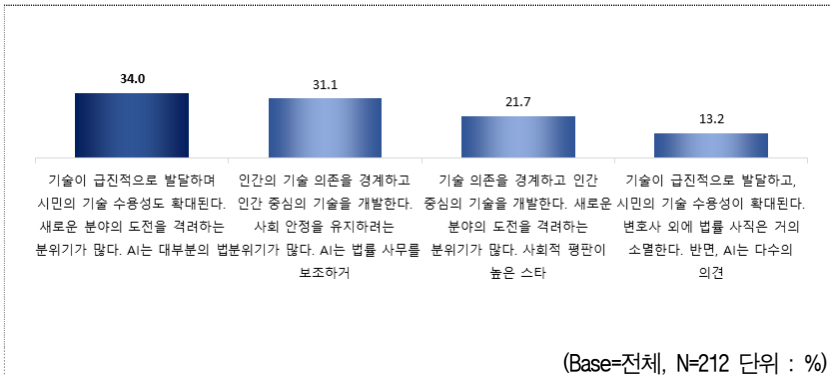
	사례 수 (명)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며 시민의 기술 수용성도 확대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계	
[전체]	212	42.5	24.5	16.5	16.5	100.0	
소속	변호사	141	41.8	26.2	15.6	16.3	100.0
	대학원생	71	43.7	21.1	18.3	16.9	100.0
성별	남성	134	43.3	24.6	13.4	18.7	100.0
	여성	78	41.0	24.4	21.8	12.8	100.0
나이	20대	58	43.1	22.4	19.0	15.5	100.0
	30대	94	42.6	22.3	17.0	18.1	100.0
	40대	48	41.7	29.2	14.6	14.6	100.0
	50대 이상	12	41.7	33.3	8.3	16.7	100.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41.9	22.6	18.3	17.2	100.0
	3년 이상~5년 미만	30	40.0	23.3	16.7	20.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42.6	25.5	14.9	17.0	100.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45.2	25.8	16.1	12.9	100.0
	20년 이상	11	45.5	36.4	9.1	9.1	100.0
지역	서울	79	38.0	25.3	16.5	20.3	100.0
	부산	4	25.0	0.0	25.0	50.0	100.0
	대구	5	20.0	40.0	20.0	20.0	100.0
	인천	6	50.0	16.7	0.0	33.3	100.0
	대전	14	50.0	21.4	14.3	14.3	100.0
	광주	31	38.7	35.5	9.7	16.1	100.0
	울산	3	66.7	33.3	0.0	0.0	100.0
	경기	10	40.0	40.0	10.0	10.0	100.0
	강원	18	38.9	33.3	22.2	5.6	100.0
	충북	6	50.0	0.0	33.3	16.7	100.0
	충남	8	50.0	25.0	12.5	12.5	100.0
	전북	3	66.7	0.0	0.0	33.3	100.0
	전남	17	52.9	5.9	29.4	11.8	100.0
	경북	2	100.0	0.0	0.0	0.0	100.0
경남	3	0.0	33.3	66.7	0.0	100.0	
제주	3	100.0	0.0	0.0	0.0	100.0	

6-1.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

6-1. 위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중 선생님께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미래가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주십시오(다른 미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선호하는 미래를 선택해주세요).

조사결과

- »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중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 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명)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며 시민의 기술 수용성도 확대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계
[전체]		212	34.0	31.1	21.7	13.2	100.0
소속	변호사	141	32.6	31.2	22.7	13.5	100.0
	대학원생	71	36.6	31.0	19.7	12.7	100.0
성별	남성	134	33.6	31.3	21.6	13.4	100.0
	여성	78	34.6	30.8	21.8	12.8	100.0
나이	20대	58	34.5	32.8	19.0	13.8	100.0
	30대	94	33.0	29.8	23.4	13.8	100.0
	40대	48	33.3	33.3	20.8	12.5	100.0
	50대 이상	12	41.7	25.0	25.0	8.3	100.0
법률 경력	3년 미만	93	35.5	30.1	22.6	11.8	100.0
	3년 이상~5년 미만	30	26.7	30.0	16.7	26.7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31.9	34.0	21.3	12.8	100.0
	10년 이상~20년 미만	31	32.3	35.5	22.6	9.7	100.0
	20년 이상	11	54.5	18.2	27.3	0.0	100.0
지역	서울	79	36.7	25.3	25.3	12.7	100.0
	부산	4	25.0	50.0	25.0	0.0	100.0
	대구	5	60.0	0.0	20.0	20.0	100.0
	인천	6	50.0	33.3	16.7	0.0	100.0
	대전	14	21.4	50.0	21.4	7.1	100.0
	광주	31	35.5	19.4	32.3	12.9	100.0
	울산	3	66.7	33.3	0.0	0.0	100.0
	경기	10	30.0	50.0	0.0	20.0	100.0
	강원	18	50.0	27.8	11.1	11.1	100.0
	충북	6	50.0	33.3	16.7	0.0	100.0
	충남	8	0.0	50.0	37.5	12.5	100.0
	전북	3	0.0	33.3	33.3	33.3	100.0
	전남	17	17.6	47.1	11.8	23.5	100.0
	경북	2	50.0	50.0	0.0	0.0	100.0
경남	3	33.3	0.0	0.0	66.7	100.0	
제주	3	0.0	66.7	33.3	0.0	100.0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
설문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와 관련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고용센터 법률시장의 변화, 미래 직무 변화 및 새롭게 수행할 신(新)직무, 미래 요구 역량에 관한 요구 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귀하가 미래 워크숍(전문가 FGI 조사)을 통해 도출한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변화상의 타당성 검증 및 직업능력 개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주시는 자료는 통계 분석으로만 활용되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관기관



수행기관



※ 문의 : 현대리서치연구소 이효원 과장 (02-3218-9659)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

■ 다음은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향후 5년 이내에 법률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축소될 것이다 ② 축소될 것이다 ③ 현상 유지될 것이다 ④ 확장될 것이다 ⑤ 매우 확장될 것이다

Q2. 다음의 각 항목은 미래 법률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법률시장 영향 정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응답칸
1)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①	②	③	④	⑤	
2) 변호사 수 증가	①	②	③	④	⑤	
3)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①	②	③	④	⑤	
5)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①	②	③	④	⑤	
7)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	①	②	③	④	⑤	
8)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약화	①	②	③	④	⑤	
9)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①	②	③	④	⑤	

2-1. 아래 항목 중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선택하시오 (우선순위 3개).

1순위 2순위 3순위

- 1)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 2) 변호사 수 증가
- 3)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확대
- 4) 변호사 지역과 유사 지역과의 충돌
- 5) 신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 6)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장
- 7)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
- 8)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약화
- 9)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 10) 특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Q3. 향후 5년 이후 다음의 변호사 직무 분야는 각각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5년 이후 변호사 직무 분야에 대한 생각	매우 축소	축소	현상 유지	확장	매우 확장	응답칸
1)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	①	②	③	④	⑤	
2)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를 판단하고 수입	①	②	③	④	⑤	
3)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 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	①	②	③	④	⑤	
4) 형사소송 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	①	②	③	④	⑤	
5)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①	②	③	④	⑤	
6)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①	②	③	④	⑤	
7) 증서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 업무	①	②	③	④	⑤	

3-1. 위 Q3에서 제시된 직무 이외에 향후 5년 이후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될 직무들을 생각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미래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역량의 미래 필요 정도와 나의 준비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각 역량의 미래 필요 정도					응답 칸	각 역량의 나의 준비 정도					응답 칸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혀 준비 안됨	준비 안됨	보통	준비 됨	매우 준비 잘됨	
1) 언어력(한국어) (듣고 이해하기, 읽고 이해하기, 글쓰기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법률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 윤리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기업가 정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술 활용 능력 (정보통신, 디지털, AI, 로봇 기술 활용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외국어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성 포용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미래 예측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위기 대처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이종 학문 분야 학습 및 다학제 간 지식 융합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자기주도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차별화 전략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전체 조망력 (상황 파악 능력 고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통찰적 실행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변화 수용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Q5. 다음은 10년 뒤 법률시장을 예측한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각 시나리오를 읽고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한다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의 수준을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뒤 법률시장 예측 미래 시나리오	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응답 칸	발생 시 사회에 미칠 영향					응답 칸
	전혀 불 가능	불 가 능	보 통	가 능	매우 가 능		전혀 없음	영 향 없 음	보 통	영 향 있 음	영 향 매 우 크	
1) 사무실 중심 변호사 시장이 사라지면서 변호사 개개인의 홍보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해진다.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변호사가 스타 변호사로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반영한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이 증가한다. 기업의 약관이 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커진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변호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4시간 상담해주는 서비스나 고객 맞춤형 플랫폼 등 더욱 간편하고 접근이 쉬운 법률 서비스가 등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 기사, 댓글, SNS 등 국민의 여론을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는 법률 AI가 등장한다.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미래 예측도 시도하며, 변호사들은 이러한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사람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AI 법조인 간의 재판이 열린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의뢰인들은 편견이 없는 AI와의 법률 상담을 사람 변호사와의 상담보다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여전히 대면 업무가 중요하며 의뢰인의 성향에 맞는 소통 능력이 중시된다. 법률 상담과 함께 공감 능력도 변호사의 주요 역량이다. 변호사의 업무에서 심리 상담도 주요 업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년 뒤 법률시장 예측 미래 시나리오	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응답 칸	발생 시 사회에 미칠 영향					응답 칸
	전혀 불 가능	불 가 능	보 통	가 능	매우 가능		전혀 영향 없음	영 향 없 음	보 통	영 향 있 음	영 향 매 우 크	
8) 법률 AI가 등장하지만 판단과 결정 영역은 여전히 사람이 담당한다. AI는 판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입법 관련 로비스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로비를 뇌물로 인식하는 정서 대신 자연스러운 경쟁이라고 보고 로비 활동 합법화가 추진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거대 AI가 등장해 전 세계 법률시장을 독점한다. 국가 간 법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 법률, 규제 방향이 비슷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법률 AI의 능력에 따른 격차가 생긴다. 기존에 부를 쌓은 법률사무소가 시스템이 뛰어난 법률 AI를 도입하면서 승소율이 높아진다. 변호사 간에 양극화가 심화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는 법률 AI 활용이 보편화된다. 기존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흡수하여 AI의 판결에서도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이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Q6. 다음의 네 가지 미래 사회상을 읽고, 10년 뒤 법률시장의 미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우리 사회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가장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하나 골라주세요).

- 1)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사회적 평판이 높은 스타 변호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로스쿨의 입학 및 졸업 문턱은 낮아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진입한다. 이종 분야의 연결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활발하다.
- 2)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며 시민의 기술 수용성도 확대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볼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고 미래도 예측한다. 변호사는 과거 변호 업무보다 AI와 협업하며, 법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이슈 등을 찾는 데 더 바쁘다.
- 3)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에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변호 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
- 4)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중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

6-1. 위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중 선생님께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미래가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주십시오(다른 미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선호하는 미래를 선택해주세요).

- 1)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사회적 평판이 높은 스타 변호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로스쿨의 입학 및 졸업 문턱은 낮아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진입한다. 이종 분야의 연결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활발하다.
- 2)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며 시민의 기술 수용성도 확대된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볼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고 미래도 예측한다. 변호사는 과거 변호 업무보다 AI와 협업하며, 법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이슈 등을 찾는 데 더 바쁘다.
- 3) 인간의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 AI는 법률사무를 보조하거나, 판례 수집 및 요약에 담당한다. 기존의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변호업무에 치중하고 부자와 관료 인맥을 관리하는 데도 노력한다.
- 4)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성이 확대된다. 변호사 외에 법률 사직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AI는 다수의 의견, 기존의 판례를 중시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로펌들이 법률시장을 지배한다. 변호사들은 AI와 협업하면서 얻은 자료를 변호에 적극 활용한다.

DQ1. 귀하가 재직(학생인 경우 재학)
중인 곳은 어디입니까?

D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Q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4. 귀하의 법률 관련 경력은 어느정도입니까?
(학생인 경우 학년 기재)

년

DQ5. 귀하가 재직 중인(학생인 경우 재학)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대전 | ⑥ 광주 |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세종 | |

※ 응답해 주신 모든 분께 소정의 답례품(30,000원 상당)을 보내드리오니,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성명		휴대폰 번호	- -
--------	--	-----------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필진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책임)
윤미희 (한국고용정보원, 공동연구)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공동연구)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

인쇄 2020년 12월 21일
발행 2020년 12월 21일
발행인 나영돈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주)현대아트컴
☎ 02-2278-4482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959-9 93330

